

홍보자료

민관협력 2011-03-141



1995~2009 민간단체지원사업 성과사례집

지구촌 꿈...
그리고
따스
12

KOICA
한국국제협력단

WORLD
FRIENDS
KOREA

지구촌의...
그리고
다들

1995~2009 민간단체지원사업 성과사례집

지구촌 꿈...
그리고
따뜻함

홍보자료 민관협력 2011-03-141

1995~2009 민간단체지원사업 성과사례집

지구촌 꿈... 그리고 땀

발행 2011년 8월 31일
편집·검·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민관협력실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우) 461-833
전화 031-740-0114
Website <http://www.koica.go.kr>
디자인 Design Studio 203
(무단복제를 금함)

<비매품>

발간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민간단체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약 15년 동안 이어진 민간단체지원사업을 되돌아보며 그동안의 성공사례들을 접하면서 금번 사례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성과 사례집의 제작자이자 주인공으로서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땀 흘리며 애써주신 민간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공여국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경험도 짧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지구촌의 빈곤 감소를 위해 지치지 않는 노력을 해왔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국제사회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한국을 다시 한 번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점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및 민간 기업들도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개발협력분야의 민간단체는 급격한 양적·질적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민간단체에 대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더욱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비율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민간단체 역량강화사업과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

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아시아 최초로 항공권연대기여금을 활용한 민간단체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단체의 급격한 성장과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새롭게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신생 또는 소규모 민간단체들 입장에서는 기존 단체들이 축적해놓은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양한 사례의 공유를 통해 향후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민간단체지원사업을 중간 점검하는 의미로 이번 성과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책에 담긴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개발협력 및 민간단체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민간단체들에게는 단체 간 사업에 대한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2011년 6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박대원

박대원

1. 1995~2000

장미회	네팔 지역개발사업	12
지구촌나눔운동	베트남 하띠이성 지역개발사업	22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에티오피아 농촌지역 식수공급 사업	30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케냐 빈민지역 개발사업	38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키르기스공화국 한방진료 사업	50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필리핀 지도자 교육 지원사업	56
한국국제봉사기구	리베랄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사업	66
진각복지재단	스리랑카 사회복지 직업훈련센터	78
인구보건복지협회	중국연변조선자치주 인구·생식보건 기술원조사사업	86
한국건강관리협회	라오스 기생충퇴치사업	96

2. 2001~2005

한국JTS	인도 수자타 기술 중·고등학교 건축 및 운영	108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미얀마 지역사회 통합접근을 통한 영유아개발사업	116
방글라데시개발협회	방글라데시 짚마리·올리플 지역개발 사업	126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아프가니스탄 난민 긴급구호사업	134
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	남아공 유치원 설립운영 및 지역개발사업	144
한국해비타트	몽골 사랑의집짓기 사업	156

정해복지재단	베트남 투득기술대학교 교육 지원사업	166
동서문화개발교류회	모잠비크 보건 및 의료지원 사업	172
새마을운동중앙회	스리랑카 칼루타라 '희망의 새마을 만들기'사업	180
플랜한국위원회	수단 통합아동보호 및 개발사업	188
글로벌케어	인도네시아 쓰나미지역 질병예방·치료 및 보건교육사업	198

3. 2006~2009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몽골 울란바트르 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210
한민족복지재단	캄보디아 프놈펜 삼무키부언마을 극빈층아동케어사업	218
한중미래숲	중국 서북부지역 황사사막화방지 한중우호녹색생태원 조성시범사업	230
유엔인권정책센터	베트남 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238
팀앤팀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니아스 섬 빗물 이용 시설 지원 사업	246
굿피플인터내셔널	미얀마 교육 및 의료시설 복구사업	254
한국월드비전	레소토 렌코안 지역 생계형 텃밭 가꾸기 사업	264
국제옥수수재단	네팔 람푸르 지역 옥수수 종자 개발 및 교육지원사업	274
한국헬프에이지	미얀마 17개 마을 빈곤노인의 소득증대와 홈 케어 자조 모임 구축사업	284

1995~2009년 KOICA가 지원한
개발 NGO 활동 분포





KOICA
민간단체 지원사업
성과사례

1995~2000

장미희

지구촌나눔운동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한국국제봉사기구

진각복지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오지마을에도 의료의 손길이

네팔 지역개발사업
장미회



만년설이 빛나는 네팔의 가우리상카 봉우리(7,144m) 산자락에는 힌두교의 성지라 불리는 돌카마을이 있다. 돌카마을은 15세기 마즈라 왕조 시대 때 하나의 독립국가였던 역사가 있어 옛날부터 네왈족(네팔 중부 카트만두 분지에 사는 소수민족으로 네팔인구의 6%를 차지한다)만이 살아왔던 곳이다. 깊은 히말라야 산골에 위치하고 있는 이 마을에는 힌두사원인 빔셈 사원이 있다. 이 빔셈 사원은 장사를 변창하게 하는 신을 모시는 사찰로 유명하며 네팔의 3대 사찰 중 하나다. 이런 배경이 있어 이 지역은 가장 보수적인 종교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지역보다 개방적인 성격을 띠어 이곳의 지역주민들에게 화합과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땅이었다.

장미회는 주로 국내에서 간질환자의 상담과 진료를 해오던 기관이었으나 네팔과 인연을 맺은 것은 꽤 오래 전부터다. 25년 전인 1985년 이화여대 의대에 유학 온 한 네팔인 유학생의 요청으로 네팔에 간질환자 진료소를 세운 것부터 시작되었다. 사실 한국에 간질 진료소가 세워질 당시에도 독일과 미국 등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으니 이런 인연들이 모두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에 한 네팔인 여학생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선뜻

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하여 카트만두의 한 작은 건물에서 소박하게 간질환자 진료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카트만두 간질환자 진료소사업의 협력자를 통해 알게 된 돌카마을은 카트만두에서 자동차로 8시간 이상 험난한 길을 가야 도착하는 오지이다. 장미회는 이곳에 '가우리상카병원'을 설립하여 일평생 의료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의 손길을 뻗칠 수 있었다.

이곳의 극빈층이나 지역주민들은 간단한 진료나 수술만으로도 회복될 수 있는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등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 또한 세균성 설사, 간염, 장티푸스, 뇌염, 말라리아 그리고 뎅기열 등의 질병으로 인한 영아사망률도 굉장히 높다. 1990년대에 영아사망률 9.9%, 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 14.2%(UNICEF)로 집계되는데 특히 산간지역이나 오지의 경우 통계 자료보다 더 높은 사망률이 보여진다. 특히 임신부 10명 중 9명이 전문 조산인 없이 가정에서 출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출산한 임신부 중 69%가 사망(2007년 DFID, 조산원 출산율 18%, WHO)하는 등 영아뿐만 아니라 임신부의 건강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진료약품 준비하는 모습



이동진료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가우리상카병원은 1989년 1월 현지 주민이 기증한 200여 평의 땅에서 병원 기공식을 했고, 다음해 건평 170평의 흰색 콘크리트 3층 벽돌 건물을 지어 완공했다. 1층에는 진료실, 약국, 검사실, 투약실, 대기실, 접수실을 갖추었으며, 2층은 입원실(20베드), 수술장, 3층은 한국봉사자 숙소가 포함돼 있다. 2년 후에는 부속건물 1개 동을 추가로 지어 직원기숙사, 차고, 발전기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점차 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시설과 규모를 갖춘 병원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가우리상카병원의 운영을 위해 운영비는 물론 의료기자재, 의약품, 앰블런스를 지원하였으며 의사 8명, 간호사 5명, 방사선사 1명 등 전문 의료인도 파송되었다. 또 세브란스병원의 가정의학과 수련의들이 2개월씩 교대로 총 32명이 파송되어 전문 진료를 맡아 주었다. 또한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KOICA 단원의 협력은 물론 매년 이화의대, 건국의대, 누가회, 한방팀, 장미회 등 여러 의료팀이 방문하여 무료 진료 캠프도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가우리상카병원이 돌카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명실공히 지역병원으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서 가슴 아픈 희생도 뒤따랐다.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수련의 중 세 번째로 이곳에 파송되었던 고(故) 홍사옥(여/당시 26세) 선생이 카트만두에 착륙을 시도하던 비행기가 폭우로 인해 추락하면서 의술의 꿈을 펼쳐보이기도 전에 산화한 것이다. 이런 비극이 벌어진 와중에도 전문의의 파송이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더 뜨거운 각오로 임하는 손길이 많았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비극에 슬퍼하면서도 전문의들은 밤에 병원에 도착하여 짐을 방에 들여 놓기도 전에 다음날 수술할 수술 장비 등을 조립하고 잤은 정전에 대비해 제너레이터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

를 준비하고 석유가 떨어졌을 때 석유까지 조달하며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진료해 주기 위해, 또 못다 한 동료의 몫까지 감당하기 위해 뜨겁게 봉사활동에 임했다.

우리 의사와 간호사들의 그칠 줄 모르는 열정과 사랑이 바탕이 된 헌신적인 진료와 봉사는 내과, 외과 및 화상환자, 골절환자, 수인성 질환 등 여러 질병의 치료에 머물지 않았다. 환자에게 손수 미역국을 끓여주고 자신의 전기장판까지 내어 환자에게 깔아주는 건 물론 한밤중 산 아래 마을까지 내려가 출산을 돕고 난산 후 안 나오는 태반을 떼어내는 등 맘으로 범벅이 됐던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봉사는 매일 100~200명의 환자들의 진료를 가능케 했다. 가우리상카병원에서 치료가 힘든 환자는 앰블런스로 카트만두 종합병원에 이송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렇듯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병원의 존재가 점차 현지인들의 입소문에 의해 알려지게 되면서 환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병원 근처에서 오는 이들도 있었지만 환자 중에는 2~3시간 걸어서 왔다거나 혹은 하루, 심지어는 7일을 걸려서 왔다는 환자도 있었다. 몸이 불편한 환자와 가족들이 그렇게 힘들여 먼 길을 찾아온 것은 그만큼 가우리상카병원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병원 밖에서의 진료와 보건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처음엔 한 마을에 있는 보건지소와 협력하여 그들의 조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산마을을 함께 다니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오지 마을의 주민들을 찾아가 보건 교육은 물론 마을 보건 조사와 소독 등도 실시했다.

특히 당시 여러 의과대학에서 봉사활동을 온 의사, 간호사들과 함께 직접 약품 등을 짚어지고 오지에 들어가서 진료를 하는, 일종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소규모 메디컬 캠프(Medical camp)를 여러 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 가장 의미 있던 일로 기억에 남는다. 건너편 산마을까지 두어 시간이면 갈 수 있다는 말에 약을 챙겨 가보니 무려 6시간이 걸리는 곳이었던 적도 있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네팔의 단체 및 정부로부터도 우리의 활동은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 결과 1995년 4월에는 네팔 국왕으로부터 사회봉사부문 훈장을 받았으며, 1995년에는 네팔정부의 'SWC(Social Welfare Council)'로부터 '국립직업기술훈련원'의 운영을 위탁받기도 했다.

수도 카트만두로부터 북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부다닐칸타에 위치한 '국립직업기술훈련원'은 무직의 농촌 청년들을 선발하여 직업기술 교육을 통해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다. 750평의 대지에 행정사무실, 훈련원, 숙소, 기숙사의 시설을 갖추고 교사 6명과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국립직업기술훈련원은 건물과 대지를 포함하여 총 예산의 20%를 네팔정부의 SWC에서 부담하고 예산의 80%를 장미회에서 지원하여 첫해에 30여 명의 훈련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양재, 목공, 축산, 버섯 재배 등의 기술 훈련을 통하여 직업능력을 배양, 새로운 생산능력을 갖추고 경제활동의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소득증대의 꿈을 이루는 시동을 걸 수 있었다.

국립직업기술훈련원은 후에 양재과, 전기과, 미용과, 컴퓨터과 등 총 4개 학과로 정립되어 하루 5시간씩 주 5일 과정으로 직업훈련이 진행되었고, 1995년부터 2006년까지 2,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수료기간 중 생활비



직업기술훈련원의 양재과 모습

를 지급하고 수료 후 정착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기간 중 기술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대기 리스트에 오를 정도로 반응이 좋다. 졸업생들은 취업 및 자영업을 통해 대부분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높았다. 또한 외국으로 나갈 때는 졸업장으로 인정해 줄 정도로 신뢰 역시 쌓을 수 있었다.

가우리상카병원은 1990년 1월 개원하여 2002년 7월까지 13년간 본 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돌카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자립해 나갔다. 그리고 2002년 7월부터는 자주적인 운영을 위해 병원의 제반 운영을 네팔 보건부에 이양하면서 본 법인은 돌카지역에서 철수했다. 물론 여기에는 마오 공산반군의 출현도 영향을 주었다.

외국 사람들이 제3세계에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지원하는 예는 흔히 찾아



수료증을 받고 환히웃는 학생들

볼 수 있다. 외국인이 직접 운영할 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외국인들이 떠나고 나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현재 가우리 상카병원은 한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네팔인 젊은 의사가 병원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돌카지역 주민들은 본국의 의료진을 통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돌카지역 사람들은 한국인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시설이 구축된 것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피땀을 흘린 한국인 의료진 및 봉사원의 따뜻한 손길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국립직업기술훈련원을 통해 배출된 인력 역시 각 가정의 주축이 되어 사회활동에 기여할 것이며 네팔지역의 전반적 생활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믿는다.

▶ 관련통계자료

- http://www.unicef.org/infobycountry/nepal_nepal_statistics.html
- <http://www.who.int/countries/npl/en/>
- <http://www.dfid.gov.uk/casestudies/files/asia/nepal-safe-motherhood.asp>

기관명	장미회	
단체 소개	장미회는 박애정신에 기반을 두고 간질병 환우의 진료, 상담 및 복지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미국과 독일 교회의 도움으로 처음 시작되어 서울기독교사회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장미회가 발족되면서 네팔 등 해외에서도 의료와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명	네팔 지역개발사업	
사업기간	1995. 1. 1 ~ 1995. 12. 31	
사업대상	네팔 돌카 및 부다닐칸타 지역주민	
사업목표	건강 증진보건사업 및 직업교육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을 도와 인류애를 실천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증진 및 생활위생 강화 • 가계 소득 증대 	
업무분담	KOICA	가우리상카병원 및 직업기술훈련원 사업비 지원
	장미회	운영비, 약품, 물품 및 인력 지원
	수원국	부지제공, 시설제공, 정부 예산 연 1만 달러 지원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파견 • 의약품, 의료기 지원 • 진료, 위생계몽, 예방·보건교육 등 시행 • 기술훈련생 모집 • 교육 및 직업지도 • 협동조합 운영 	

약속을 지킨 단체 지구촌나눔운동

베트남 하띠이성 지역개발사업
지구촌나눔운동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에게 특별한 인연이 있다. 베트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고통을 겪은 나라이다. 또한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 중요한 장기국가개발계획이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 점도 우리와 비슷하다.

지구촌나눔운동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 위기에 처한 어느 한국 시민단체의 베트남 사업을 인수하여 완성함으로써 베트남 하띠이성에 첫 사업장을 가지게 되었다. 1998년 12월 16일 직업훈련 기능으로 문을 연 '한-베협력센터'의 준공식 날, 베트남 한 정부 관계자가 했던 인사말은 잊혀지지 않는다. "한국에 IMF가 찾아오기 전에 베트남과 지원협력을 약속했던 수많은 단체들은 결국 모두 떠났고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구촌나눔운동은 결국 돌아왔고 약속을 지킨 것은 지구촌나눔운동뿐이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이 말을 가슴에 담으며 베트남 하띠이성 지역개발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한국이 단기간에 이루어낸 경제성장에는 선진국의 원조가 크게 뒷받침되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여러 개발도상국가들의 발전을 지원해야 할 위치에 있다. 이런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이고 한국의 경제개발의 교훈을 토대로 삼

아 지구촌나눔운동은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이루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것을 돕기로 결정했다. 그 첫 해외사업장이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베트남이었던 것이다.

1995년 2월과 5월, 두 차례 베트남 현지를 방문하고 KOICA 베트남 지부 및 베트남 원조 중재조정기관인 PACCOM(People's Aid Coordinating Committee)의 협조 아래 하띠이성을 사업지로 선정하였다. 하띠이성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서남쪽 근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230만 명, GNP 180달러(농촌지역은 약 70~80달러)정도 된다. 초·중·고교가 약 700여 개, 병원이 16개로 잘 갖춰져 있으나 시설은 매우 낙후하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곳이 많았다. 하띠이성은 농업을 주된 생업으로 삼고 있으며 수도 하노이의 배후농업지역으로 주민의 약 70%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약 110만 명의 노동인구 가운데 약 4만 명이 실업 상태인 지역으로 농업개발기술과 사업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었다. 이에 지구촌나눔운동은 하띠이성 인민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베트남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부지에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한-베협력센터'를 설립했다.

센터는 하띠이성 내 실업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직업훈련, 농촌지역개발 중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인 암소은행, 장애인 의지·보조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의료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목공훈련을 중심으로 한 직업훈련은 고급 기술인력 양성에 목적으로 두고 한국 목공훈련분야 전문가를 장기간 파견하여 기술을 지도했으며 훈련생들은 기술 수준과 성실성에 근거하여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 장학제도를 시행하여 자기개발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총인구 23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및 보건혜택은 고



베트남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암소지원



베트남 실업청년들을 위한 목공훈련

작 16곳에서만 가능한 열악한 실정을 파악하여 간호사를 한-베협력센터에 상주시켜 진료활동을 하고 장애인들에게 의지·보조기를 제공하는 사업도 진행했다. 또한 한국과의 민간교류가 없는 이 지역에 대학생 봉사단을 파견하는 사업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관계 증진에도 기여했다.

사업 초기에는 베트남의 날씨에 적응하지 못하여 어려움도 있었다. 특히 여름에는 40도를 넘나드는 습한 날씨가 이어져 강도 높은 훈련이 어려웠다. 또한 사회주의 영향이 남아 있는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에 자유로운 활동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이런 어려운 점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원 활동과 훈련생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역주민과의 교류에도 앞장서 폐쇄적인 분위기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한-베협력센터는 1995년의 사업조사를 시작으로 1998년 베트남 정부가 제공하는 3,700평 부지 내에 실습장, 강의동, 기숙사를 갖춘 건평 900평의 규모로 준공됐다. 직업훈련사업으로 목공기술은 2000년까지 3기에 걸쳐 총 68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으며, 1999년 12월에는 1기 22명 중 15명이 동아건설 리비아 사업장에 취업했으며 7명은 대학 진학 및 국내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은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함께 진행한 농촌개발사업이며 이를 통해 3개 마을의 숙원사업인 길포장, 독 건설, 학교개축 등이 진행되어 베트남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또한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의회와 함께 진행한 암소은행을 통해 가난한 농가에 31마리의 송아지를 입



베트남 하미성에 위치한 한·베협력센터 전경

대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 이런 종합적 농촌개발사업은 하띠이 성 지역에 한국에 대해 ‘좋은 이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이후로도 13년간 베트남에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해왔다. 앞으로도 ‘약속을 지킨 단체, 지구촌나눔운동’을 기억하며 베트남의 동반자로 함께하고자 한다.

기관명	지구촌나눔운동	
단체 소개	지구촌나눔운동은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과 시민사회발전을 위해 1998년 한국에서 설립된 국제개발 NGO이다. 지구촌나눔운동은 베트남, 몽골, 동티모르, 미얀마, 케냐, 르완다 등 총 6개국 8개 사업장에서 지역개발사업 및 지구촌의 빈곤과 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 해외원조정책과 전략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명	베트남 하띠이성 지역개발사업	
사업기간	1995. 1. 1~2000. 12. 31	
사업대상	하띠이성을 포함한 베트남 북부지역 실업청년 및 주민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청년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생업기반 제공 • 농업기술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 증진 • 민간교류를 통한 한국-베트남 우호 증진 	
업무 분담	KOICA	사업비 지원 및 평가
	지구촌나눔운동	전체 사업 기획 및 총괄, 평가, 수행 인력 파견
	수원국	3,700평 부지 제공, 거주이전 보상비 지원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현지조사(1995. 2. 5) • 한-베협력센터 준공(1998. 12) • 직업훈련사업 목공훈련 1기 22명 교육 시작(1999. 1) • 농촌지역개발 신용금고사업(암소은행) 시작(1999. 10) • 목공훈련생 1기 졸업생 15명 리비아 동아건설 취업(1999. 12) • 신용금고사업(암소은행) 암소 31마리 지원(2000. 6) 	



에티오피아에 생명의 물을!

에티오피아 농촌지역 식수공급사업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물을 길기 위해 10km를 걸어 왔어요.”

1995년 10월 말 에티오피아 남부 보라 워레다(Bora Wareda)지역, 조그만 연못에서 우기에 내린 빗물을 담고 있는 농촌 여인 30여 명을 만났다. 연못은 심각하게 오염된 흙탕물이었지만 이곳에선 염소, 나귀 등 가축들과 함께 사용하는 식수원이다. 그나마도 12월 초 연못이 말라 바닥을 드러내면 20~40km나 떨어진 아와시강까지 식수를 구하러 가야 한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KOICA와 공동으로 에티오피아 농촌지역 식수공급 사업을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995년 10월 말 사업지역인 보라 워레다 지역을 방문했다.

에티오피아 대부분의 지역은 4월부터 8월까지의 우기를 제외하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길디긴 건기가 계속된다. 이 기간에는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식수원으로 주로 사용되는 연못의 경우 동물이나 가축이 함께 이용할 뿐만 아니라 관리가 되지 않아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으며 우기 시작 전에 대부분이 말라버린다. 펌프를 설치하거나 우물을 파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



KOICA-UNICEF 에티오피아 보라 워레다 지역 식수공급 사업개소식. (군수, 수도사업소 직원, 지역주민 대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조정관과 김미화 카드후견인 등 참석)

들이 10km 이상을 매일 물동이를 이고 다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매일 15시간 이상 물을 걷기 위한 중노동에 시달린다. 식수 부족은 부녀자들이 가계소득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거나 아이들을 돌보는데 쓸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여자 어린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마저 앗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깨끗한 식수와 위생적인 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화장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우기에도 손쉽게 식수를 구하기 위해 대소변과 동물의 배설물이 섞인 흙탕물을 그대로 식수로 이용하기 때문에 수인성 질환인 급성설사병이 만연해 있다.

유니세프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와 협력하여 농촌지역에 우물과 수동펌프 등 적절한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식수를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유니세프 에티오피아사무소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3개년 사업 착수에 앞서 사업지역의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1994년 기초조사(WIBS: Woreda Integrated Basic Services

Baseline Survey)를 실시했다.

보라 워레다 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급수시설이다. 전체 37개 마을 중 3개 마을만 지하수가 개발되었고 11개 마을은 아와시 강물을 식수로 이용하며 23개 마을은 11월이면 바닥나는 연못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다가 12월부터 20~40km나 떨어진 아와시강으로 물을 얻기 위해 대이동을 한다.

지하수를 개발하여 펌프를 설치하거나 관정(bore-hole)을 박아서 대량의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지만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사업소는 하나밖에 없고 인력도 소장과 직원 3명뿐이다. 장비도 대형굴착기 1대와 운반 차량 1대가 고작이어서 낙후 지역에서 비용을 마련했다 해도 관정을 박거나 펌프시설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니세프 에티오피아사무소는 본 사업의 기획과 사업비 집행, 사업 전반에 걸친 기술자문, 정기적인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 모니터링, 평가 등을 총괄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우물 3개소를 신설하고 지역사회 단위 펌프 6개, 마을 펌프 14개, 가정 단위 펌프 8개, 자동펌프 6개를 장착하였으며, 연못 7개를 개수했다. 급수시설이 설치된 후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설 관리 운영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급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워레다 사회개발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사업 전 과정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식수공급시설을 설치하고, 펌프 운영관리자와 지역주민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역주민의 능력 개발에 역점을 두어 지역주민이 스스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식수관련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유니세프 에티오피아사무소의 사업 수행능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이다. 에티오피아 정부와 지역주민들은 열악한 식수공급 문제를 해소해줄 수 있는 본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사업을 적극 지원했다.

오로미야 급수 및 자원개발국(Oromiya Water,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Development), 보라 워레다와 알시 네겔레 워레다의 자원개발 환경보호국(Natural Resources Development & Environment Protection Department) 등 지역당국은 전반적인 사업 실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조정하고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했다.

그 결과 보라 워레다와 알시 네겔레 지역주민 2만 명이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수인성질환으로 인한 영유아 및 모성 사망을 줄이는 등 보



마을 우물을 파기 위해 모인 보라 워레다 지역주민들과 수도사업소 공무원들



우물 관정 시추작업장을 방문한
안성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친선대사

건부문에서도 성과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여성과 어린이들의 물 길는 노동
을 줄임으로써 사회경제적인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또
한 정부 및 지역당국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에티오피아 스스로
식수 부문의 사업을 기획, 집행, 모니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계
기가 되었다.

기관명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단체 소개	어린이를 위한 유엔기구인 UNICEF의 36개 선진국형 기구 가운데 하나로 한국에서 세계어린이상징과 유니세프의 활동을 널리 알려 기금을 모아 보건, 영양, 식수·위생, 교육, 어린이 보호 등 150여 개 개발도상국의 아동개발사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 및 이행 촉구, 세계교육, 모유수유 권장 등을 통해 어린이권리를 증진하는 활동을 펼친다.	
사업명	에티오피아 농촌지역 식수공급 사업	
사업기간	1995. 4 ~ 1998. 12	
사업대상	남부 오로미야(Oromiya) 지역 보라 워레다(Bora Woreda), 알시 네젤레 워레다(Arsi Negelle Woreda) 주민 2만 명	
사업목표	주민들이 1km 이내에서 매일 1인당 15리터의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물, 수동펌프 등 식수공급시설 설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여 만성적인 급성 설사병과 콜레라 등 수인성질환 예방, 어린이 사망률 감소 식수를 얻기 위해 소비하던 시간을 농사나 가축 사육 등 소득증대 활동과 교육에 활용 	
업무분담	KOICA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니세프 에티오피아 사무소 수원국	사업비 지원 급수시설 설치, 시설 관리운영 교육(기획, 사업비 지원 및 집행, 기술지원,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지역당국이 전반적인 사업실행 관리 및 조정, 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니세프 에티오피아사무소 식수개발담당관 및 오로미야 지역 수도사업소장,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의 사업지역 방문 및 기초조사 실시(1995. 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조정관 사업지역 방문 협의(1995. 10) 지역주민회의를 통한 사업 우선순위 결정(1995) 급수시설 설치 및 개보수(1995~1998) (우물 3개소 신설, 지역사회 단위 펌프 6개, 마을 펌프 14개, 가정단위 펌프 8개, 자동펌프 6개 장착, 연못 7개 개수) 지역주민 시설 운영관리 및 위생교육(1995~1998) 	

케냐에 맺히는 희망의 열매

케냐 나이로비 고로고초, 단도라 슬럼지역 개발사업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



고로고초와 단도라 슬럼가에 들어서면 코를 찌르는 악취와 동시에 웬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진다. 그러나 찌그러지고 녹슨 양철 지붕 사이로 태양이 솟아오르거나 석양이 지는 모습을 보노라면 이 절망의 슬럼가에도 희망이 비춰지는 것 같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단도라 고로고초 지역은 대부분의 사진작가들이 선호하는 촬영장소가 되었다.

마을 중간으로 흐르는 검은 강이 있다. 이 강물은 마을 주민들이 쏟아내는 오물로,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을 거쳐 나오면서 완전히 검은 먹물로 뒤바뀐다. 먹이를 찾아 동네를 헤매며 이 강을 건너는 검은 돼지는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하얀 돼지로 바뀌는 마술을 연출한다. 그래서 고로고초에서 보는 빛물은 단순한 빛물이 아니라 고로고초의 검게 타는 마음을 씻어주는 위안의 물길이며 솟아오르는 태양은 매일을 견뎌낼 새로운 희망처럼 다가오는 것이리라.

고로고초는 이름대로 '혼돈의 자리'이다. 나이로비 도시의 모든 쓰레기를 하차하는 곳으로 악취와 함께 절망이 차곡차곡 쌓인다. 아이들은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사리 같은 손에 공부하는 연필을 쥐는 대신에 쓰레기를 줍

는다. 하루 종일 쓰레기를 주워야지만 가족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기에 학교를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1997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곳에 KOICA와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이 함께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학교가 없는 이곳에 교육센터를 개소했지만, 처음에는 아이들이 쓰레기를 주어야 했기 때문에 학교에 오지 못했다. 이런 아이들을 교육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급식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이 KOICA의 지원을 받아 교육을 통한 빈민지역 개발을 시작한 지 어언 10년의 시간이 지났다. 1년, 3년 그리고 5년이 지나가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변화가 없어서 때론 답답함을 느꼈지만 변화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꾸준한 지원으로 지금까지 사업은 지속되고 있다.

단도라와 고로고초 슬럼지역 정보

위치	나이로비 도심에서 동쪽 10km에 위치. 케냐에서 세 번째로 큰 슬럼	
인구	약 80만 명 이상 거주	
생활 여건	주식	쌀, 옥수수, 콩
	최빈곤층 인구	하루 1달러 미만 생활자 65%
전기 사용 인구	2%	
식수	안전한 식수 접근률: 17%	
위생(화장실)	기본 위생시설에의 접근 가능 인구 비율: 20% 미만	
질병 발생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대규모 쓰레기 하치장이 위치해 각종 호흡기 질환 발생 위생시설 미비로 수인성 질병의 발병률 높음 에이즈 감염 인구율: 35% 	
초등학교 등록률	남성 30%, 여성 15%	
유자격 교사 비율	12%	



지라니 아동보호센터에서 급식하는 아이들

KOICA는 단도라와 고로고초 슬럼지역에 7회에 걸쳐 7년간 4억 4,000만원의 재정을 아동교육과 직업교육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해 집중투자하였고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은 해당 지역 정부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금까지 이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현지 실태조사 결과, 케냐의 초등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전환되었으나 시험료와 급식료, 교복 등의 구매에 드는 비용은 여전히 높기에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접근성은 여전히 낮다. 또한 슬럼지역 거주 아동의 경우, 빈곤과 지역사회 내의 열악한 환경(분드나 마약 등 약물중독, 실업, 조혼, HIV/에이즈 등)으로 인해 교육의 중도탈락률이 높다.

초등학교 교과 과정 교육과 더불어 아동이 지속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양식 제공, 상담 및 가정방문, 특별활동, 야외활동, 보건교육, 건강검

진 등의 통합적 아동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슬럼지역 내 대다수 청소년들의 중등학교 진학률이 저조하여 빈곤과 지역사회 불안을 야기하므로 중등 교육과 결합된 다양한 기술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은 이런 취약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 내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현재까지 지라니 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초등교육 및 급식사업, 특별활동, 상담 등을 진행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직업훈련 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목공, 용접, 재봉, 미용, 컴퓨터 등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지식과 취업에 용이한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향후 실업률을 낮추고 직업을 통해 빈곤을 탈피하게 하며 청소년기의 인격 및 사회성 발달을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라니(스와힐리어로 Neighbor, 즉 이웃이라는 뜻) 아동교육센터는 매년 아동 160명(8개 학급)에게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따라 영어, 키스와힐리어, 수학, 과학, 사회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용품 및 교복, 도서, 학습 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음악과 미술교육을 정규수업에 추가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을 위해 노력하였고, 매주 1회 태권도반을 운영하여 아동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했다. 이외에도 과학교실, 공작교실, 위생 및 HIV/AIDS 예방, 권리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규교육 과정 외에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매학기(1년에 3학기 운영)마다 종강식을 개최하여 아동 및 부모들과 한 학기 동안 교육센터의 활동과 아동 학업률 향상 등에 대한 나눔과 평가의 시



지라니 아동보호센터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



수업모습

간을 갖기도 했다. 이런 다양한 시도와 노력의 결과로 2008년도에는 아동의 95%가 상급반에 진급하였고 특히 케냐 초등교육 시험인 KCPE(Kenya Certificate of Primary Education)에서 8학년 학생 20명 중 17명(85%)의 학생이 합격했으며 이 가운데 7명의 학생이 상급학교(중등교육)에 진학했다.

직업훈련학교의 초기 계획은 수혜 대상 목표를 연간 200명으로 설정하였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일인당 교육비가 증가하고 또 교육공간이 미비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센터 등록인원을 140명으로 제한했다. 등록인원 총 140명 가운데 100명은 자격증반(4개 반: 목공, 재봉, 이미용, 컴퓨터)에, 40명(이미용Ⅱ)은 일반인반에 해당된다. 총 등록인원의 직업교육 이수율은 95%에 달하며, 자격증반 인원 중 자격증 취득률은 73%에 이른다. 학과별 자격증 취득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면 재봉반과 컴퓨터반은 수료생 대비 100% 취득률을 보이고 있으나, 목공반과 이미용반의 경우는 취득률이 다소 저조한 편이다. 목공반과 이미용반의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수준 높은 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실습에 필요한 많은 도구들과 재료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표 1. 2008년도 등록 현황 및 자격증 취득 명수)

또 다른 목표인 취업률을 살펴보면 총 수료생 133명 중 취업자 수는 85명으로 64%의 취업률을 보인다. 학과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목공반의 경우 자격증 취득률은 55%였으나 실제 취업률은 83%, 컴퓨터반의 경우는 자격증 취득률이 100%였으나 실제 취업률은 26%로 나타나 자격증 취득률과 취업률은 다소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격증을 취득해도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이 많지 않은 데서 기인한 문제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직업훈련학교에서 재봉을 배우는 모습

표 1. 2008년도 등록 현황 및 자격증 취득 명수

과목	입학생명수	수료생명수	%	자격증취득명수 (수료생대비)	%	
자격증반	목공반	20	18	95	10	55
	재봉반	20	18	100	18	100
	이미용반 I	20	19	100	5	26
	컴퓨터반	40	38	95	38	100
소계	100	93	93	71	73	
일반	이미용반 II	40	40	100	0	0
총	140	133	95	71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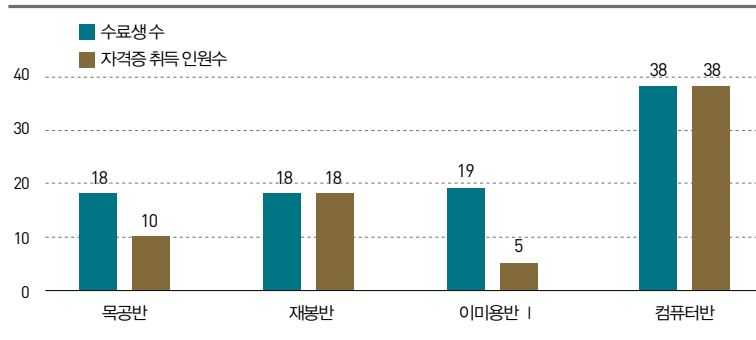
실제로 이들이 자립하여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데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직업훈련 이후에 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고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용창출 및 직장창출 시스템이 또다시 필요하게 되었다.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 케냐 본부에 오면 다니엘이라는 직원을 만날 수 있다. 다니엘은 현재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 직원이며 동시에 케냐타대학의 학생이다. 그는 고로고초 슬럼에서 태어나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 교육센터를



훈련원 내 진료소

그림1. 학과별 자격증 취득 명수



지라니 직업훈련학교의 컴퓨터교실

거쳐 케냐 최고대학인 나이로비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결코 만만치 않은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케냐타대학으로 입학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에게 희망의 별을 보여준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을 잊지 않고 찾아와 자원봉사로 활동을 하다가 정식 직원이 되어 일하면서 낮에는 근무, 저녁에는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월, 하얀 가운이 제법 잘 어울리는 제니퍼가 사무실을 방문했다. 홀 어머니와 하루 한 끼를 겨우 먹으면서 고로고초에 살았던 제니퍼는 고로고초 빈민 개발사업을 통해서 KOICA가 지원한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 교육센터 졸업에 이어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졸업 후 의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교육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과 한국에 대해 크게 감사하며 고로고초에 정말 좋은 일을 해주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직업훈련학교에서 미용을 배운 한 여학생은 고로고초에 소박한 미용실을 개업하여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직업훈련학교에서 훈련받는 학생들에게 실습의 기회를 주며 자립의 희망을 갖도록 격려하고 있다.

단도라 고로고초의 7년간 사업 지원의 결과는 이처럼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어 보였던 녹슨 양철지붕 밑에서 작은 희망의 별들이 떠오르게 만들었다. 개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도, 상황도 내 마음 같지가 않은 데다가 또 단시간에 성과가 보이지 않아 지루하고 외로운 긴 싸움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 꽃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꽤나 먼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고 앞을 내다보면 어느덧 코앞에 닿을 것만 같았던 그 꽃대는 또 저만치 달아나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지라니 교육센터의 운영은 어느덧 15년에 이르고 매년 160명씩 교육을 진행한 끝에 현재까지 260명의 학생이 졸업하였고, 직업훈련학교를 개소한 이래 982명의 훈련생을 배출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과 영양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아이들이 있으며 직업훈련은 받았지만 직업을 찾을 길이 없는 실직 청년들이 거리에 무성하다.

세계가 알고 있는 한국인의 이미지는 '빨리빨리'이다. 그러나 이곳 케냐사람들은 언제나 말한다. '하쿠나 마타타(No problem). 뽀레뽀레(Slowly)'라고. 교육과 훈련을 통한 개발사업의 성과는 단시간에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지금 당장 손을 놓을 수 없는 일, 그것이 교육이다.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 수 있을지,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내일 일을 알 수는 없지만 인고의 시간과 노력을 통해 맺는 열매는 참으로 값질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도 여기 단도라 고로고초에는 이 땅에 심겨질 한 알의 씨앗이 필요한 것이다.

기관명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	
단체 소개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은 1991년 한국인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구호개발 NGO로 빈곤과 재난, 억압으로 고통받는 이웃의 인권을 존중하며 그들의 자립적 삶을 위해 국내 44개 지부 및 해외 24개국에서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명	케냐 빈민지역 개발사업	
사업기간	1997, 1998, 1999, 2003, 2004, 2007, 2008	
사업대상	케냐 나이로비 고로고초, 단도라 슬럼지역 내 약 45만 명	
사업목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채 방임되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빈민지역 아동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주며,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본 사업은 케냐의 공교육으로는 다 포괄할 수 없는 취약 계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행되는 사업으로 '아동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에 기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2005년부터 직업교육을 확대하여 일자리 제공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중. 이는 높은 실업률과 범죄율로 불안감이 팽배했던 슬럼지역 내 지속가능한 변화의 초석이 됨 앞으로도 지역 내 기본교육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금년에 실시했던 다양한 프로그램 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훈련,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훈련 등 다각도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임 	
업무분담	KOICA	지역개발 지원금 기여(4억 4,000만원)
	빈민 지역 개발 사업 수행	빈민지역 개발사업 수행
	수원국	사업지원의 행정지원 및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지속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로고초 지라니 교육센터 (1997~1999) 고로고초 빈민퇴치 개발사업 (2003~2004) 지라니 교육센터 지원사업 (2007~2008) 	



키르기스스탄에 퍼진 사랑의 인술

키르기스공화국 한방진료사업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인간 본연의 기본적인 생활 조건인 의식주를 충족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키르기스스탄이다. 이 나라는 소련이 해체된 후에 새로이 독립한 중앙아시아의 독립국가로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고려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곳이다. 폭우가 한창 쏟아지는 9월 어느 날, 한국에서 비행기로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티를 거쳐 다시 국경을 넘는 버스를 타고 봉사활동 지역인 ‘비쉬켵’에 도착하기까지는 10여 시간이 걸렸다.

오랜 여정 끝에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봉사단원들은 뒤늦게 잠을 청했고 10시 경에 일어나 진료활동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나서 현지 교민의 안내로 진료장소인 비쉬켵 교외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휴양소를 찾았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시작될 진료활동에 필요한 약재와 집기 등을 배치하는 작업을 마쳤다.

10월 2일, 키르기스스탄에서의 봉사활동 첫날이라 그런지 다들 밤잠을 설친 듯했지만 단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숙소와 진료장소까지는 약

30분 정도 거리. 간단하게 아침을 마친 봉사단원들이 버스에 올랐다.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는 행인들, 그리고 1950년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낡은 차량들, 잿빛으로 변색된 건물들... 이 모든 낯선 풍경이 이국적인 향취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그곳의 열악한 환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휴양소 입구에는 먼저 도착해 진료티켓을 들고 서 있던 환자들이 의료진을 반겼다. 진료에 앞서 우리 봉사단과 휴양소 측 관계자, 현지 의사들, 그리고 통역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기념식을 갖고 9시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진료가 시작되자 끊임없이 몰려드는 환자들은 긴 물줄기를 연상케 했다. 제1진료실(내과), 제2진료실(침구과), 제3진료실(부인, 소아과)을 가득 메운 환자들은 좁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19명의 의료진들은 때 아닌 '전쟁'을 치러야 했다. 특히 약재실에는 3개의 진료실에서 치료를 마친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였다. 근무자를 전보다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과부적은 어쩔 수 없었다. 게다가 말이 통하지 않아 통역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시간 단축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나마 급속하게 배운 현지 어 '트리 라자 브인'(하루 세 번 복용하세요) 등이 도움이 되긴 했다.

진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곳 진료소를 다녀간 환자들 대부분은 고혈압과 심장병, 신장결석 등을 앓고 있었다. 이것은 키르기스스탄의 식생활 및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곳의 주식은 육식 중심이면서 동시에 버터, 마슬로(마가린)를 많이 먹는다. 그러므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심장병 같은 각종 성인병의 발병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 석회질이 많이 함유된 물을 마시기 때문에 신장결석 환자가 유독 많다.



키르기스스탄 한방진료 봉사활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료서비스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키르기스스탄 내에 약제공장이 없고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약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기 때문이다. 그 무시무시한 약값을 부담할 수 없는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한평생을 질병과 함께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바로 이러한 때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의 무료진료 및 투약은 그들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단비'와도 같았다. 의료봉사활동 기간 내내 사람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구하기 어려운 약을 얻고 싶은 욕심에 각기 다른 처방을 받아 약을 타러 오다가 하면 아예 처방전 없이 약을 달라고 떼 쓰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현지 어린이 환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쓰바시버”. 그들의 말로 ‘고맙습니다’라는 뜻이다. 봉사단원들은 이 한마디에 모든 피로를 한순간에 잊을 수 있었다. 가끔씩 고려인들이 “멀리 조국에서 이 먼 데까지 와서 고생합네다. 정말 고맙고 우리 고려인의 긍지를 가질 수 있습네다”라고 말하며 손이라도 꼭 잡아주면 그들의 웃는 얼굴을 대하는 우리의 가슴엔 벽찬 감동이 밀려들 정도였다.

4일 동안 키르기스스탄에서 펼쳐진 한방의료 봉사활동. 3,500명이라는 엄청난 진료 성과를 거두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그때의 그 감동과 희열은 봉사단원 한 명 한 명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 시간을 보내며 느꼈던 불편과 고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한한 행복을 얻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기관명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	
단체 소개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은 1993년 네팔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지구촌 오지를 찾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해 한방 진료봉사를 펼치고 있다. 그동안 101차례 저개발 국가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했으며 KOICA 지원으로 단원(한의사)를 파견하여 스리랑카 한방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2010년 기준)	
사업명	키르기스공화국 한방진료 사업	
사업기간	1998. 9. 30~1998. 10. 8	
사업대상	한국교포 및 현지주민 3,000여 명	
사업목적	의료혜택의 기회가 열악한 주민과 한인교포들을 대상으로 한방진료를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봉사활동을 통한 인도주의 실천 및 국위 선양	
기대효과	각종 질병에 고통 받는 현지 주민과 교포들에게 한방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한의학의 우수성 홍보	
업무분담	KOICA	사업비 지원
	대한한방해외 의료봉사단	우물 53개 건축, 보건위생 순회교육, 수질관리 교육, 홍보 및 활동 평가등
	키르기스스탄 보건성	진료장소 제공 및 협조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구성(1992) • 네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의료봉사(1993~1997) • 키르기스스탄 정부 의뢰, 진료장소 선정(1998. 1) • 키르기스스탄 의료봉사활동 위한 제반 사항 점검(1998. 4~8) •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지역 한방의료봉사 실시(1998. 9~10) 	



“지구촌에 희망과 나눔을”

필리핀 지도자 교육 지원사업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새벽 5시, 기도와 필리핀국가 제창과 함께 필리핀 가나안농군학교의 일상은 시작된다. 매일 아침마다 뛰는 4km의 조깅은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훈련이지만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나라사랑과 민족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운다.

가나안농군학교에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개척정신’과 같은 구호를 함께 외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는 구호를 수없이 외치면서 가나안농군학교의 정신을 익히고 ‘먹기 위하여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하여 먹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자’, ‘음식 한 끼에 반드시 네 시간씩 일하고 먹자’와 같은 식탁 구호를 외침으로 일의 소중함과 쌀 한 톨의 중요성을 배우고 농장 일을 통하여 땅과 흙의 소중함에 대하여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강의를 통하여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왜 이 땅에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나가면서 자신을 재발견하도록 하고 있다.

필리핀 가나안농군학교는 ‘필리핀의 빈곤에 동참하자’라는 비전으로 시작되었다. 빈곤이란 무엇인가? 이는 단순히 배고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없고 아파도 의사에게 갈 수 없으며 학교에 가지 못하여

배움을 얻지 못하고 글도 읽지 못하는 문맹자가 될 수도 있다. 직업이 없어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나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로 인해 결국은 인간이 가져야 할 자유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또한 빈곤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빈곤에서 허덕이며 자유를 상실한 우리의 이웃과 아픔을 같이하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가나안농군학교는 필리핀에 작은 겨자씨를 심기 시작하였다.

필리핀 가나안농군학교의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은 의식개혁 훈련이다. 좋은 열매는 좋은 씨앗을 옥토에 심었을 때 얻게 된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황무지에 심을 경우에는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농사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일인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좋은 생



'근로·봉사·희생'의 정신을 길러주기 위한 달리기.

각과 지식을 사람의 마음속에 심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생각과 지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생각과 지식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따라서 가나안농군학교는 '근로, 봉사, 희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의식개혁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다른 개발도상국들처럼 필리핀 역시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다.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및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립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잘 주어지지 않아 그들 스스로 일어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나의 할아버지도 가난했고 나의 아버지도 가난했기 때문에 나도 가난하다'라는 생각은 그들에게 가난을 숙명이라고 여기게 하며 삶에 도전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에 가나안농군학교는 가난한 자에게는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또한 사랑으로 나누는 삶을 훈련을 통하여 배우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을 지난 10년간, 약 4,200명이 받아왔다. 훈련을 마치고 떠나는 훈련생들의 변화된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의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새롭게 삶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운동의 소중함을 다시 느낀다.

두 번째는 사회봉사 활동이다. 학교의 운동장에서는 필리핀 초등학생들이 해맑은 웃음으로 한국에서 온 대학생봉사단들을 환영한다. 원더걸스의 'Nobody'가 팝송 CD 판매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필리핀에서 한류 바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한 필리핀 가나안농학교 학생들

은 거세다. 아마도 필리핀 아이들의 눈에는 한국에서 온 봉사단원들 모두가 다 필리핀에서 방영되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텔런트썸으로 여겨지는 모양이다. 매년 방학기간에 성사되는 대학생 봉사단들과 필리핀 학생들과의 만남은 필리핀 학생들에게는 미래를 향한 꿈을 심게 해주고 한국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안락하고 행복한지를 알게 해준다.

또한 가나안농학교는 농학교 주위에 있는 마을과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주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학교 건물 보수 및 페인팅 작업, 문화교류 활동을 하며 마을에서는 도로보수 및 환경정리 등의 일을 한다. 특히 근래에는 더러운 개울물이나 우물물을 마시는 농촌 빈민들을 위하여 'Biological Sand Purifier'를 설치하는 봉사활동을 새로이 시작하여 오염된 물을 마시는 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약 1,200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봉사활동을 하였다.

세 번째로는 자립농장의 모델 개발이다. 200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하

루 1.25달러로 살아가는 인구는 약 8억 7,600만 명으로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5.2%에 해당되며, 하루 2달러로 살아가는 인구는 약 25억 6,1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47%에 달한다.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빈곤의 문제는 필리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필리핀의 인구는 약 8,700만 명이다. 이 중 하루 1.25달러로 살아가는 인구는 약 1,960만 명으로 전 인구의 22.6%이고, 하루 2달러로 살아가는 인구는 약 3,915만 명으로 전 인구의 45%가 된다.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빈곤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은 결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빈곤퇴치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의식개혁이며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가나안농학교에서는 한 가정을 농학교 안에 이주시켜 약 3,000평 크기의 농장에서 'Indigenous Concept(토착 개념)' 모델을 시범 사업으로 수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가정이 자립할 수 있는가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 모델이 개발되면 필리핀에서 빈곤을 퇴치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 곳곳의 빈국에도 갈



은 모델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는 기본적인 'Indigenous Concept(토착 개념)'의 농사기술 개발이다. 현대의 농업기술은 많은 자본과 기술 개발비의 투자로 날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러나 빈국의 가난한 농부들은 초기 투자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농사기술을 습득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인력은 풍부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토착재료를 이용하여 현지에 맞는 쉬운 농사기술을 이용하여 적은 규모로 시작한다면 쉽게 시작할 수가 있다. 아주 적은 자본으로 직접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토착 개념'의 농사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개발' 모델의 개발이다. 지속적이며 스스로가 자신들의 마을을 발전시키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실제로 농군학교에서는 약 20km 떨어진 곳에 약 350가구가 살고 있는 'Barangay Dampe' 라는 마을을 선정하여 의식개혁 활동을 통하여 그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 스스로가 마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하여 중간에 약 1년 6개월 가량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중단되었지만 최근에 다시 시작되었다.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의식을 개혁한 후에 주위의 학교 및 연구소와 지방 정부와 협조하여 적합한 농업방법을 소개하고 최소한의 자본(Seed Money)을 공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립하도록 돕는 것이 이 모델의 주요 목적이라 하겠다. 필리핀 가나안농군학교는 1999년에 세워졌다. 학교가 세워진 부지는 1991년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재로 뒤덮인 황량한 황무지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울창한 숲을 만들었고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옥토를



가나안 농군학교는 지역사회개발 모델을 개발하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현지에 맞는 농사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만들었다.

훈련생들은 황무지에서 옥토로 변화된 학교를 통해 가능성을 배우고 있다. 때로는 가난한 훈련생들이 재정 때문에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의 가나안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이 그들에게 쌀을 가지고 와서 훈련을 받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가져 오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가져올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

이제 그들이 훈련을 받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작은 도움이 필요할 때이다. 그들에게 훈련비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 이 가나안농군운동은 세계의 빈곤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축산과 비닐하우스에 채소를 경작하며 자립을 준비해 오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 자신의 자립뿐만이 아니라 훈련생에게도 자립의 가능성과 모델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립 프로그램과 교육을 위하여 KOICA는 돈사, 비닐하우스, 교육관 건축 및 교육 기자재 등에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

이곳에 심은 작은 겨자씨는 그들의 가슴에 훗날 큰 나무가 되어 한국과 한국인을 기억하도록 만들 것이다.

기관명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단체 소개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는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시작된 단체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의 절대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 중국 왕청과 단둥, 인도네시아 지역에 해외가나안농군학교를 설립했으며 지역 주민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근로, 봉사, 희생'의 가나안 정신 교육과 농업 기술교육을 시행한다.	
사업명	필리핀 지도자 교육 지원사업	
사업기간	1999.2 ~ 현재	
사업대상	필리핀 현지인	
사업목표	필리핀 현지인들을 위한 교육지원 및 자립을 위한 돈사 및 비닐하우스 건축	
기대효과	'근로, 봉사, 희생'의 의식개혁 교육을 통하여 '하면 된다, 할 수 있다'의 정신을 심어주어 스스로 자립의 의지를 갖도록 하며, 농군학교의 자립을 통하여 미래에는 필리핀인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줌.	
업무분담	KOICA	교육 시설 및 자립농업시설 지원
	필리핀 가나안농군학교	교육 훈련 및 자립프로그램 운영
	수원국	지방정부와 교육 훈련 협조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개혁 훈련: 지난 10년간 약 4,200명 훈련 • 지역봉사활동: 지난 10년간 봉사단원 1,200명이 봉사활동 • 자립농장모델 개발: 진행중 • 토착개념의 농사기술 개발: 진행중 • '지역사회개발' 모델 개발: 진행중 	

아마존 정글에 널리 퍼진 한국인의 희망가

리베랄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사업
한국국제봉사기구(KVO)



한국국제봉사기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브라질과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볼리비아 베니주 바카디에스 지역의 리베랄타(Riberalta)라는 작은 시골 도시이다. 이곳에서 남동부로 42km 떨어져 있는 아마존 유역 정글 지역도 이미 1988년부터 12명의 한국 봉사자들이 무료병원과 농장 등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정글지역은 군데군데 화전으로 불태워진 흔적들이 수풀 사이로 보일 뿐 고요한 시골 같은 곳이었다. 열대지역이라서 원주민들의 집은 나무를 베어 두른 벽과 풀을 엮어 엮은 지붕으로 지어졌으며 집안에는 나무로 만든 탁자와 바닥에 깔린 매트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뜨거운 태양에 색이 바랜 옷 한두 벌, 그릇 몇 개, 식용유, 설탕 그리고 사냥용 총 하나가 전부였다. 사람들이 총을 하나씩 메고 다니긴 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식량 보급원인 동물사냥을 위해 꼭 필요한, 소중한 재산이었다. 원주민들 대부분은 순박하고 순수했다. 원주민들은 전기나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모기와 해충을 견뎌내면서 숲에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원시적인 형태의 생활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볼리비아는 남미에서도 가장 경제가 낙후된 나라 중의 하나다. 소수 백인계가 전체 국민의 80% 이상의 부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빈부의 격차가 심하며 성 개방적 성향으로 발생하는 미혼모, 방치되는 아이들, 코카인 재배와 제조로 인한 마약, 실업 등 각종 사회문제가 만연한 나라이다. 그 외에도 원주민들에게는 말라리아와 각종 풍토병, 영양실조 등 각종 질병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정글 원주민들의 평균수명이 45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당시의 조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1992년 UN리우환경회의와 같은 세계 환경을 위한 주요한 국제회의가 열리고, 비로소 세계 전체가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개념을 인식하면서 국제관계 및 국제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지만, 환경보호 운동이 그 정글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점차 살아갈 터전이 침해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한국국제봉사기구의 설립자인 하성수 총재는 봉사자들에게 ‘원주민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활동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먼저 직접 농장을 개간하여 농사법을 알려주고 정글무료진료소를 세워 의료혜택이 전무한 원주민들을 돌봐주고 튼튼한 심신을 기를 수 있도록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또한 마을 청년회를 조직하여 방역, 소독, 농업교육, 농장운영과 같은 활동 등을 함께 해나가면서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이방인이 아닌 친근한 이웃으로 변모해 갔다. 처음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사람들이 “꼬레이”, “꼬레이노”라고 부르며 반길 때면 왓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1999년부터는 정글지역에서 시작했던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더욱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었다. 정글지역 무료진료소를 다시 정비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정글지역에는 병원이 없는 데다가 도시로 나가 치료를 받으려 해도 보건소 진료조차 무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소득도 없는 원주민들이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다고 주 정부의 재정이 넉넉한 것이 아니어서 정부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정글지역 주변마을뿐만 아니라 심지어 40~50km 떨어진 곳에서조차 환자들은 걸어서 무료진료소를 찾아올 정도였다.



정글순회진료-치과진료
진료 대기중인 환자들

10여 년 전 한국국제봉사기구가 처음 원주민 건축방식으로 지은 진료소와 입원실, 식당, 우물 등은 너무 노후했던 터라 시설 보완과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KOICA의 지원으로 진료실과 입원실이 벽돌건물로 신축되었고 발전기로 전기를 공급받은 것은 물론 다양한 의약품도 갖추고 환자 수술을 위한 차량도 마련하는 등 한방과 양방 모두 진료가 가능한 현대적인 병원의 모습을 갖추가기 시작했다. 주 정부 및 지역주민들은 누구보다 이런 변화에 큰 호응을 보냈으며 지역 원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병원의 증·개축을 돕기도 하였다.

1999년 1년 동안 진료한 환자수는 입원환자를 포함하여 연인원 1만 여 명에 이를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국제봉사기구의 자활농장을 통한 입원환자의 무료급식, 심신건강을 위한 태권도장 운영 역시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KOICA의 공식지원은 지역주민들이 KOICA와 한국에 대해 감사한 마음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2001년부터는 현지 지방정부에서도 의료진을 지원하여 정글마을 환자들을 찾아가는 이동순회진료를 시작하고 있다.

한편 리베랄타시 외곽 한국국제봉사기구 정글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는 세이스 데 아고스토(Seis de Agosto)라는 원주민 마을이 있다. 1998년 주 정부 지원으로 마을 학교가 신축되었지만 책걸상 등 학습시설의 부족은 물론 교사급여와 급식, 학교 운영비 등이 부족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실 이 마을뿐만 아니라 정글지역의 다른 학교도 모두 사정은 비슷했다. 노후한 건물에 비가 새고 일부 건물은 붕괴의 위험도 높고 교실의 칠판은 낡아 글이 써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사정이 이러니 학생들이 책을 구



원주민마을학교에 책걸상 지원을 완료했다.

입해 본다는 건 언감생심이었다. 동화책은커녕 교과서조차 구입하기 어려운 게 원주민 학생들의 실정이었다.

한국국제봉사기구는 이 정글지역 마을학교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것이야말로 청소년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한국국제봉사기구는 교육기자재 지원 및 도서관 건립지원, 학교무료급식, 태권도 교육, 문구류 등을 지원할 것을 계획하였다. 2001년에서 2002년 2년에 걸쳐 KOICA에서는 세이스 데 아고스토 마을 학교에 책걸상 및 컴퓨터를 지원했으며, 2002년에는 세이스 데 아고스토 외에도 아바로아(Abaroa), 캄포 센트럴(Campo sentral), 산조렌 팜파(Sanjorens pampa), 폰톤 야타(Pontonyata) 등 5개 학교에 도서관을 건립하고 도서를 지원했다. 이와 더불어 학교 건물을 보수하고 기자재를 지원함은 물론 태권도 교육과 급식 지원도 해줌으로써 본격적으로 정글지역 마을학교의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 영양상태, 심신상태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에 앞장설 수 있었다.

시의회 및 시장 등 지역 관계기관은 본 기구의 활동에 대해 높은 호응을 보여줬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국위 역시 선양할 수 있었다. 더욱 기쁜 일은 이런 활동 이후에 지역 독지가의 도서 지원이 뒤따르고, 지역주민 및 학생들도 한국국제봉사기구 급식 및 농장에 자원봉사 활동을 나서, 명실공히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봉사단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국제봉사기구가 활동을 하고 있는 리베랄타 및 정글지역의 2003년도 인구통계에 의하면 리베랄타시의 인구는 5만 명이고 외도심 반경 50km 내의 정글지역에 8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2005년 조사 결과 리베랄타시의 인구는 정글 원주민들의 이주 등의 원인으로 7만 명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실업, 무직, 유기 어린이(약 300명)등도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즉 미혼모와 방치된 영아문제, 무의탁 노인문제, 어린이 영양결핍,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 마약 문제 등이 지역의 사회문제가 더욱 가중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시는 재정이 부족하여 그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유아·어린이 관련 임시보호시설마저도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다른 NGO 및 사회단체들의 지원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국제봉사기구는 어린이 무료급식과 영아보호시설 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무의탁 노인과 고아 어린이 보호를 포함한 복지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리베랄타시와 협의하여 지난 2003년도에 한국국제봉사기구 정글농장에 건립하여 운영했던 소규모의 고아원 및 양로원(시의 예산 부족으로 운영이 정착되지 못해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건물)을 무료로 임대, 수리하여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



리베랄타에는 미혼모와 영아문제 해결이 시급했다

한국국제봉사기구는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종합복지관이란 의미를 도입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리베랄타와 주변 정글지역의 미혼모와 영아보호, 노인 및 정글지역 어린이, 거리 어린이 무료급식, 홍수로 인한 이재민 긴급구호, 나아가 미혼모와 극빈층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까지 좀 더 발전적이고 종합적인 의미의 복지사업을 펼쳐나갔다.

KOICA에서는 3년에 걸쳐 영아임시보호소 개보수, 급식소 설치, 병원건물 수리 및 설비 지원, 미혼모 직업교육센터 건립 지원 그리고 식비와 탁아비, 의약품비를 지원하였으며, 한국국제봉사기구에서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7년에는 일일 20여명의 영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며 거리 어린이 100명, 극빈층 노인 100명이 무료급식을 받았다.

2008년도에는 베니주 전역에 발생한 대홍수 피해로 인한 이재민 긴급구호 요청에 따라 리베랄타 4개 마을에 긴급 임시 무료급식 및 무료 치과, 내과 등 의료지원으로 연간 약 1,000여 명의 극빈층 어린이와 노인들이 수혜를 받도록 했다.

방치된 영아를 보호하고 거리 어린이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복지 센터에는 한국국제봉사기구와 KOICA의 로고와 함께 ‘천사의 집’이란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이름처럼 어느 곳에서든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와 학대로 고통 받는 일 없이 천사처럼 밝게 웃으며 행복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08년에는 주 정부에서 의료 인력을 더 지원하여 치과의사, 내과의사, 간호사 등을 보강하고 더 종합적인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KOICA의 지원으로 앰블런스를 새로 마련해 현재까지 리베랄타 시내 지역 및 정글지역을 순회하며 의료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일일 진료를 받는 원주민 수혜자는 30~50명에 달하며 연 7,000여 명이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았으며 간접수혜자는 연 1만 2,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정글지역 무료진료는 한국국제봉사기구와 함께 지방정부의 지원과



천사의 집 크리스마스 행사 모습



봉재기술 직업교육생(좌) 직업교육생 졸업작품 전시회 풍경(우)

참여, KOICA 지원이 더해져 2010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본 병원 및 순회진료로 진료가 불가능한 정글 원주민 중증환자에 대하여 종합병원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의해 나가고자 하며, 지체장애인을 위한 자활시설도 확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2009년에는 미혼모와 극빈층 여성의 자활을 돕고자 봉재와 스크린 인쇄 교육을 실시했다. 총 40~70명 정도가 연수를 받았으며, 간혹 연수생들의 가정 상황이나 개인적인 의지와 능력의 부족으로 중도 탈락자들도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20명이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다. 봉재의 경우 1년 교육과정이 끝나도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하는 교육생에게는 교육이 끝난 후에도 별도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과 미혼모 여성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자립하여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한국국제봉사기구에서 그동안 해왔던 무료병원, 농장운영, 태권도 교육, 복지사업, 교육지원 사업은 외부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정글 원주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사업들을 바탕으로 본 기

구는 제3세계 지원 및 개발 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더욱 개발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활동을 해온 한국국제봉사기구와 KOICA 그리고 한국에 대한 볼리비아 주정부와 지역주민들의 신뢰는 굳세다. 한때 볼리비아 한국 공관이 철수되는 상황도 있었지만 현재는 볼리비아 주재 한국 대사관이 다시 설치되었고 KOICA 사무소도 설치되어 볼리비아 활동이 시작된 지 24년 만에 대사님과 KOICA 소장님께서 2010년 10월 한국국제봉사기구 볼리비아 사업장을 방문해 고생해온 직원들을 손수 격려해주기도 했다. NGO를 통한 민간 차원의 지원활동들이 볼리비아와 한국 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가교 역할은 물론 국익에도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기관명	한국국제봉사기구(KVO)	
단체 소개	1988년에 설립되어 아마존 볼리비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및 저개발국가에 대한 의료, 복지, 교육, 직업훈련, 식수개발, 경제자립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외 복지, 문화, 환경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적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개발 NGO이다.	
사업명	한국국제봉사기구 리베랄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사업	
사업기간	1999. 3 ~ 2003. 12 / 2007. 1 ~ 2009. 12	
사업대상	볼리비아 베니주 리베랄타시 지역주민 7만 명	
사업목표	리베랄타시의 미혼모 영아들 보호와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급식, 정글지역 어린이 영양급식, 소외계층 무료진료, 미혼모 및 극빈층 여성 직업훈련 등 증가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	
기대효과	영아들과 노약자, 원주민 등 취약계층에 급식 및 의료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미혼모 및 빈곤층 여성들의 자립을 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업무분담	KOICA	복지관 시설 개보수, 급식비 및 탁아비 지원, 차량 구입비, 급식소 설치 및 시설, 의료기구 지원, 직업교육센터 건립 및 교육지원비 등
	한국국제봉사기구	복지관사업과 의료사업 등 사업관리비, 사업 운영비 분담, 무료진료와 급식 및 직업교육 인건비, 급식비 등
	수원국	복지관 및 직업교육센터 건물제공, 4개 마을 급식소 건물 제공, 급식 및 의료 인력제공,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참여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베랄타시의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실업, 거리 아이, 미혼모 등 사회문제 증가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협의 (2006. 11) • 리베랄타시에서 시설건물 무료임대, 의료진 지원 (2007. 1) • 복지관 건물 시설 개보수 (2007. 2~3) • 영아보호사업, 거리 어린이와 정글 어린이 무료급식(2007~2010) • 4개 마을 무료급식소 설치, 치과·내과 진료소 증·개축(2008. 3) • 어린이·노인 무료진료, 정글마을 순회 진료 실시(2008~2010) • 여성 직업교육센터 건립 및 직업교육 실시(2009~2010) 	



직업훈련을 통한 청소년 성장의 디딤돌

스리랑카 사회복지 직업훈련센터
진각복지재단



인도의 눈물, 빛나는 작은 섬, 다르마섬, 동양의 진주 등 스리랑카를 일컫는 수많은 수식어는 스리랑카가 얼마나 독특한 매력과 아름다움을 지닌 곳인지 보여준다.

진각복지재단이 스리랑카와 국제협력을 맺고 지원사업을 펼치게 된 계기는 전체 국민의 70%가 불교인 스리랑카의 종교와 연관이 있다. 1998년 한국불교 4대 종단인 진각종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을 설립하였다. 종교, 사상, 이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즐거운 세상(Joy of Genuine)을 만들기 위해 복지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한 진각복지재단은 국내 복지사업은 물론 국제협력사업에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스리랑카에 국제지부를 설립하고 1998년에는 스리랑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후원금을 지원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네곰보 카타나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스리랑카 정부에서 제공한 4,800여 평의 부지에 직업훈련센터를 신축하는 일부터 시작해 복지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직업훈련센터 개원 초

기에는 스리랑카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상호 신뢰가 부족해 여러 곤란을 겪기도 했다. 직업훈련센터의 개보수를 위해 현지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일을 시켜도 계획했던 일정대로 공사는 진척되지 못했으며, 한국과는 다른 날씨와 언어, 기후, 커다란 거미와 같은 이질적 풍토와 발전기를 돌려도 전력 부족이 이어지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몸을 맞대고 생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사무실과 숙소, 식당 등을 갖춘 JGO 직업훈련센터는 개관 당시 1) 현지 주민들의 인식부족과 협력관계 미비, 2) 컴퓨터 등 기자재 구입 부족, 3) 관세, 4) 스리랑카 내정, 5) 언어적 문제 등으로 센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파견된 담당직원들의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11년이 지난 지금은 JGO 유치원과 외국어학교(초등학교)를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부지에 직업훈련센터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와 수도 설비를 설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다. KOICA의 지원으로



사무실과 숙소, 식당 등을 갖춘 JGO 센터 전경



JGO센터 어린이들

받은 지원금으로 전기공사와 우물을 파서 물을 끌어들이는 우물 관정공사가 먼저 시행되었다. 1차 전기와 수도공사가 완공된 후 건립이 완성되었다. 직업교육 과정을 마친 연수생들이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게 급선무였다. 따라서 성인들을 위해서는 컴퓨터 기초교육과 전문 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해 전문가 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우한 지역청소년들에게는 컴퓨터 무료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단순한 직업센터 기능에서 벗어나 한글교실, 문화교실, 영어교실 등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기능까지

아울러 단순히 직업훈련에 멈추지 않고, 카타나 지역의 발전은 물론 한-스리랑카의 관계 진척에도 도움을 주려 한다.

이를 위해 JGO 훈련센터는 사업 목표를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교육과 한국문화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자리매김한다고 잡았고 2단계 사업을 전개해갔다. 단순한 직업훈련소 개념에서 벗어나 한국문화를 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카타나 지역의 한국문화공간이자 훈련센터로 거듭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이었다.

JGO 훈련센터는 개관 당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많은 지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실 증축과 훈련생 기숙사 신축

을 비롯한 훈련생들의 후생복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한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1) 강사증원, 2) 컴퓨터 추가지원, 3) 중급 교육과정 개설, 4) 전교육생 대상 컴퓨터 영어교육, 5) 한국어 교육지속추진, 6) 한국자원봉사자와 연계한 한국문화교실 운영 등의 사업도 전개했다. 뿐만 아니라 현지 사정으로 진행되지 못한 여성 대상 컴퓨터 교육과 자동차 정비, 전기용접, 제빵 기술 등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동들의 방과후 문화 프로그램, 환경교육과 계몽활동 등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직업훈련센터는 기숙사 준공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숙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으로써 해외복지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001년 준공된, 200여 평 규모에 70여 명의 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물은 직업훈련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훈련생들뿐 아니라 기숙사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의 캘러니아대학의 유학생들에게도 기숙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센터 수료생들은 자체적으로 청년회 활동을 결성해 센터의 크고 작은 일을 돕고 있다. 방학기간 중에는 약 1,000여 명의 인근학교 학생들이 견학을 신청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에 진출해 있는 다수 한국 기업 관계자들 역시 JGO 직업훈련센터에 적절한 수준의 교육생을 의뢰하고 있는 상태라 한국 기업과의 유대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3차년도 사업의 주된 사업은 5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건립된 스리랑카 JGO 센터 한국문화 홍보관을 꼽을 수 있다. 한국문화와 관련된 책자와 포



JGO 훈련센터에서 컴퓨터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

스터 등을 비치하고 관련 비디오 상영 및 문화행사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며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맞는 프로문화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국제문화교류사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스리랑카 JGO 센터는 57평 규모의 중강당을 신축하여 각종 학습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진각복지재단의 지원으로 빔 프로젝트를 설치, 영화 및 한국영상 홍보물을 상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스리랑카 네곰보 카타나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직업훈련센터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교육, 문화, 지역주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복합공간으로써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진각복지재단이 스리랑카에 국제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씨앗을 마련해준 KOICA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기관명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단체 소개	깨달음과 실천을 중시하는 진각종 정신을 바탕으로 종교, 사상, 이념에 관계없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지사회 구축을 위해 설립되었다. 전국 노인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비롯하여 스리랑카, 네팔 JGO 센터 등 해외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활발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명	진각의 행복한 동반(동반자)_ 스리랑카	
사업기간	1999. 11 ~ 2002. 11 (현재 운영 중)	
사업대상	스리랑카 네곰보 카타나 지역주민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기회 제공 • 불우 지역 청소년 대상 컴퓨터 무료교육 실시를 통한 배움의 기회 제공 • 한국문화를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기대효과	직업훈련센터로서 네곰보 카타나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취업의 기회 제공 및 교육, 문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관 기능 실현	
업무분담	KOICA	전기공사 및 우물 관정공사 지원
	진각복지재단	직업훈련센터 신축, 각종 기자재 구입, 기숙사 준공, 한국홍보관 건립,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및 강사지원 등
	수원국	부지 제공 및 운영 지속 지원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리랑카 시암중 결연체결 및 어린이 지원(1998. 12) • 국제협력단(KOICA) NGO 등록 (1999. 7) • 스리랑카 JGO 직업훈련센터 신축(2000) • 스리랑카 JGO 직업훈련센터 기숙사 기공식(2001. 11) • 스리랑카 JGO 직업훈련센터 한국홍보관 개관식(2002. 11) 	



연변에서 온 편지

중국연변조선자치주 인구/생식보건 기술원조사사업
인구보건복지협회



처음 담당자 연수를 받던 중에 연변에서 온 조선족 담당자에게 질문을 했다가 “일없음네다”라는 답변을 받고 머쓱했던 적이 있다. 질문을 잘못 던져서 저렇게 반응을 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말은 연변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정중한 의사표현이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42,700만km² 지역에 217만 4,786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있지만 한족이 전체 인구 중 5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많은 분포를 차지한 것이 조선족으로 39.3%인 85만 4,510명 정도가 된다. 그 외에 만족, 회족 등 소수민족이 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중국인 정서에 가깝고 요직도 중국 한족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물론 한국어를 사용하는 조선족이 많고 북한과 가까운 변경지역이라 다른 국가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인구, 생식보건 사업은 성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우리는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현지에서 제시하는 사회 문화에 맞춘 방법을 사용하고 의견을 존중하고자 노력했다. 한족 혹은 조선족 하는

구분을 떠나서 연변측 주요 담당자들이 보여준 열의는 사업의 성과를 내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중국계획생육협회는 당 조직인 중국계획생육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청소년연맹과 여성연맹과 연계되어 가족계획과 지역사회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단체다. 예전에 한국의 인구위원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함께 우리 협회가 강도 높게 추진한 가족계획운동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중국 전역에 지역망을 갖고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우리는 당시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1995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2006년 이후 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 변경)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구변화에 따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성교육과 모자보건, 생식보건(1994년 이후 가족계획개념에서 인권이 포함된 개념으로 확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족계획을 통한 여성건강 증진을 중심으로, 단순 적정 인구수 조절이 아닌 생식보건은 인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KOICA는 한국이 가진 경험을 우리와 비슷한 개도국의 협회와 공유하고 관



중국계획생육협회와 협정을 체결한 결과 인구·생식보건사업은 본 궤도에 올랐다

련기관과의 자체 역량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1가정 1자녀 낳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 민족인 조선족은 인구 구성 비율이 감소하는 등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인구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추세였다. 경제활동을 위하여 부모들이 한국이나 대도시로 나가 있어 노인과 여성, 청소년 그리고 신생아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고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미 1998년에 한국의 사례를 시범적으로 연변에 적용하고 싶었던 요청에 근거하여 한중 교류가 있었기에 사업 추진은 원활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청소년, 여성 대상자들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 및 관계자 협의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KOICA의 지원으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계획생육협회와 협력 사업이 시작되었다.

KOICA 지원으로 2000년부터 4년 간 추진된 이 사업은 실제 5년 이상 지속된 사업으로 모자보건 수첩배부, 여성 건강검진 사업, 산후도우미 양성 및 배치 그리고 청소년 성교육 및 교재개발 등이 이뤄졌다. 특히 연변 최초의 여성건강검진 방문사업, 최초의 중국 연변 학교 성교육 교과서 및 교사 대상의 성교육지침서 개발, 연변중학교 8개교에서 실제 성교육 및 상담실에 해당하는 자문실 설치, 최초의 산후도우미 양성 등 '최초의 기록을 많이 세웠다.

우선 1차 년도에는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농촌 여성들에게 피임방법과 모자보건 지식을 홍보하기 위하여 매년 각 시범현시에 생식보건수첩을 1,000부 제작해서 배포했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던 농촌 여성 1만 5,000여 명에게 무료 여성건강검진을 했으며 경미한 질병이 있는 여성들에게는 적절

한 치료를 해주었다. 이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임신중절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여성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한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여성건강검진을 아웃리치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동 가능한 초음파 등 12개의 치료기기가 제공됐으며 그 외 컴퓨터, 이동검진차량 등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자재 역시 제공됐다. 특히 지역사회 보건체계인 의무복무소(우리나라의 보건소)와 연변의 당 조직인 여성연맹과 연계한 교육검진 서비스사업은 특히 지역사회에 유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청소년들은 급속한 산업화와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인터넷을 통해 저급한 대중 성문화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또한 경제 발전으로 인한 식생활의 개선으로 성적 육체적으로 조숙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에서의 성교육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특히 한국이나 대도시로 일하러 나간 후 조부모에게 맡겨진 청소년들의 성의식을 바로잡아주고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연변 교사들을 초청 연수했다. 초청된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현지에서 연변 중학교 관련 교과목 교사들을 교육했으며, 연수받은 교사들은 협회에서 발간된 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직접 생물 교과서의 콘텐츠를 선정 개발하기도 했다. 2002년도에 연변 계획생육위원회와 계획생육협회가 협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청소년 성교육 교재는 중국 최초의 성교육 교과서로 눈길을 끌었다.

2000년 초부터 용정중학교, 화룡 5중학교에 성교육이 실시되었으며, 2001년에는 도문 1중학교, 안도 1중학교, 왕청 5중학교, 훈춘 4중학교, 돈화 1중학교, 연길 실험중학교로 확대되었다. 이후 돈화 1중학교, 안도 1중학교는



조선족 여성의보건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회



모자보건수첩



2008년 초부터 6개 시범중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중이다

중국한족중심 학교라 교육의 효과가 적다고 판단하고, 2002년과 2003년에는 6개 조선족학교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특히 초청 연수생 중 연변지역의 홍보와 교육을 담당할 선전소장은 연변문화에 맞게 청소년 성교육 상담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열의를 보였고, 그 결과 라디오 매체를 중심으로 한 성교육 홍보사업이 실시되었다. 한국에서 연수를 받은 연수생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유교적인 문화가 강한 연변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라디오 홍보교육사업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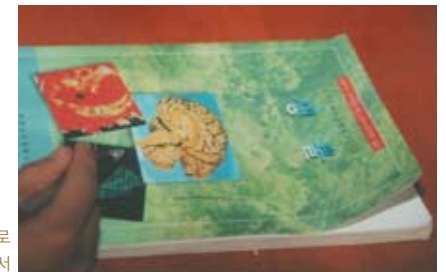
2003년도 연변에서는 또한 최초로 40여 명의 산후도우미가 양성되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이들은 의무복무소에 배치되어 산모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대상 지역은 초기 2개 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는데, 2000년도에 화룡시와 용정시 등 2개 시범 사업지역을 시작

으로 2001년에는 왕청현과 훈춘시, 2003년에는 도문시까지 확대되어 총 5개 현·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약 3억 6,000만원에 이르는 사업비, 이동검진차량 1대, 상당량에 이르는 모자보건 및 청소년 성교육 사업용 시청각 및 인쇄 자료 등이 지원됐다.

연변의 인구 생식보건 시범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연변협회 사업이 활성화되고 연변 자체 사업역량이 강화되었다는 판단하에 지원이 종료되었다. 연변 지원사업의 성과는 이후 베트남, 몽골 등지의 아시아 지역에서 아프리카까지도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던 자신감과 동기를 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현재도 연변지역의 담당자와는 연락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사업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한족들에게 조선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북한에 자유로이 오가던 중국 한족 고위직들은 막연히 우리를 싫어하거나 무시하곤 했는데 우리의 성실성과 근면성, 일에 대한 열정은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했고 조선족 담당자들 역시 고마움을 표시해왔다.

2007년 어느 날 연변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처음 시작할 때 “일없읍네다”라고 말해 머쓱하게 만들었던 연변 담당자로부터 온 것이었다. 직접지원 사업



연변 초청 교사의 참여로
수정·보완된 생물 교과서

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중국 정부와 협의하여 한국의 가족보건의원과 비슷한 클리닉을 연변에 새로이 개관하게 되었다고, 꼭 한국 협회에서 와서 봤으면 한다는 내용이였다. 우리의 일처럼 기뻐하고 큰 보람을 느꼈었다. 연변협회의 열정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편지 하나가 보내온 즐거운 소식은 내 마음마저 행복하게 만들었다.

관련 통계 자료

유엔인구기금 <http://www.unfpa.org/>
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 <http://www.ippf.org/>

기관명	인구보건복지협회	
단체 소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로 설립되어(설립근거: 모자보건법 제16조) 대내적으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 모자보건, 건전성문화, 건강증진 등 인구 및 생식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모자보건 및 생식보건증진에 힘쓰고 있다.	
사업명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구/생식보건 기술원조사사업	
사업기간	2000. 1~2003. 12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검진: 용정시, 화룡시, 훈춘시, 왕청현, 도문시 5개 현시 보건소 이용 지역주민과 여성연맹 회원 • 성교육: 각 현시의 6개 중학교 학생 및 교사들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생식보건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와 인력개발 •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모성사망률과 영유아사망률을 저하시키고자 시범 모자보건 사업 개발 운영 • 조선족 청소년의 건전한 성의식을 고취시키고 성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성교육사업 개발 실행 • 중국의 인구정책에 따라 인구자질향상 도모 	
기대효과	연변계획생육협회의 생식보건 사업수행능력 향상 및 여성건강 증진, 연변 청소년의 성인식 제고 및 성건강 개선	
업무분담	KOICA 여성건강검진, 물품지원, 성교구 세트, 성교육 책자, 콘돔, 사무용 기자재 인구보건복지협회 사업담당자 대상 초청연수, 또래교육 담당자 교육, 미디어 섭외 홍보, 사전조사, 평가회의 모니터링 수원국 사업책임자 및 실무자의 업무용 사무실을 제공하고 필요 시 생식보건의원 제공 및 특강, 운영 지속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변협회장 요청(1998. 10) • 사전설문조사 및 관계자협의(1999. 8) • KOICA 지원으로 직접지원 실시(2000. 1~2003. 12) ※ 2000년에 용정시와 화룡시를 시작으로 2001년부터 2002년 훈춘시, 왕청현 포함, 2003년도 도문시까지 5개 현시에서 여성검진사업 및 각 현시의 6개 시범 중학교에서 성교육사업 수행 /이동검진차량 및 성교육사업 지원 등 추가지원 및 교류	

라오스 어린이 건강의 적 기생충퇴치

라오스 기생충퇴치사업
한국건강관리협회



6·25 전쟁 이후 60~70년대에 우리나라 역시 '기생충 왕국'이란 부끄러운 타이틀을 달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일본해외기술협력단(OTCA)의 지원과 정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신인 한국기생충박멸협회와 기생충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90년대에는 기생충감염률을 2%대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 제54차 보건총회에서는 우리나라를 '기생충퇴치에 성공한 국가'로 인정했으며 기생충관리에 관한 한 우리의 학술과 기술적 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태다. 인체에 기생하는 기생충은 사람에게 질병과 해를 주는 위생곤충이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다이어트를 위하여 기생충 알을 먹기도 하고 또 의학계 일부에서는 기생충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이 없다는 말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건강에 해롭지 않은 일부 기생충의 경우이거나 영양분을 과다섭취하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극히 소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전세계 인구의 약 20% 정도는 각종 기생충으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거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무수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고온다습한 열대성기후의 개발도상국가는 기생충

의 만연으로 피해가 극심하다. 강이나 하천을 끼고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

라오스는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동남아시아 최대의 강인 메콩강을 인접하고 있다. 메콩강은 중국 티벳에서 발원하여 중국 윈난성을 지나 미얀마,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르는 강이다. 또 라오스는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로 고온다습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기생충이 만연하기 쉬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라오스의 어린이들은 낮은 영양분 섭취로 성장이 저해받기 쉬운 데다가 심지어 기생충 감염이 잦아 건강 증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 회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라오스 일부지역의 회충, 구충, 편충 등 토양 매개성 기생충 발견도는 60~70%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메콩강 유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오랫동안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관습이 있어 타이간흡충(Ov)은 50% 이상으로 만연되어 있다. 타이간흡충은 오랜 기간 잠복해 있으면서 간질환을 일으킨다. 라오스 주민



라오스 신년 축제 삐마이랴오 (Pi Mai Lao) 기간 중 고산족 마을의 소녀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주머니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다. 특히 고산족 마을에서는 돼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기에 모든 사람들이 기생충에 노출되어 있다



KOICA 봉사단원과 함께 대변을 수집하여 검사 후 감염자에게 투약을 하고 있다

들은 타이간흡충에 의해 만성간질환이나 간경화, 심한 경우는 간암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30년 만에 높은 기생충감염률을 기적적으로 떨어뜨린 경험과 1995년부터 중국 기생충퇴치사업을 지원한 사례를 바탕으로 KOICA의 지원을 받아 라오스 기생충퇴치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라오스 기생충퇴치사업은 5년간 중기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13회에 걸쳐 102명의 기생충사업단을 파견, 라오스 전국 18개 지역(道)의 3만 4,000명에 대하여 기생충감염률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자료는 라오스 보건부에 보고되어 기생충관리 정책 자료로 활용되는 동시에 2007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생충관리 국가프로파일에 라오스 보건부와 KOICA, 협회(KAHP) 이름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기생충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거나 보건의식이 낮은 지역에서는 치료 후 재감염이 쉽게 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이다. 따라서 반드시 보건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사업기간 중 KOICA는 기생충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충약품을 200만 정(캄보디아 인구의 35% 정도가 복용할 수 있는 분량) 확보했으며 검사장비, 기자재, 보건교육사업 등도 함께 지원했다. 이런 KOICA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은 어려웠을 것이다.

기생충퇴치를 위하여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사업 종료 후에도 자체적으로 기생충감염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지난 5년간 49명의 보건 전문가와 기생충담당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실무교육과 워크숍을 받게 하는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2005년에는 라오스 자체적으로 1만여 명에 대한 기생충감염률실태조사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 사업을 수행하면서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현지의 고온다습한 날씨와 대변과의 한판 승부였다. 5년 동안 13회에 걸쳐 매년 3인 1조로 나누어 전국을 순회하면서 대변검사를 진행해야 했다. 검사용 슬라이드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기생충 알을 찾아야 하는데, 검사 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 일부는 대변을 에어컨도 없는 게스트하우스로 몰래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다가 들켜 망신을 당하는 사례로 종종 있었다.

게다가 구충약 투약 후 치료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총체(성충) 수집검사는 한국에서도 해보지 않은 검사로 힘들고 곤욕스러웠다. 기생충 감염강도가 높은 감염자는 검사실에서 구충약과 하제를 먹고 설사를 하게 했는데 설사한 대변 전체를 받아 물에 푼 후 마치 모래에서 사금을 찾아내듯 체로 걸러내는 과정을 반복하여 기생충의 성충을 찾아내야 했다. 무더운 날씨와 고약



라오스 북부지역 루앙푸라방에서 감염자 투약에 함께 참여한 KOICA의 봉사단원, 함께 참여하여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였다

한 냄새 속에서 사망감 없이는 차마 할 수 없는 고된 작업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라오스 보건관계자들과 협력해 사업을 수행한 결과 기생충감염률은 당초 63.6%에서 43%로 떨어졌다(투약 후 재감염률 조사). 이 과정을 통해 라오스 보건부의 말라리아·기생충·곤충연구소(IMPE)는 자체적으로 전국적인 기생충감염률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고 이 점이 더욱 큰 사업성과라 할 수 있다.

보건의료사업 중에서도 기생충사업은 개발도상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수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또한 생활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공동의 수혜를 보는 사업과 달리 수



맑은 눈망울의
어린이들. 뱃속엔
기생충이 함께 살고
있으면서 영양분을
빼앗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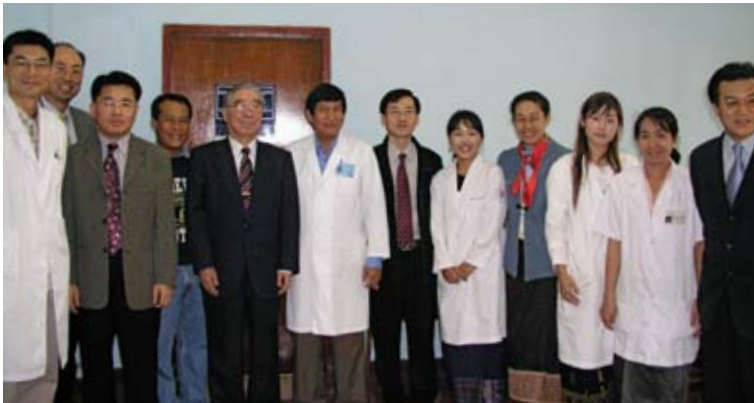
혜자가 대변을 직접 제출하여야만 재감염을 낮출 수 있어 수혜자들의 체감도는 낮을 수 있지만, 감염 후 즉시 발병하지 않고 오랫동안 몸속에 잠복해 있으며 영양분을 빼앗고 만성적 질환으로 이행되는 기생충의 성격상 보건교육의 강조와 보건의식의 수준 향상은 꼭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치료 후 재감염 예방교육을 통한 보건의식 함양과 더불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자체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량강화사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라오스의 기생충퇴치사업은 라오스 보건부와 교육부를 비롯하여 국립역학 실험센터, 라오스 국립의과대학, WHO 라오스 대표부, 지역 말라리아·기생충·의용곤충연구소, 지역 보건국 등의 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와 전국 어린이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 가능했다.

라오스 기생충퇴치사업에 참여한 KOICA와 협회, 그리고 기생충학자들의 헌신적인 봉사는 라오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양국의 우호증진과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2005년 11월 16일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공로를 인정받아 라오스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 검사실에서 현미경으로 기생충 종란(알)을 찾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있다



비엔티안 미타팜 병원에서 KOICA 봉사단원과 병원관계자, 검사실에 검사용 기자재와 시약 등을 기증하였다

정부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중국과 라오스에서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아프리카 수단 등에서도 기생충퇴치사업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ODA(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높여가는 시점을 맞이해 보건의료 분야 중 다른 선진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기생충퇴치사업을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생충 분야의 보건의료 전문기관이 사업을 넓혀 수행하도록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관명	한국건강관리협회(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단체 소개	비전염성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국민보건의료 시책상 필요로 하는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효율적 임상병리학적 검사와 치료, 역학적 조사연구, 보건 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 국가 기생충 관리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하며 북한, 캄보디아, 수단, 몽골 등에 기생충관리와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명	라오스 기생충퇴치사업	
사업기간	2000. 2~2005. 12	
사업대상	라오스 전국 18개 지역 학생 및 주민 200만 명	
사업목표	라오스 전국 18개 지역에 기생충감염률실태조사 자료를 보건부 보건정책자료로 제공하며 기생충 감염자 치료와 인프라 구축, 기생충감염예방 보건교육, 전문인력 양성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기생충감염률을 20% 이상 낮추는 자체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기대효과	어린이들의 건강 성장 지원을 위하여 기생충 치료와 재감염 예방, 자체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에 기여하며 오랫동안 타이간흡충(Ov)에 노출된 주민들의 간암 이행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업무분담	KOICA	구충약품, 검사장비, 보건교육 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사업단 파견, Field survey, 투약, 국내연수, 워크숍, 보건교육, 역량강화교육 등
	수원국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및 검사실 지원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 회의에서 라오스 기생충관리사업 지원 요청(1995) • 라오스 기생충관리사업 사전 조사단 파견(1999) • 라오스 전국 18개 지역 Field survey(2000~2004) • 구충약품, 검사장비, 차량지원 등 인프라 구축(2000~2004) • 기생충 재감염 예방 보건교육(2003~2005) • 보건관계자 국내연수, 워크숍, 역량강화교육(2000~2005) • 기초보건 협력을 위한 장비 및 약품 지원(2005) 	



KOICA
민간단체 지원사업
성과사례

2001~2005

한국JTS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방글라데시개발협회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아프리카어린이듣는모임

한국해비타트

정해복지재단

동서문화개발교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플랜한국위원회

글로벌케어



기술도 배우고 공부도 하는 수자타 기술학교

인도 동게스와리 수자타 기술 중·고등학교 건축 및 운영
한국 JTS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단연 세계 최고다.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가운데 8명이 대학에 진학해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 그러나 인도 비하르 주의 동게스와리에서는 대학 교육은 차치하고 기본적인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초등교육을 받고 고등학교까지 어렵게 진학을 해도 농촌지역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인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농촌에서 농사 짓는 기술이나 기계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은 물론 생존에 필요한 여타의 기술 역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농기구가 부서져도 그것 하나 제대로 고치기 어렵다. 인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학에 가야 하는데 가난한 농촌인 이곳 동게스와리에서 대학을 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은 마을에서 별다른 일거리 없이 조선시대 한량처럼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삶을 살아간다.

굶주리는 자에게는 식량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주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주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따뜻하게 안아주면 사람들은 다시 행복해하며 삶의 활력을 찾는다. 최고 학력을 가지

고도 일거리가 없어서 삶을 낭비하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삶을 사는 동계스와리의 청소년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길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일거리를 마련해주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건축 막노동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능하면 자기가 대학에서 배운 학문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찾듯이 동계스와리의 고등 학력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다.

동계스와리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학생에게 막노동 기술을 가르친다면 아무도 배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널리 쓰이는 기술이면서도 육체적으로 많이 고되지 않고 농촌의 수요가 많은 철공과 목공 기술, 발전기 수리 및 전기 기술을 위주로 가르쳤다. 이런 실습교육과 더불어 컴퓨터와 영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컴퓨터 교육중인 학생들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에서 명상을 하는 학생들

고등학교 졸업 학생 중에서 첫 신입생을 받았다. 인도가 워낙 더워서 오후에 기술수업을 하는 건 역부족이라 오전에는 기술실습을 오후에는 교양과목 공부를 진행했다. 한 사람의 기능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정신과 바른 태도를 가진 기술자 한 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가정이나 마을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에서 교양과목 또한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다. 기술실습은 인도 현지 기술자들이, 교양과목은 한국인들이 주로 맡아 가르쳤다. 자신들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탓에 기술자들이 자신의 가족을 가르치듯이 학생들에게 기술을 전수했다. 하지만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의 자세는 달랐다. 영어나 컴퓨터 수업을 할 때 마치 자기 동생을 가르치듯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학생들을 대했다. 때론 학생들의 집을 방문하고 학생들이 힘들어하면 같이 상담도 하고 수업에 들어가기 전 준비도 열심히 했다.

동계스와리에 오래 살고 있는 학생들도 정작 동계스와리 주민들의 삶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하긴 한국도 마찬가지이지 않은가. 한국에 오래 살아도 정작 한국에 대해 얘기해달라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동계스

와리 주민 생활환경조사를 실시했다. 늘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자신보다 더 열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시적으로나마 자원봉사를 하겠다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100일 동안 명상과 마음 나누기를 진행하였다. 명상은 더운 인도에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2005년 1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도 동남부는 쓰나미의 피해를 크게 입었다. 쓰나미로 공황에 빠진 인도 남부의 타밀나두로 기술학교 학생들과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 방문했다. 동게스와리 주민들보다 훨씬 잘 사는 지역의 피해 주민들을 보면서 기술학교 학생들은 약간의 정신적 갈등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몸을 아끼지 않고 피해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봉사의 정신을 학생들은 몸소 배울 수 있었다.

2006년 3년의 정규과정을 마친 기술학교 1기생들은 취업을 앞뒀다. 대개 20대 초반의 꿈도 많고 열정도 많은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동게스와리 농촌에 남아있기보다는 대도시로 나가고 싶어했다. 본부에서는 텔리에 있는 한국 회사에 이들을 추천했고 다행스럽게 추천 받은 학생 모두 이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다. 이 회사 취업담당자는 우리 기술학교 학생들보다 학력이 더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지원도 많이 받았지만 왠지 신뢰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기술학교 학생들은 영어를 할 줄 알고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데다가 몸에 익힌 기술 수준은 비록 다른 이들과 비교해 조금 떨어지지만 회사에서 다른 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믿음과 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진행해온 명상과 마음 나누기,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그리고 다양한 봉사 경험을 통해



KOICA에서 지원한 재봉틀로 교육하는 학생들



기술학교 1회 졸업식사진

그만큼 학생들의 마음이 자란 것이었다. 현재 학생들은 이 회사의 정직원이 된 것은 물론 빠른 시간에 승진을 하여 이 회사의 중책을 맡고 있다.

수자타 기술학교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컴퓨터 수업 및 타자와 재봉을 배우고 있다. 하지만 다른 기술수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인도이다 보니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어 그렇다. 동게스와리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카스트는 자신의 가족에게만 기술을 전수하는 과거의 전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술 교사로 나서질 않는다. 또 청소년들 역시 기술이나 육체적 노동을 싫어해서 교실 밖에서 배우는 기술수업을 선호하지 않는다.

앞으로 기술학교가 더 잘 운영되려면 좀더 학력을 낮춘 대상을 찾아내고 생계가 가능한 농사나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간 적정 기술을 찾아내어 가르치고 무엇보다 기술자를 우대하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의 풀무농업고등학교처럼 졸업생이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에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그들이 다시 학교의 교사가 되는, 학교와 마을이 하나 되는 기술학교. 그래서 학교도 살고 마을도 살리는 학교 그것이 수자타 기술학교의 꿈이다. 아직 수자타 기술학교는 성공사례라고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기관명	한국 JTS	
단체 소개	인도 비하르주 가야시 인근 불가촉 천민 마을 동게스와리에서 1993년부터 교육, 의료, 마을개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국제구호 개발 NGO로서 2007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특별 협의지위를 획득함	
사업명	인도 수자타 기술 중·고등학교 건축 및 운영	
사업기간	2001. 1 ~ 2003. 1	
사업대상	동게스와리 지역 10학년 이상의 청소년 중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거나 지역 사회봉사 경력이 3년 이상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업목표	동게스와리 지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직업기술 교육을 익혀서 장차 가정에서는 훌륭한 가정으로, 마을과 지역에서는 활동력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함.	
기대효과	동게스와리 지역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 300여 명이 기술교육을 익히도록 함	
업무분담	KOICA	인도 수자타 기술 중·고등학교 건축
	한국 JTS	인도 수자타 기술 중·고등학교 운영
	수원국	부지제공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타 기술학교 기공식(2001. 7) • 수자타 기술학교 준공식(2003. 1) • 수자타 기술학교 입학식(2003. 3) • 긴급 구호 활동 참가(2005. 1) • 수자타 기술학교 1기 졸업식(2006. 1)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지역사회통합 접근을 통한 영유아개발사업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부모교육훈련에서 배운 접근법을 적용했을 때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아이를 보면서 무척 놀라웠어요. 아이에게 시간을 주니까 적용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부모교육훈련을 받기 전에는 아이의 학업 성취도가 뛰어나기를 바라는 아이가 공부하는 걸 도와줬어요. 하지만 부모교육훈련을 받은 후에는 접근법을 바꿔서 아이가 학업을 포함한 모든 방면에서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요.” 미얀마 인레이 호수 인근 넌휘(Nun Hue)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어머니의 말이다.

말만 놓고 보면 한국의 어머니가 하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물론 그녀가 처한 양육 현실은 훨씬 더 열악하다. 미얀마 전체 가임연령대 여성의 48% 이상이 가정 밖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3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는 거의 전무하고 전체 만 5세 미만 아동의 10%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도시지역 아동의 경우 전체의 19%가, 농촌지역 아동의 경우 전체의 3%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번기가 되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언니, 누나, 형, 오빠가 유아기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학교를 결석하는 일이 잦고 만 0~5세 유아기 아

동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인지와 언어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영양, 건강, 기초교육면에서 적절한 발달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미얀마 북동부 산주(州) 나웅쉐(Nyaung Shwe)에 위치한 인레호수(Inle Lake) 지역 수상가옥촌은 미얀마 내에서도 접근성이 낮은 낙후지역으로 만 0~5세 아동의 수가 많으나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은 단 2개뿐이다. 또한 인레호수 지역 아동 대부분이 영양섭취 부족으로 성장발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와 지역조직 및 지도자 훈련 활동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인레호수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나 부모들의 열의와 참여도가 높고 지역지도자들이 아동보육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지방정부의 협조를 얻기 어렵지 않을 거라는 것과 2~3년 후 지원을 중단해도 자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ECCD 센터 전경

실제로 인레호수 지역의 만 0~5세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초교육과 영양지원을 통해 아동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신체, 정서, 심리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은 지방정부의 지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이뤄졌다.

나웅쉐(Nyaung Shwe) 인레호수 지방정부가 영유아 보육 및 발달(Early Childhood Care & Development-ECCD)센터 건축 부지를 제공했고 마을 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해 토지 정비작업에 들어갔다. 또 ECCD 센터 별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협력방안, 운영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고 이를 토대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ECCD 센터 공사와 설계 과정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직원뿐만 아니라 ECCD 센터 운영위원회, 부모, 마을지도자, 교사들이 함께 모니터링 및 감독한 가운데 이뤄졌다.



ECCD 센터 야외놀이터

ECCD 센터에서 아동에게 제공되는 간식 역시 메뉴 선정, 조리 및 급식을 포함한 모든 과정이 어머니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아동의 성장 및 두뇌발달에 대한 영양교육을 받은 어머니들은 그룹을 조직해 ECCD 센터에 제공되는 아동 간식 메뉴를 직접 짰다. 완공된 ECCD 센터에 제공되는 교구 및 기자재에는 조리도구의 구입도 항상 포함시켰으며 지역 주민들 앞에서 어머니 자원봉사자들이 선정한 아동 간식 메뉴를 선보이는 요리 시연회를 열기도 했다.

어머니회는 서로 의논하여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적당한 가격과 영양이 충분한 음식을 ECCD 센터에서 제공하는 간식 메뉴로 선정하고 조를 짜서 돌아가며 센터 아동들에게 제공했다. 물론 각 어머니회의 특성에 따라 ECCD 센터별로 간식 메뉴도 다르고 간식 주기도 조금씩 다르기 마련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어머니들이나 아동 양육을 책임진 어른들은 위생적인 음식준비 방법을 익히고 서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ECCD 센터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다. 어머니회 소속 어머니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공동체 내에서 ECCD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담당했다. 81 개의 영양증진 어머니회가 형성되었고 총 473명이 지역 주민이 여기에 속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여 년동안 32개 수상가옥촌 마을에 살고 있는 만 3~5세 아동을 위한 ECCD 센터 8개가 건립됐는데 각각의 ECCD 센터는 나무로 지은 건물 2개, 화장실 2개로 이루어져 있다. 본 건물은 넓고 통풍이 잘 되고 밝게 지어졌고 부속 건물은 유희실로 미끄럼틀, 그네, 구름사다리 등으로 꾸며졌다. 식탁, 수납장, 선반과 같은 가구와 오디오, 장난감, 칠판, 문구류 등과 같은 교구 그리고 낮잠 시간을 위한 매트, 담요, 베게 등도 지원했



ECCD 센터 아동 보육 모습(보육교사가 아동을 대상으로 역할놀이 및 놀이학습 설명 중)

다. 센터마다 안전한 식수 제공을 위해 저수조와 수도관을 설치하였다. 그림책, 동화책, 학습도서, 영양보건에 관한 책 등 도서와 책장을 제공하여 보육아동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미니도서관도 6곳에서 운영했다.

총 44명의 보육교사가 8개 ECCD 센터에서 아동들의 보육을 담당하는데 교사들은 채용 후, 6주 과정의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아동권리, 아동보호정책, 응급처치 훈련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와 글 작성하기와 같은 다양한 워크숍에 참여했다. 교사연수 후에는 주변 마을들의 입소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합하는 작업을 거쳐 아동들의 정식 입소 절차와 개원식이 진행되었다. 교사들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담당자들과 함께 매월 정기회의를 갖고 센터 아동들의 발달 현황, 출석률, 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는다.

ECCD 센터 8개가 모두 완공된 2005년 말 기준으로 대상 마을 만 3~5세 아동의 77%에 해당하는 938명의 아동이 ECCD 센터에 입소하여 연령과 발달에 따른 전문적 교육을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청결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균형 있는 영양공급을 받았다.

또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의 부모교육훈련을 통해 총 1,023명의 부모가 아동양육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자녀들을 더 나은 방법으로 양육하게 되었다. 특히 0~3세 영유아 자녀의 아동 보호와 발달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한 것은 앞으로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파악된다. 부모교육훈련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사를 발달자극 수단으로 사용하는 8가지 모듈, 영유아기의 중요성, 건강, 위생, 영양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한 달에 두 번 모든 마을에서 영유아기의 중요성, 놀이를 통한 학습, 5가지 발달 영역, 아동과 대화하는 법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비디오 상영, 이야기책, 미니 포스터, 팸플릿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식증진활동도 함께 펼쳤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합쳐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발달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이뤄졌으며 복지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당장 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보육되고 형제들이 동생들을 돌보느라 결석하지 않고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 것도 놀라운 변화이지만 지원 종료 후에도 ECCD 지역운영위원회, 교사, 부모, 마을 주민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아동의 성장발달환경을 개선하고



ECCD 지역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지속해가고 있다는 사실 역시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 이렇게 부모, 교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동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일들이 더 많기를 기대해본다.

기관명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Save the Children Korea)	
단체 소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적,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국제아동권리 기관이다. 29 개 회원국이 전세계 120여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동권리 옹호, 아동보호, 보건의료, 아동교육 및 발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개발사업, 긴급구호 및 대북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외 아동의 삶에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업명	지역사회 통합접근을 통한 영유아개발사업	
사업기간	2002. 10 ~ 2005. 12	
사업대상	미얀마 북동부 산주(卍) 인레호수 지역 만 3~5세 아동 938명 및 가족, 지역주민 총 1만 7,292명	
사업목표	ECCD 서비스를 기초로 한 센터 건립 및 운영을 통하여 아동에게 안전한 보육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잠재된 능력 개발 • 신체/정서/심리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여 아동의 삶의 질 향상 • ECCD 활동을 통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아동보호와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 지역내 영유아개발사업 자립기반 마련 	
업무분담	KOICA	ECCD 센터건축, 교구교재 지원, 아동영양지원, 교사교육 훈련, 부모교육, 지역사회조직활동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현지기초조사, 아동발달 & 보호 전문가 지문활동, 홍보 및 사업평가등
	수원국	부지 제공 및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참여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CD 센터사업: 총 8개 ECCD 센터 건립 및 운영(교구교재 지원, 교사 채용 및 훈련, 보건영양사업 등 포함, 2003. 1 ~ 2005. 12) • 지역사회개발사업: 지역운영위원회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아동 권리옹호 및 인식증진활동(2003. 2 ~ 2005. 12)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방글라데시 짚마리·울리빨 지역사회개발사업
방글라데시개발협회(KDAB)



오늘도 다카 사무실을 출발한 지 10시간 만에 짚마리에 도착했다. 다카 개발사업을 위해 매일 두 주 간격으로 다카, 짚마리 왕복 850km를 오가는 길이 많이 편해졌다. 짚마리 군내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환영한다.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진다.

1985년 겨울, 짚마리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당시에는 방글라데시 서북부를 연결하는 다리가 없어 강폭이 10km가 넘는 부라마푸트라 강을 건너는 데 한나절이나 걸렸다. 로컬 버스로 다카를 출발한 지 3일 만에 울리빨군까지 왔지만 더 이상 버스가 들어가지 않아 10여 km를 걸어서 짚마리에 도착했다. 100여 년 전 조선에 처음 도착한 서양인들의 눈에 비친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 하릴없이 서성이는 사람들, 홍수에 모든 것이 떠내려가 망연자실하고 있는 주민들..., 그 어느 곳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해가 진 후 나는 짚마리 선착장 근처 모래밭에 작은 천막을 치고 잠을 청했다. 짚마리의 첫 밤은 을씨년스럽고 추웠다. 그날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처음 보는 외국인과 천막이 신기했는지 밤새 천막 주변을 맴돌며 웅성대는

사람들, 폐병환자들의 각혈과 기침소리, 괴성을 질러대는 정신병자들의 소음 때문이었다.

필마리·울리빨 사업은 홍수로 집을 잃은 가난한 섬주민들에게 긴급구호와 거처를 마련해주는 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곧 지역 지도자들과 청년들에게 외부세계에 눈을 뜨게 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는 일에 나서도록 격려하는 일과 주민들을 진료하는 일로 확장되어 현재 2개의 초·중·고등학교와 진료소, 농군학교, 농장, 신용조합, 봉제, 컴퓨터훈련원, 한센 가족 재활훈련원과 호스텔 등이 운영되고 있다.

사업장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주변 마을에도 전기가 공급됐다. 외부와 연락하려면 도청 소재지까지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리던 일도 이젠 옛 추억이 되었고 섬지역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KOICA 지원으로 외래 진료실, 수술실, 검사실, 안과, 치과 진료실 등의 시설과 X-Ray, 심전도, 초



울리빨한센 재활 훈련원생들



사업장부지높이기공사를 하는 모습



필마리병원 전경



어린이들이 짚마리고등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다.

음파, 수술실, 치과진료실, 병리 검사실 등의 의료장비들을 갖추게 되어 짚마리병원과 8개의 섬 이동진료센터에서는 매년 4만 명 이상의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KDAB의 각종 교육과 훈련 과정을 이수한 7,000여 명의 청년들이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개발사업 초기에 짚마리·울리빨 사업을 위하여 정부가 토지 50에이커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지만, 특혜받는 외국 기관이라는 인식을 피하기 위해서 이를 거절하고 현지 주민들에게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직접 구입했다. 가난하고 폐쇄적인 주민들을 설득하여 땅을 구입하고 등기하는 일은 많

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했다. 각 1에이커의 부지로 시작된 짚마리·울리빨 사업장이 어느덧 17에이커로 늘어났고 학교, 병원, 훈련원, 체육관, 실습실 등 총 52동(연 건축면적 60,430 SF)에 해당하는 크고 작은 교육과 훈련, 진료 시설물들을 모두 지역주민들과 함께 손으로 파고, 실어 나르면서 건축하였다.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는 방글라데시 최고 낙후 지역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살아온 인구 50만 명의 짚마리, 울리빨 군의 생활지표가 바다에서 200계단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981년 짚마리는 문맹률, 학생수, 의료시설, 지역소득이 전국 509개 군 중 최하위였으나 가장 최근 조사인 2001년에는 301위로 올라갔다고 보고했다.

또 월평균 40명의 사망자가 있었던 짚마리 섬 지역에는 고령으로 인한 자연사 외에는 사망자가 없어졌다. 산모관리와 백신접종으로 유아사망률도 거의 제로로 떨어졌다. KDAB가 사업을 시작할 당시 사업장 주변 마을에 초등학교 졸업자가 3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KDAB 짚마리·울리빨 초등학교



짚마리태권도교실 시범장면

학교에 800여 명이 재학 중이며 졸업생들 중 많은 수가 대학에 진학하였다. 방글라데시 짚마리·울리빨 지역이 이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울고 웃으며 땀 흘린 한국인 봉사자들과 방글라데시 사업자들,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후원자들과 KOICA에 감사한다.

방글라데시로 건너온 지 28년째를 맞았다.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날을 피할 수 없겠지만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는 행복한 지구촌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한국인 봉사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관련 통계 자료

[지구촌을 섬기는 사람들] 장순호 이사 "내가 남길 것은 건물 아닌 간증"-국민일보
[지구촌을 섬기는 사람들-(7) 방글라데시 장순호 KDAB 이사] 수해 잦은 섬지역 인술 20년 유니세프 <http://www.unicef.org/>

기관명	방글라데시개발협회(KDAB)	
단체 소개	방글라데시개발협회(Korean Development Association in Bangladesh)는 보건 의료, 나환자 재활, 초·중·고등학교 사업, 기술학교, 음악학교, 호스텔, 농촌 개발사업 등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통해 낙후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1987년 5월 설립된 방글라데시 최초의 한국 NGO이다.	
사업명	방글라데시 짚마리·울리빨 지역개발 사업	
사업기간	2002. 1. 1 ~ 2008. 12. 12	
사업대상	방글라데시 최북단 푸리그램도 짚마리 및 울리빨군 지역주민 50만 명 대상	
사업목표	지역주민 진료 및 위생환경 개선, 음·양성 나환자들의 치료 및 재활지원, 정규, 비정규교육, 기술교육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기대효과	짚마리 및 울리빨 지역주민들과 7개 섬 지역주민들에게 이동진료, 가족계획, 임산부관리, 영·유아관리, 영양식보급 보건교육, 펌프 공급, 화장실 보급 등 종합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여 유아사망률 감소, 전염병 발생률 저하, 위생환경 개선에 기여. 울리빨 지역 한센가족 대상으로 나병 확산방지, 한센 환자들의 자립과 정착 및 정규교육 기회제공	
업무분담	KOICA	짚마리 병원건축, 진료비, 의료장비지원, 한센 재활훈련지원, 펌프 및 화장실 보급, 교육 기자재 지원 등
	KDAB	이동진료, 가족계획, 임산부관리, 영·유아관리, 영양식보급 보건교육, 초등교육, 컴퓨터교육, 행정관리 및 평가
	수원국	주민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무상 지원(2002. 3~ 짚마리 군청 위생과), 경비 담당 청원경찰 파견(2004. 7, 푸리그램도 경찰국), 짚마리 및 울리빨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지원(2003. 12, 군청 초중교육과)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글라데시 정부에 국제 NGO 등록(1990. 1) • 짚마리 농군학교 및 농촌개발사업 시작(1990. 3) • 짚마리 의료사업 및 울리빨 한센재활사업 시작(1992) • 짚마리 초등학교 사업 시작(1993) • KOICA 지원으로 짚마리 병원 완공(2005. 5) • KOICA 지원으로 울리빨 초등학교 완공(2006) • 짚마리 및 울리빨 고등학교 사업 시작(2007) 	



아프가니스탄에 사랑 급식

아프가니스탄 난민 긴급구호사업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2001년 10월 7일 미군의 폭격으로 시작된 탈레반과의 전쟁 그리고 오랜 시간 씁쓸한 외침과 내전의 역사는 주민들의 삶을 온통 상처입혔다. 이런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돕기 위해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는 2002년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쿤두즈 인근 지역의 난민촌으로 긴급의료팀을 보냈다.

당시 국제이민기구는 4주 동안 아프간 난민촌에서 다수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177명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다고 보고했고 이미 그보다 두 달 전에는 유니세프에서 매년 아프간에서 어린이 30만 명이 숨지고 있으며 그해 겨울에만 어린이 10만 명이 추가로 동사 또는 아사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었다(2001. 12. 8).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구호팀은 쿤두즈 북쪽 이몸소입이라고 하는 인구 5만 명의 도시를 중심으로 가라울지역 1만 명, 가라울테파 1만 명, 부수스 1만 2,000명이 거주하는 3개의 난민촌 지역을 선정하여 활동하였다. 그 지역들은 전쟁 후 약 1달 반 정도 후 형성된 난민촌으로 거의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열악했으며 그 어떠한 구호단체의 손길도 미치지 않던 상황이었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는 우선 의료진료와 함께 난민촌에 필요한 빵과 옷을 배분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2002년 4월부터 카불, 쿤두즈, 칼밧, 이몸소입 등지에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학교건축, 어린이개발사업, 소규모 이동진료 및 구호물품 배포를 실시했다. 사업지역인 쿤두즈에는 과거 난민들이 대거 도시로 유입되면서 많은 빈민층을 형성하였고 이들은 의식주 생계의 문제를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이몸소입 내 오포블록에 있는 마을에는 영양실조로 인한 각종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된 어린이와 부녀자들이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남성우월주의 색깔이 강한 이슬람 문화의 영향으로 많은 어린이와 부녀자들은 수혜대상에도 해당되지 못한 채 장티푸스, 부인병 및 영양실조로 인한 각종 질병에 무방비로 노



아프가니스탄 들만에 핀꽃

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쿤두즈에는 많은 슬럼가가 있다. 도시 빈민들의 삶은 어렵다. 살 곳,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한 것은 물론 마음 놓고 마실 물 한 잔 구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노약자, 고아, 과부, 불구자, 환자들에게는 한 끼의 무료급식만이 생명을 이어가는 수단이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는 이런 지역 빈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KOICA를 통해 난민 긴급구호 사업을 추진했다. 급식소를 운영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빵과 쇠고기 볶음밥으로 구성된 점심을 제공했다. 600평 규모의 땅을 대여하여 부엌과 식사 장소로 개조하고, 사업 첫 주에는 700여 명으로 시작하여 매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했고 8월말부터는 1,6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일 급식을 제공했다. 또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빈민, 과부, 고아, 불구자 1,400명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밀가루 1포(50kg)를 지급하기도 했다. 인근지역의 빵공장을 통해 빵은 직접 공급받고 급식소 취사장에서 고기와 야채를 넣은 볶음밥을 조리해 급식했다. 급식소에 필요한 조리사 및 기타 인력 16명은 아프가니스탄 현지인을 고용하고, 동 언어문화권인 타지키스탄인



초원 위의 양떼가 평화로운 아프가니스탄 풍경



무료급식으로 생계를 연명하는 아이들

(기아대책 타지키스탄 소속)을 통역원 및 제반 관리요원으로 활용했다. 그리고 쿤두즈 지역 주지사 및 지역 리더들이 원활한 급식을 위해 치안과 질서 유지를 담당했다.

급식표는 한정되어 있고 급식을 원하는 사람들은 늘 더 많으니, 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더 많은 양을 받기 위해 이중 삼중으로 표를 받는 경우도 비밀비재했다. 가능한 한 현지의 상황에 맞게 지역주민들의 긴급한 필요를 채워 주는 방향으로 무료급식은 진행됐다. 아울러 현지인들에게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의지를 고취시켰을 뿐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

이미 학교 건축으로 쿤두즈 주정부와 군장성 등 지역 지도자와 주민들이 KOICA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상황

에서 시작된 긴급구호 사업은 다시 한 번 KOICA와 한국기아대책기구에 대한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KOICA와 본 기구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며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굳건해졌다. 특히 빈민층에 대한 급식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큰 감사와 칭송을 받았다. 급식소에 고용된 현지인들 중에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좋은 일에 힘써 달라며 기부하는 이들도 있었다.

급식소를 통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빈민들, 특히 노약자, 고아, 과부, 불구자와 환자들의 직접적인 생존을 도왔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인력과 식료품을 현지에서 수급함으로써 고용 창출효과와 현지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또한 남성우월주의의 사회에서 급식소 운영에 부녀자들을 투입하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도를 높인 일은 작게나마 여성 개발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부분이다.



급식소를 통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했다



무료급식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주민들



아프가니스탄 난민촌은 의식주 문제의 해결이라는 당연한 과제에 처해 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고아, 과부, 환자, 불구자, 불우한 학생과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KOICA와 본기구가 협력하여 진행한 이 사업은 수혜자들이 당면한 생계 문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고, 생계 도움의 차원을 넘어서 수혜자들의 상실된 인간의 자아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주민들은 새로운 삶의 용기와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제는 장기적으로 이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 문화, 직업교육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무료급식사업을 통해 지역지도자들과 주민들에게 KOICA와 본 기구에 대한 큰 신뢰를 갖게 한 만큼 쿤두즈 주에서는 향후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공동체 재건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

본 기구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구호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불과 같은 물품 배포로 신뢰를 쌓았다

관계기관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관련 통계 자료
유니세프 <http://www.unicef.org>

기관명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단체 소개	국내외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과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의 생존과 자립을 돕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이자 비영리자선국제구호단체이다.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긴급구호와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의 결식아동, 노숙자 및 무의탁노인 무료급식, 영세 장애인 수용시설운영지원등을 하고 있다.	
사업명	아프가니스탄 난민 긴급구호사업	
사업기간	2003. 5~2004. 1	
사업대상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위치한 이몸소입 내 옴뜨블록, 실캣 및 칼밭 빈민촌 거주 난민(총 3만여 명)	
사업목표	쿤두즈 지역 내에 살고 있는 과부와 고아와 장애인, 기타 빈민들에게 급식을 실시함으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줌.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소 설치를 통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빈민들의 직접적인 생존 지원 • 급식소 운영에 부녀자들을 투입하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도 향상 •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업무분담	KOICA	사업비 지원, 모니터링 및 평가, 필요시 현지 지방정부와의 협의 진행
	한국국제기아 대책기구	사업진행 총괄, 인력 파견을 통한 사업진행 점검, 모니터링, 사업비 지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외
	수원국	사업에 대한 인식증진과 홍보, 지역정부기관과의 업무 협력, 수혜자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사업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 난민촌에 대한 긴급구호활동 시작(2001년 말) • 카불, 쿤두즈, 칼밭, 이몸소입 등지에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학교건축, 어린이개발사업, 소규모 이동진료 및 구호물품 배포(2002. 4~) 	



사막마을의 오아시스 라마코카 원광센터

남아공 라마코카 지역 유치원 설립운영 및 지역 개발 사업
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



라마코카지역은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시기의 아프리카인 자치구역으로 도회지의 여타 도시와 달리 문명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이다. 겨우 1996년에야 전기가 공급되었고 비포장도로 20km의 모래길이 이어져 있는, 아직도 추장이 마을을 통치하고 있는 오지이다. 70km 밖의 인근 도시로 나가야 생필품과 장을 볼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대다수의 주민들은 인근 도시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광산 등에서 단순노동자로 일하며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생활하는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다.

남아공 한국대사관 추천과 라마코카지역 추장의 요청으로 2002년 1.5헥타르(약 4,500평) 규모의 땅에 라마코카 원광센터의 건축이 시작되었고 이듬해 8월 아프리카 오지의 지역사회 개발운동이 시작되었다.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마저 없는 초창기 이곳의 활동은 팍팍하고 힘들게 진행되었다. 먼지가 펄펄 나는 사막마을의 한가운데서 양상한 가시나무를 제거하고 지하수를 파서 옥토의 텃밭을 만들고 페타이어와 개울의 돌을 주워다가 운동장을 조성했다. 황무지에 잔디와 화단을 가꾸어 파라다이스를 만들어가는 활동이 2003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라마코카 원광센터는 이곳 마을 추장이 1.5헥타르의 땅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KOICA의 3,500만원의 보조금 지원과 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의 건축과 운영 담당을 통해 이뤄질 수 있었다. 아동들의 내일을 여는 유치원 교육, 청소년들의 컴퓨터교육과 같은 교육의 기틀을 다졌고 태권도 훈련과 사물놀이 등 다양한 문화활동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씨앗 채소의 모종 보급과 농업기술 개발사업 및 지역사회 자활조직 구축 지도 지원은 물론 에이즈 환자, 장애인 등 빈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아프리카 오지의 현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해 6월 세계 축구의 제전 2010 남아공월드컵이 열렸을 땐 이곳 라



월드컵 서포터즈 활동

마코카 지역 청소년들이 한국 전통복장을 하고 부부젤라와 사물놀이를 한국국가대표팀을 응원하면서 한국과 남아공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목을 끌기도 했다.

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의 주요사업은 아동교육이다. 어린이의 교육을 통한 장기적인 활동이야말로 아프리카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7년째 2학년 60명의 흑인 원주민 아동의 유치원 교육은 아동교육 차원을 넘어서 이 지역의 인근 유치원과 중·고등학교에도 신선한 자극을 주면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내일의 꿈나무를 키우는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주민 흑인 교사들을 재교육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생활 교육을 통해 학습능력을 신장시켰다. 아울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 교육활동도 진행했다. 그리고 이들이 경험하기 어려웠던 현장학습,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 등으로 진행되는 유치원 교육은 낙후된 소외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역을 길러내는 산실이 되고 있다. 그동안 6회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졸업생들을 초청하는 'Home Coming Day'를 통하여 졸업생들의 성장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태권도와 컴퓨터교육을 연계하여 후속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라면 길거리에 버려도 아무도 주워가지 않을 펜티엄(CPU 166) 컴퓨터의 위력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2003년 컨테이너로 가져간 15대의 중고 컴퓨터는 라마코카지역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처음에 유치원 교실의 구석에 청소년들의 소양교육 정도로만 생각하고 시작한 컴퓨터 교실은 지역사회 전체가 환영하는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일용노동직이나 광부 등



컴퓨터 교육은 사막마을 청소년들에게 기적을 일으켰다

단순작업에 일하며 살아가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통한 자기 개발은 큰 매력으로 다가갔고 그 결과 중·고등학교 학생들부터 청소년 그리고 일반 성인들까지 모두가 컴퓨터 교육을 열망하고 있다.

IT강국으로 한국인이란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컴퓨터 상식만 가지고도 이곳에서 훌륭한 강사 노릇을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또한 교육을 받는 동시에 자신이 배운 내용을 다른 이들에게 전수해줄 수 있어 많은 이들이 교육의 효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잇점이 있었다.

지금 라마코카센터의 컴퓨터 교실은 매일 오전엔 일반 성인들이, 오후엔 중·고등학생들이 찾아들어 북새통을 이룬다.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한글의 한메타자로 타이핑 연습을 하고, 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 등과 같은 기타 프로그램을 배우며 익혀 내일의 희망을 열어가는 전당이 되고 있다. IT 정보기술을 익히면서 이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활동으로 낙후된 시설을 보강하고 인터넷 연결 등 기본 장비의 보완, 그리고 능력 있는 봉

사원의 활용을 체계화하면 이곳은 아프리카의 미래를 열어가는 훌륭한 교육장이 되리라 본다.

비좁은 커뮤니티 홀에서는 100여 명의 라마코카 청소년들이 매일 비지땀을 흘리며 “차렷! 경례! 시작! 태권도!”의 합성을 지른다. 2004년 남아공 태권도연맹 산하 라마코카 태권도 클럽이 시작된 이후 초등반, 중등반, 고등 및 성인반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태권도 클럽은 2006년도에는 남아공의 최우수 클럽으로 선정된 바 있고 2006년 리비아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라마코카 클럽의 태권도 선수가 처음 참가한데 이어 2007년도 레소토에서 열린 국제경기에서는 당당하게 금메달을 따며 기염을 토함으로써 이 지역 청소년들의 우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작년에는 2명의 라마코카 클럽 선수들이 인천에서 열린 제5회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The 5th Korea Open Inter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대회에 참가하였고 금년 6월



라마코카 청소년들의태권도 시범

춘천에서 예정된 제6회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도 두 명의 청소년이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남아공 국가대표팀에는 총 4명의 라마코카 클럽 선수가 선발되어 훈련중이다.

여가나 문화 활동의 기회를 갖지 못한 오지의 청소년들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쉽게 퇴폐문화를 접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운동하고 생활지도 상담을 통해 능력을 키워내며, 지역의 우등생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태권도 운동뿐 아니라 매주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길거리 청소, 마을 공동회관의 가시나무 제거, 농작물 재배와 이웃돕기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등 마을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농자(農者)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다’라는 말처럼 농사는 단순히 먹을거리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근본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남아프리카의 농업구조와 백인들의 막강한 영향력 등에 의해 라마코카지역에선 농업활동이 전무한 실정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거나 종자를 구입하고 농업장비, 농업기술을 도입하는 데 참으로 많은 준비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규모의 백인농장에 예속되어 있는 남아프리카의 대다수 흑인들은 저임금 노동자로 살 뿐 넓은 아프리카의 땅과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스스로 농사를 지을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이들의 의식을 깨워주고 신선한 농작물을 제공하여 가족의 건강을 채워주고 땀흘려 일하면서 살아가는 근면을 일깨우는 농업프로젝트도 시행중이다.

우선 부족한 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물을 파고 주위에 널려 있는 잡풀과 버려지는 동물의 분뇨를 활용해 퇴비를 만들고, 지역에 맞는 씨앗을 구입하



라마코카태권도클럽시범경기



2006년태권도클럽모습

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밤낮으로 황무지를 개간했다. 그 덕분에 자그마한 라마코카원광센터의 정원은 채소 및 과일이 무럭무럭 자라는 옥토로 재탄생했다.

수확한 농산물의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 농작물은 어려움에 처한 에이즈 환자, 장애인, 노인, 고아 등의 가정에 나누어 주면서 농업활동을 독려한 결과 2007년에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기의 텃밭을 가꾸어 먹을거리를 장만하는 텃밭 가꾸기 경연대회(Home Vegetables Garden Competition)가 열리기도 했다. 이를 통해 농업재배기술을 전수하고 종자와 씨앗을 제공하며 지역사회가 함께 채소와 과일을 가꾸는, 열심히 움직이는 사막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의 활동을 지켜보던 이곳 추장 부인은 우리를 가리켜 녹색손(Green Hand)이라는 애칭으로 부른다. 메마른 자신들의 땅을 개간하려 상담하는 이들을 보노라면 땀흘리는 실천을 통한 기쁨을 함께 느끼게 된다.

원불교 창립정신(이소성대, 근검저축, 일심합력,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함께하는 라마코카의 지역사회 개발활동은 라마코카원광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재조직, 지역 자원봉사 조직의 활성화와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의 영역까지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낳고 있다.

매년 두 차례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4월 나눔행사와 12월 유치원졸업식과 함께하는 농작물 품평회 등의 행사에는 청소년들의 태권도 시범경기, 컴퓨터 타이핑 경연대회, 마을잔치, 마을 축구대회 등을 함께 열어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나눔의 계기가 되고 있다. 또 한국에서 가져간 헌옷과



2010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서실을 운영했다

교민들이 기증한 물품은 겨울 전에 정기적으로 나누어주며 사랑을 전하고 있다. 환자와 빈민들에 대한 농작물과 물품 지원은 이들의 삶의 기반을 지원하는 활동이 되고 있다.

인근 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처절하기만 하다. 많은 학생들이 교과서와 학용품 없이 학교에 다니며 대다수의 학생이 수업료가 없어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해야만 한다. 라마코카센터는 활동이 시작된 이후 8년째 불우한 환경의 우수 학생들을 학교장의 추천으로 받아들여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컴퓨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상담을 통해 상급 학교 진학과 취업

의 기회를 증대하고 있다. 또한 낡은 교과서만 먼지가 수북한 채 쌓여 있는 학교의 도서관 대신에 후원받은 책들을 모아 작은 도서관을 열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세계를 위한 상상력의 창을 열어주고 있다. 그 외에도 장애인이나 에이즈 환자들을 방문 상담하는 재가 방문활동, 구충제 투약 및 보건위생교육 등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

황량한 사막마을 라마코카 주민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라마코카원광센터는 아프리카 어린이의 미래를 바꾸고 청소년들의 자립 자활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가난과 무지와 질병에 찌든 아프리카에 새로운 지혜와 희망을 여는 지역사회개발 활동은 인내와 사랑 없이는 진행되기 어렵다. 300년의 기나긴 제국주의의 착취 속에서 아픔을 겪어온 아프리카인들의 상황을 껴안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마코카원광센터에서 진행되는 아동교육과 태권도 교육, 컴퓨터 교실 그리고 농작물 프로젝트 등은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의식 계몽과 연대로 아프리카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공생공영의 밝은 내일, 지구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한국 사회의 활발한 지원과 성원을 기대해본다.

기관명	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	
단체 소개	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Future for African Children)은 외교통상부로부터 사단법인인가(허가번호 345호, 1999. 6), KOICA에도 등록(2002. 7)된 아프리카 어린이 후원 NGO단체이다. 한국에 법인사무실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아프리카 사무실을 두고 스와질랜드 산골마을 카퐁이지역의 기관, 남아공 사막마을 라마코카센터에서 아프리카 오지의 교육, 보건 의료 및 지역개발 활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명	남아공 유치원 설립운영 및 지역개발사업	
사업기간	2003년부터 지속사업	
사업대상	라마코카지역주민 2만 5,000여 명	
사업목적	아프리카 어린이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립과 평화 실현에 기여하고 기아와 질병의 대륙에 은혜와 상생의 기운을 조성하며 국가 인종을 넘어 살 운동을 실천함으로써 공생공영의 대의와 인도주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아프리카 오지에 교육, 의료 보건 및 다양한 지역사회개발 사업을 추진	
기대효과	아프리카 오지 개발 활동으로 라마코카 지역사회의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 지역주민들의 자활 자립 의식을 고취하고,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마을 운동으로 스스로 일구어 가는 지역사회 건설	
업무분담	KOICA	건축비 일부(3천 500만원) 지원(2003)
	아프리카어린이 돕는모임	센터 건축 및 교육, 지역개발 사업 운영
	수원국	부지 제공 및 사업운영 기반 확보
사업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유치원 및 부대시설) 공사완공(2003. 9)으로 지속적인 사업운영 • 유치원 교육 - 유치원 2개 반(정원 70명, 2004년부터 운영) • 컴퓨터 교실 - 주 이용인원 200여 명, 컴퓨터 15대, 2003년 11월부터 운영 • 태권도 교육 - 4개 클럽 개발, 150여 명 청소년, 남아공내 최우수 클럽 • 농업프로젝트 - 텃밭가꾸기 지원(요충·씨앗 제공, 농업지도, 경연대회 등) • 기타 지역개발 - 빈민구호, 자원봉사, 장학사업, 지역조직 구성 및 지원 	

초원 위 하늘과 맞닿은 빨간 지붕의 향연

몽골 사랑의집짓기 사업
한국해비타트



몽골은 전통적으로 유목민족의 나라다. 바람 따라 물 따라 초원을 옮겨 다니며 게르라는 이동식 주거의 형태를 삶의 근거로 삼고 살아온 민족이다. 이동하며 살아가는 유목민의 삶 속에서 과연 해비타트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게르가 아닌 벽돌로 지은 집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떤 효율적 가치가 있을까. 거대한 대륙의 기운 아래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한낱 작은 장난감 집같이 보일 수 있는 벽돌 주택이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그 안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라도 찾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현장을 찾았다. 끝도 없을 것 같이 펼쳐지는 초원을 달리다 보면 산등성이 아래 빨간 지붕 주택의 향연이 펼쳐진다.

2009년 12월, KOICA가 지원하는 'NGO 실무자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통하여 울란바토르 인근의 해비타트 마을을 방문할 수 있었다. 20~30분 정도 차를 타고 달리자 하얀 설원에 놓인 빨간 지붕의 마을이 펼쳐졌다.

몽골 해비타트 직원의 안내에 따라 KOICA 프로젝트로 형성된 해비타트 마을의 한 가구를 방문했다. 방금 자고 일어났는지 불이 밧그레하게 상기된 딸을 안은 채 집의 가장인 남편이 우리를 맞이하였다. “부인은 일을 하러 갔어

요. 퇴근하려면 조금 더 있어야 해요.” 남편의 몸이 불편한 터라 아내가 올란 바토르 시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몽골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렇게 번갈아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집이라는 안정된 보금자리가 있기에 가능하다. 높은 대출금 없이 집을 구할 수 있어서 아이의 미래와 가정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몽골의 전통적인 주거방식인 게르는 이제는 시골지역이나 일부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유목민의 생활도 반 정착, 반 유목의 생활로 변해가고 있다. 대부분의 유목생활은 축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흑한으로 인한 가축의 폐사와 삶의 기반을 잃은 농민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도시로 모여들고 있다. 시골에서 도시로 간 이들은 도심 외곽에 게르촌을 이루고 이는 점차 슬럼화되어간다. 도시 유입 인구가 증가하면 할수록 도심 외곽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게 마련이다. 화재에 취약하며 주

거로서 최소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임시주택 형태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나타난다.

대부분 나라의 도시 서민이 현대식 주택을 마련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은행의 대출금을 빌려야 가능한데 일반 서민의 월급 수준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몽골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로의 변화를 모색해 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집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높은 대출금 이자와 주택 마련금의 부족으로 일반 서민들은 가난의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몽골의 해비타트 주택은 바닥과 벽 내부에 단열재가 장착된 조적식 주택이다. 이러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해비타트는 건축 자재비, 노무비 등의 비용을 마련하고 지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전기,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을 마련하여 마을 단위의 계획적인 도시를 형성해간다. 몽골 해비타트



몽골의 전통적인 주거방식인 게르는 이제는 시골지역이나 일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는 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과 도시 슬럼화,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UN-HABITAT(유엔 해비타트) 보고에 따르면 인구 300만 명 중 57%가 도에 집중되어 있고, 이중 65%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도시 거주자 중에서도 77%만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고, 45%만이 개선된 위생환경에 놓여 있다고 한다.(2001년 기준)

몽골 해비타트는 지역정부의 허가를 받아 필지를 입주가정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상환금 납부가 완료되었을 때 등기부 등본을 해비타트 주택에 입주한 가정에 완전히 이전한다. 해비타트의 입주가정은 전세계의 해비타트 조직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최소한의 선정 원칙, 즉 현재 거주하는 주거환경의 열악함과 필요성, 맘의 분담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자립의 의지를 기준으로 지역사회에서 구성된 가정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몽골 해비타트는 KOICA의 지원금을 통하여 건축자재를 마련하고, 기술자를 고용하여, 마을 단위의 주택건축을 실행한다. 한국 해비타트는 한국의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교육하고 직접 현장에 파견하여 맘의 분담을 실현하는 입주가정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며 서로 돕는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입주가정 스스로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강화의 기회를 갖게 되며, 안정적인 주거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KOICA의 지원금을 통하여 한국 해비타트는 몽골 해비타트와 협력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사업을 시행하여 총 134가정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으며, 11개 팀으로 구성된 200명의 자원봉사단을 파견하



몽골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몽골의 해비타트 주택은 바닥과 벽 내부에 단열재가 장착된 조적식 주택이다

여 두 국가는 상호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해비타트 주택을 건축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특히 이러한 주택들이 마을을 이룬다는 것은 부지 확보부터 건축자재 구입, 기술자 고용, 봉사자 관리, 지역 정부와의 협력, 기반시설 확충, 입주가정 선정까지 제반 수행해야 할 모든 일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여야 하는 총체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몽골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직접적인 자재 구입비와 자재를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 기술자 고용비 등 간접비용이 전체 비용 중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한 끼의 식사 가격

이 우리나라와 별다르지 않다는 것에서 느낄 수 있듯이 전체 GDP에 비하여 물가가 상당히 비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간접비용을 증원해야 함에도 증액 요청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이런 간접비용을 절감하는 데는 효율적인 건축기술 도입 및 신공법의 도입으로 주택 건축비용을 절감하는 노력과 함께 현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원을 이끌어내며,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 등의 총체적인 개발 사업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벽돌로 튼튼하게 지은 집에 살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삶의 작은 변화는 바로 안정감이다. 나의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주는 삶의 터전이 있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을 꿈꾸게 하는 토대가 된다. 저녁이면 퇴근하여 돌아올 나의 집이 있다는 것, 추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는 것은 더 열심히 일하여 자립할 수 있다는 든든한 힘이





몽골 울란바토르 해비타트 마을

될 수 있다.

빼그덕 소리가 나는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살아가던 불안정한 삶에서 사생활이 보호되고, 부모와 자녀가 독립적인 공간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안정감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해 가느라 극심한 변화의 한가운데 놓인 몽골인들의 몸무림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해비타트 주택을 통하여 퍼져 나가는 작은 마음의 변화가 드넓은 초원의 빨간 지붕의 향연처럼 계속 펼쳐져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관련 통계 자료**

유엔해비타트 <http://www.unhabitat.org>

기관명	한국해비타트	
단체 소개	한국해비타트는 1995년에 설립된 국제 NGO로 국내외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락하고 튼튼한 보금자리를 제공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확보와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KOICA의 지원으로는 필리핀, 몽골, 마다가스카르, 네팔 등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사업명	몽골 사랑의집짓기	
사업기간	2003. 1~2007. 12(5개년 사업)	
사업대상	몽골 울란바토르, 에르드넛, 다르항 주민 134세대	
사업목표	현대식 주택 건축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마을 단위의 상하수도 시설 구축 및 전기공급 등 지역정부와 협력하여 더 나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	
기대효과	몽골의 무주택 서민에게 견고한 주택을 건설해줌으로써 추위, 전염병, 질병 예방 및 화장실 주방문화 개선, 소득증대, 교육환경 개선 등의 생활여건 개선	
업무 분담	한국해비타트	건축기금지원, 자원봉사단 파견, 프로젝트 진행 감독 및 보고
	몽골해비타트	주택부지확보(정부 허가), 입주가정 선정 및 자원봉사자 동원, 건축기금모금 일부 부담, 건축 후 입주가정의 관리, 건축 기술자고용 및 건축과정의 실제적 진행
	수혜가정	건축현장의 노력 참여: 최소 300시간 이상/건축 원가의 상황: 비영리, 무이자장기분할 상환(10~15년)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공식 및 착수(2003~2007. 5) • 기술자고용 및 기반 공사(2003~2007. 5) • 건축 자재 구입 및 현장 준비(2003~2007. 6) • 자원봉사자 파견 및 건축작업 진행(2003~2007. 7~8) • 평가 및 보고(2003~2007. 9~10) 	



작은 씨앗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공간

베트남 투득기술대학교 한국어 교육사업
정해복지재단



월남전이 끝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의 기억 속 베트남은 월남 파병 당시의 풍경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개방정책을 채택한 후 베트남은 폐쇄된 공산주의 국가에서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애쓰는 나라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이미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베트남간의 협력이 하루가 다르게 구체적으로 진척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을 단순히 경제협력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기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유산이 드리우는 그늘이 짙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 전쟁 당시 현지인들과의 사이에 남아 버려진 한인 2·3세 및 전쟁고아, 불우한 청소년들의 문제는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진행시키기에 앞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순수한 민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단법인 정해복지재단은 한·베 정해기술학교(현 투득기술대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1992년부터 버려진 땅을 갈고 닦은 후 허물어진 건물을 개축 보수하거나 신축하여 5년이

라는 긴 준비기간을 거친 끝에 마침내 1996년 11월에 뜻깊은 개교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외국 그것도 한때 공산국가이면서 전쟁 대상국이었던 베트남에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정해복지재단은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인류애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베 정해기술학교는 1998년 7월, 첫 결실이라 할 수 있는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한 이래 2010년 현재까지 13번의 졸업식을 거행했다. 많은 졸업생들이 베트남 내의 전문기술자로 자리매김했으며 이중 일부는 현지 한국기업에 취업하여 일하고 있다. 지금도 많은 베트남 내 불우 청소년들이 본회가 설립한 학교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아 희망찬 새 삶을 준비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베트남 주민들의 교육열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한국어교육과 컴퓨터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게 됐다. 이에 베트남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인력을 양성하고자 2004년 제1기 KOICA의 지원을 받아 해외봉사단원 3명이 베트남으로 파견돼, 2006년까지 2년 동안 한국어와 컴퓨터교사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었다. 이들은 현지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 작성과 인터넷 활용법까지 교육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사무업무를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또한 2007년 4월에는 제2기 해외봉사단 3명을 파견하였다. 제2기의 경우는 한국어를 중점적으로 교육하였으며, 재학생과 지역주민뿐 아니라 인근 노동자에게까지 한국어를 교육하고 한국문화를 알리는 일에 현재까지도 힘을 쓰고 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고 전달하는 것에 대해 현지인들이 다소 거부감을 가지기도 했다. 이런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먼저 자원



한·베 정해기술학교는 1996년에 개교했다

봉사단원 모두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현지어(베트남)와 현지 문화를 익혀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교내(투득기술대학교)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인근 노동자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한국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는 학교의 기자재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호치민 시내 KOICA 봉사자와의 자료 공유 및 물품 지원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었다.

1997년 120명의 신입생에게 5년간 학비와 기숙사비, 용돈까지 전액 지급하는 등 정성을 쏟은 한국어 교육사업은 지난 2001년 본 학교를 호치민시에 헌납함으로써 마무리됐다.

이곳 학생들은 베트남 전문기술인력의 주춧돌이 되었고, 헌납 10년이 지난



웃음을 즐기는 모습

현재 ‘한·베 정해기술학교(1년)’는 투득기술대학교(3년제)로 승격되었고 베트남 청소년들의 배움을 향한 타는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희망의 등대로 자리잡았다.

또한 2011년 8월에는 KOICA의 일부 지원을 받아 한국어학과를 신설하여 과목이 아닌 학과로 인정을 받아 한국어강사를 자원봉사자로 파견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현재 베트남 투득기술대학교의 한국어 강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재학생들에게 조금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게 한국의 기본 자료와 학습자재가 좀더 보강되었으면 하며, 한국어와 함께 한국의 애정과 문화도 베트남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

 관련통계자료

유니세프 <http://www.unicef.org>

기관명	정해복지재단	
단체 소개	모든 사람이 복지·환경·문화수준에 있어 사회의 번영·발전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이념 아래 활동하고 있다. KOICA의 일부 지원으로 베트남인을 위한 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2011년 기준).	
사업명	베트남 투득기술대학교 교육 지원사업	
사업기간	2004. 11 ~ 현재	
사업대상	한인 2·3세 및 전쟁고아, 장애인, 불우 청소년 등	
사업목표	재외 한인들에게 조국과 연대감과 소속감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 마련 교양증진과 정서함양으로 자기개발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질 향상	
기대효과	기술교육을 통한 독립된 생활인으로서의 성장과 경제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업무 분담	KOICA	해외자원봉사단원 파견 1명
	정해복지재단	기존 자원봉사단원 파견 1명
사업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베 정해기술학교 개교(1996. 11) • 한·베 정해기술학교 1기 입학식(1997. 4) • KOICA - 정해복지재단 중·장기 해외봉사단원 파견(2004. 11) • KOICA - 정해복지재단 단기 해외봉사단원 파견(2007. 4) • KOICA - 정해복지재단 단기 해외봉사단원 파견 예정(2011. 5) 	

한 생명을 위한 니시(Nsime)의 119

모잠비크 보건 및 의료지원사업
동서문화개발교류회



470년 동안 포르투갈의 식민정책 하에 억압된 삶을 살았던 모잠비크는 1인당 GNP가 140달러밖에 안되는 열악한 상황이다. 배우지 못해 직업을 얻지 못하고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여 많은 아이를 낳고, 다시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교육 시키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모잠비크의 마푸토(Maputo) 내, 니시(Nsime)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0~60km에는 8개의 마을(니시 마을 포함)에만 3만여 명의 주민들이 분포해 있는데 이 지역들은 시내와 떨어진 외진 곳으로 의료혜택이 매우 열악하다. 주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하루 수입이 10~20센트밖에 되지 않는 영세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데다가 특히 병원 시설이 전무하여 출산 시 위급상황이 벌어져도 아무런 대책 없이 인명을 잃는 상황이 속출했다.

무의촌 지역인 니시지역은 응급환자(사고, 질병, 출산 등)가 발생해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각종 전염병이 1년에도 몇 차례씩 창궐하는데도 이를 예방할 대책이 없었다. 또한 무절제한 성생활로 AIDS와 각종 성병이 만연하여, 가족계획과 질병 예방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었다. 본기구는 따라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무의촌 지역,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의료시

설을 건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종 전염병과 AIDS, 그리고 가족계획과 성병 예방 교육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시설을 짓는데 있어 현지에서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여 건축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비싼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에 상업고등학교를 건축했었던 노하우를 활용하여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활용하고,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건축 작업을 추진해갔다.

사업대상은 모잠비크 마푸토(Maputo)도내 니시 지역 및 인근 7개 지역으로 잡았고 주요 사업내용으로 병원 건축,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실시 후 이송, 질병 예방 활동 전개, 보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병원은 건물 2동의 규모로 1동은 병원 동으로 진료실, 대기실, 상담실, 산부인과 조산실, 입



땅다듬기등 기초공사에는 현지인부도 참여했다

원실을 만들고 나머지 1동은 의사, 간호사의 숙소 등의 용도로 쓰기로 했다. 2004년 1월부터 병원 설계와 공사 작업 준비를 거쳐 2월과 3월에는 기초공사에 필요한 공사 재료 준비 및 구입이 진행되었고 3월에 착공식을 거쳐 4월에서 5월에 벌목작업, 길 조성, 나무뿌리 제거, 땅 다듬기 기초공사를 했다. 6월에는 외벽 공사 그리고 7월에서 8월은 중간 공사점검과 국내팀들의 공사 지원으로 외벽 및 지붕을 완성할 수 있었다. 9월에서 10월에는 내부미장, 11월에는 내부공사 및 마무리작업을 끝냈고 마침내 2004년 12월 완공하여 2005년 개관할 수 있었다. 사업 초기에는 모잠비크의 무더위로 공사가 잠시 연기되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후 5월 기초공사, 6월 이후 본격적인 공사를 가동하여 무사히 공사를 마쳤다.

병원건물에는 대한민국 KOICA의 후원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사실을 명



2005년 개관한 니시병원의 머릿돌

시했다. 이 병원을 짓는 데 동서문화개발교류회는 총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했으며 그중 KOICA로부터 3,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모잠비크 정부에서도 니시지역 31만 5,000평의 땅을 제공하여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줬다. 또 의사 및 간호사 1명을 파견했으며 기본 의약품도 지원해주고 있다. 본회는 병원을 세운 후 현지인에게는 한국돈으로 50원의 진료비 실비를 받고 진료를 해주고 있으며 극빈자에게는 무료치료 쿠폰을 지원했다.

이같은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현지 의사와 간호사의 척박한 의료기술 수준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에서 의사를 파견하여 현지 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원활하지 못한 약품 공급 역시 지속적으로 한국에서의 약품 후원을 유도해 보강해나갔다.

병원의 건축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었던 니시지역과 근교 7개 지역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의료의 기회가 주어진다 는 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니시지역과 근교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관, 각 마을의 추장들과 주민들도 적극적인 참여에 앞장서고 있다.

모잠비크는 유아사망율이 25%에 달한다. 그 이유는 잦은 기근과 불결한 위생으로 유아가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을 통해 미혼모들을 돌볼 수 있었고 AIDS와 각종 성병을 예방하고 가족계획과 질병 예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여성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특히 병원에는 산부인과와 분만실, 소아과 시설까지 갖춰져 있어 지금까지 200명 이상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출산되었다.



병원 준공식 모습



니시지역의 병원 완공은 365일 24시간 진료의 길을 열었다

장마철이 되면 도로가 끊기어 환자들이 죽어가는 상황이었던 니시는 이제 병원을 통해 365일 24시간 응급진료 체제가 가능해졌다. 이 작은 병원 하나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119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잠비크에 희망을 안겨준 니시병원 종사자들과 함께

기관명	동서문화개발교류회(East-West 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Council, ECC)	
단체 소개	세계 각지의 대규모 재난발생지역의 피해 복구 및 자립을 돕고 국가간 우의를 증진하며 제3세계에 선진기술 보급을 지원하고 문화시설 등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각국에 친취적 창의적 봉사 정신을 심어줘 국제평화와 상호교류 증진에 기여한다. 몽골, 인도네시아 등에 지부가 있으며 KOICA의 지원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모잠비크, 몽골,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명	모잠비크 보건 및 의료지원사업	
사업기간	2004. 1~2004. 12	
사업대상	니시지역 중심반경 50~60km 8개 마을, 약 3만 여 명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의촌 지역에 병원(보건 진료소) 건축 • 응급환자(사고, 질병, 출산 등) 발생 시 신속히 조치 • 각종 전염병에 대한 방독 및 예방 교육 활동 전개 • 각종 질병에 대비한 보건 교육 실시 • NGO 활동을 통해 모잠비크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에 대한 영향 및 효과: 의료 시설을 갖춰 새로운 환경제공과 수질 개선 • 여성에 대한 영향 및 효과: 성교육 부재로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는 미혼모들의 보호와 각종 성병 예방, 여성복지 관련 교육 시행 • 수혜자(지역주민, 기관 및 국가)에 대한 영향 및 효과: 무의촌 혹은 교통 불편 지역에 의료시설을 건축하여 주민의 편의 도모/응급환자(사고, 질병, 출산 등)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인명피해 최소화/각종 전염병의 예방과 교육/ AIDS와 각종 성병에 대한 예방교육과 함께 가족계획과 질병 예방 교육 	
업무분담	KOICA	우물 169개 건축
	동서문화개발교류회	우물 53개 건축, 보건위생 순회교육, 수질관리 교육
	수원국	부지 제공 및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지속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설계, 준비(2004. 1)/기초공사에 필요한 준비 및 재료 구입(2004. 2~3)/병원 착공(2004. 3)/별목, 길조성, 나무뿌리 제거, 땅 다듬기(2004. 4)/기초공사 시작(2004. 5)/외벽공사(2004. 6)/중간 공사 점검 및 국내팀 공사 지원, 외벽 및 지붕 완성(2004. 7~8)/내부미장(2004. 9~10)/내부공사 및 마무리 작업(2004. 11)/병원 완공(2004. 12) 	



쓰나미를 넘어서다 희망의 칼루타라

스리랑카 희망의 새마을 만들기(쓰나미 재건축택 건립사업)
새마을운동중앙회



스리랑카의 2004년 12월은 참으로 가혹한 시간이었다. 인도네시아 인근에서 발생한 쓰나미는 서남아시아의 섬나라 스리랑카를 덮치면서 수많은 재산과 인명을 앗아갔다. 글로벌시대에 지구촌 저편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이다. 이에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속히 모금을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은 텐트와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는 긴급구호보다는 추후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추이를 지켜보며 기다렸다.

보다 정확한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 몇몇 외국 NGO들은 벌써 집을 짓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는 스리랑카 정부에 요청하여 작은 부지를 얻었고 집을 지을테니 기반시설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칼루타라 지방정부가 손을 쓸 수 없다고 하여 협상 과정에서 시간을 놓쳐 결국 MOU(양해각서)를 맺고 받아 놓은 부지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해안가 주민들의 고통스런 시간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다시 스리랑카로 달려가 한인회의 도움으로 칼루타라 지방정부와 협상 끝에 제2차 부

지를 얻어 다시 MOU를 맺고 사업을 착수했다. 부지는 해안에서 내륙으로 8km 정도 떨어진 정글지역이었다.

현지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했으나 속이 터질 정도로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더군다나 많은 나라에서 집을 짓고 개인들도 새로 집을 짓는 관계로 자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였다. 비가 오거나 인부들이 나타나지 않아 시간을 허비하기도 일쑤였다. 공사기간 내내 현장을 지키며 독려하며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정글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고는 전혀 없어 기초공사부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주민들이라도 있으면 같이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정부는 아직 입주자를 선정치 않고 완공 후 차례대로 대상자를 선정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예정보다 긴 시간을 허비한 후에야 1차 22가구 공사를 완



SMU 2세대 1주택



SMU 입주주택에 문패를 달았던 모습

공할 수 있었다. 사실 자금이 부족하여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없는 게 안타까웠는데 마침 KOICA에서 2차 사업비 8,500만원을 지원해 주어 추가로 13가구를 더 지을 수 있었다.

집을 다 짓고 나니 입주 주민들이 선정되었다. 쓰나미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도 황폐해져 있었다. 우리는 우선 이주 주민들이 협력하며 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장에 한국대학생 해외봉사단 30여 명을 투입하여 2주간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처음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주민들은 차츰 우리의 희생적인 봉사활동을 보고 같이 참여하여 꽃길도 만들고 물고랑도 만드는 데 함께하기 시작했다. 입주자들도 그들의 이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처음인 상태로 왔고, 많은 것이 부족하기만 하여 무척 마음을 열기가 힘



SMU 준공식에 참여한 현지 주민들(왼쪽)과 참석자들(오른쪽)

들었을 것이다.

우리의 사업방식은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한 사업인데 쓰나미 재건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을 지어주고 열쇠를 주는 사업이 되고 말았다. 대다수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과 KOICA, 새마을운동중앙회에 감사해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선진국 사람들이 지어주는 집인데도 오히려 집이 좁고 부족한 것이 많으며 물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하기도 했다. 사실 주민의 힘이 더해져 같이 마을을 만들었다면, 그들의 땀과 노력이 들어갔다면 보다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우리도 아쉬움이 많았다.

그러나 쓰나미 재건주택 사업은 나름대로 성과가 컸다. 한국인 특유의 속전속결로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만들어낸 주택을 보고 정부와 주민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인근 다른 공사현장의 지지부진한 진척에 비하면 너무도 빠른 기일 내에 목표를 달성해냈기 때문이다. 때마침 쓰나미 현장을 답사하러 온 국회 특위의원(김명자, 정의용)과 대사님도 만족해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희망을 잃었던 주민들은 우리의 사업현장을 지나갈 때마다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일부 주민들은 그 마음을 눈물로 표현하기도 했다. 마을 입구에 세워놓은 '희망의 새마을 만들기' 간판은 진짜 희망을 가져다준 상징으로 주민들이 사진 찍는 명소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스리랑카 정부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이 제일 크다. 다른 개도국에서의 사업 전체가 주민 참여였는데 스리랑카 현장에서는 적용될 수 없어서 더욱 그랬다. 돌이켜 평가해보자면 자칫 주민들에게 의타심만 안겨준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을 얻었으므로 향후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내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것이다.



2005년 10월 스리랑카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smu 대학봉사

하지만 스리랑카 칼루타라 지역에 만들어진 '희망의 새마을'은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보금자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었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자부심과 보람을 안겨주었다.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향상되었고 성숙하고 존경받는 국가의 역할을 해냈다고 본다. 쓰나미로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들이 칼루타라 언덕의 새마을에서 빠르게 치유되고 보다 높이 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주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관련 통계 자료**

유니세프 <http://www.unicef.org>

기관명	새마을운동중앙회	
단체 소개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 1980년 12월에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 국가의 무형자산인 새마을운동을 영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2011년 4월 22일 새마을운동 41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법률로 국가기념일 '새마을의 날'을 제정했다.	
사업명	스리랑카 칼루타라 "희망의 새마을 만들기"(쓰나미 재건주택) (Construction of New Village for Hope)	
사업기간	2005. 11. 1~2006. 6. 30 (8개월)	
사업대상	스리랑카 칼루타라 아따위라와따 주민 200여명	
사업목표	쓰나미로 인하여 집을 잃은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을 건립하여 제공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정착촌을 만들어 상호 의지·협력할 수 있는 터전제공 • 어려움에 처한 스리랑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서 국가브랜드 향상 기대 	
업무 분담	KOICA	주택 13가구 건축비 제공
	새마을운동 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18가구, 회관 1동 건축 • 대학생해외봉사활동 2회 60명 • 교육, 홍보 및 활동 평가 등
	수원국	부지제공 및 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지속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남아시아에 거대한 지진해일 발생(2004. 12) • 새마을지도자 모금 시작 (재건주택 계획수립)(2005. 1. 5) • 현지조사(2005. 9. 6) • 스리랑카 정부(쓰나미주택재건단) 부지 기증(2005. 9. 13) • 스리랑카 정부와 1차 MOU(양해각서)체결(2005. 10. 27) • 한국국제KOICA 2차사업 지원(2005. 11. 29) • 2회에 걸쳐 대학생해외봉사단 현지 투입(2005. 12., 2006. 7) • 국회 스리랑카 특위위원 현장방문 (2명)(2006. 3. 21) • 주택 준공식 및 전달식 (33가구, 1회관)(2006. 6. 7) 	

밝은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을 위한 첫걸음

수단 통합 아동보호 및 개발사업
플랜한국위원회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나라로 고대 이집트 이전부터 찬란한 문명과 역사를 꽃피웠던 나라 수단. 그러나 정부군과 수단해방군 간의 내전과 기아, 가난, 전염병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위태로움을 겪고 있는 상처가 많은 나라가 수단이다.

2009년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에서 발표한 HDR(Human Development Reports: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수단은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이 1,000명 당 109명으로 194개국 중 154위로 나타났다.(2008년 기준) 특히 수단의 수도 카르툼에서 660km 이상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코르도판 북부 지역의 외딴 두 마을, 순트와 다마오키아 마을의 5세 미만 아동은 53.3%가 영양실조 상태로 위생 상태도 열악하여 30.6% 정도만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아이들은 영양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우기 동안 물을 모으는 용덩이의 모기와 파리 같은 열악한 위생 상태는 아이들의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움쿨툼, 7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

플랜한국위원회는 KOICA의 지원을 받아 이렇듯 도움이 필요한 순트, 다마 오키아 2개 마을 5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생존 및 성장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한 부분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타민 A, 요오드, 철분 등 5세 미만 아이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영양제를 제공하고,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필수적인 6가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백신과 저장 냉장고를 지원했다.

또한 말라리아로 인한 아동 사망을 예방하고자 지역 내 소독을 실시하고 살충제가 함유된 방충망을 각 가정에 지급하였으며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의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안전한 분만을 돕기 위해 마을의 산파들에게 필요한 의료기구와 약품을 제공했다.

특히 ECCD 센터 지원 사업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질병 및 영양과 관련된 건강관리와 더불어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을 위한 교육을 통합적



ECCD 센터 전경(다마오키아마을)



블록놀이를 통한 미술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

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미 1996년부터 플랜의 활동지역이라면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하고 핵심적인 지원 사업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공부하던 곳은 지푸라기로 만들어져서 바람이나 동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울타리가 없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너무 불안해요. 우리가 공부하는 공간이 좀 더 안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라샤, 9세)

순트와 다마오키아 2개 마을의 아이들은 기본적인 건강 유지는 물론 충분한 영양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교육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안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화장실이나 놀이터 같은 기본 시설 또한 갖춰지지 않아서 아동의 정서적 성장과 인성의 발달, 지식의 습득, 사회적 활동에 있어 매우 중



신생아체중계와백신등의약품들



신생아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

요한 시기를 그냥 방치된 채 보내고 있었다.

이에 플랜한국위원회는 KOICA와 함께 순트와 다마오키아 2개 마을에 ECCD 센터를 건립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아동개발이 이뤄지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다. 수단 정부도 ECCD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ECCD 센터에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를 준공무원화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백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ECCD 센터는 2개 교실과 교무실, 아동 교육용 자료 보관실과 의무실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칠판, 의자, 책상, 게시판 등을 구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완구용 피아노와 블록 그리고 그림도구를 제공하여 음악과 미술 시간을 진행하고 미끄럼틀과 그네 등도 설



그네를 타는 아이들

치해 체육교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각 1개의 물탱크와 식수대, 화장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및 위생 시설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두 개 마을 196명의 부모에 대해 8일 동안 설사병 등의 기초 의학지식과 모유수유, 아동 영양, 일반 의학지식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으며 매월 2회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이론과 함께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도 진행했다. 더불어 ECCD 센터의 5명의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아동보육 및 언어교육 등에 대한 기초 학습법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지역 보건 관련자를 위한 기초 응급처치 및 백신접종방법과

소아마비 등 기초 예방 백신 미접종에 따른 질병에 대한 예방법, 백신과 약품의 보관에 관해 교육 역시 병행되었다.

“예방주사의 중요성에 대한 건강 교육은 우리 지역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 오고 있어요. 이제 어머니는 절대 빠뜨리는 일 없이 자녀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킵니다.”(인티사르, 12살)

“면역, 영양, 응급치료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을 받았고, 이는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건강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쁜 질병들이 확산되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파티마, 38세)



ECCD 센터 전경(순트 마을)

KOICA의 지원을 통해 설립된 ECCD 센터는 교육과 기초의료의 지원이라는 두 가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을 하나로 묶는 공동체 공간을 제공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전한 ECCD 센터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부모들과 교사들은 유아기 시절의 교육이 아이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중요성도 아울러 깨달았다.

이제는 미래를 위한 꿈을 꿀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 수단의 아이들. 이들이 어른이 되면서 수단의 미래는 저 아프리카의 태양보다 더 밝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수단의 미래가 이곳을 비추는 햇빛보다 더 밝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관련 통계 자료

HDR (인간개발 보고서) <http://hdr.undp.org>

기관명	플랜한국위원회	
단체 소개	플랜한국위원회는 비영리, 비종교, 비정치 국제개발단체로 48개 저개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37년부터 CCD(Child Centered Community Development: 아동 중심 지역 개발)를 시행하여 환경개선사업, 보건위생사업, 교육사업, 생계유지사업, 문화교류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가능성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명	수단 통합아동보호 및 개발사업	
사업기간	2005. 1~2005. 12	
사업대상	수단 North Kordofan 지역 내 숄트 & 다마오키아 마을	
사업목표	전쟁과 기아,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North Kordofan 지역 내 2개 마을의 1~9세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통합 아동 보호 및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아동 생존, 성장, 개발에 지속적인 도움 제공	
기대효과	필수 영양제 제공, 예방 백신 접종, 해충 구제 등을 진행하여 직접적으로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ECCD를 건축하여 식수와 위생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아동의 정서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부모와 교사, 지역 보건 관련자를 교육시킴으로써 스스로 개인 및 주변 환경의 청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나아가 정부 및 관계자의 지원 유도	
업무분담	KOICA	필수 영양제 및 예방 백신 등 제공, ECCD 센터 건립 및 필요 시설 설치
	플랜한국위원회	영양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응급처치 교육, 지역 사회 내 홍보 및 활동 평가 등
	수원국	부지무상제공 및 노동력 제공,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지속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건강증진 프로그램 진행(2005. 5~12) • ECCD 센터 건립 및 필요 시설 설치(2005. 5~7) • 부모, 교사, 지역 보건 관련자에 대한 교육 (2005. 5~12) 	

2004년 참혹했던 쓰나미, 그 이후

인도네시아 쓰나미지역 질병예방·치료 및 보건교육사업 및
양·한방 클리닉 개설 및 무료이동진료사업
글로벌케어



사람들은 누군가 지금 바로 옆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하여도 자신의 일이 아닌 이상 진실로 그 아픔을 공감하기 힘들다. 그저 현재 나의 고통을 덜어주는 비교 대상이거나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로만 치부하기 쉽다. 하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삶 또한 우리 옆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연재해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자연의 폭력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피해 지역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지만 이내 곧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그 고통의 참상을 잊게 마련이다. 그러나 재해지역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쪽 서부해안에서 리히터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기록적인 지진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은 쓰나미의 피해를 입었다. 진앙지에서 고작 250km 떨어진 인구 30만의 도시 반다아체는 쓰나미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은 곳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2008년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쓰나미로 발생한 22만 5,000명 이상의 사망자 가운데 15만 명의 사망자가 아체주에서만 나왔다고 한다. 45억 달러(약

5조 9,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 규모는 아체주 1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8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이전까지 생소했던 지진해일 혹은 쓰나미는 2004년 이후 인류에게 공포를 안겨주는 단어가 되었다. 수마트라섬 북부에 위치한 아체주는 오랜 기간 정치적 분쟁지였으며 2002년의 평화회담이 깨진 후 아체반군과 인도네시아 정부군과의 내전이 한창이었기에 2004년 겨울 쓰나미로 인해 폐허가 된 아체주는 복구 물자조차 제대로 조달되기 힘든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글로벌케어는 2005년 1월부터 아체주 뜨눔지역에서 쓰나미 긴급구호 사업을 시작했다. 아체주 주도 반다아체에서 150km 떨어진 뜨눔은 곳곳마다 시체가 널려 있고 건물의 잔해 사이로 길이 끊겨서 교통이 마비된 상태였다. 사상자가 집중된 지역이었기도 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기 힘들어 쓰나미의 복구과정은 더디기만 했다. 때문에 더욱 해외구호활동이 절실했다.



아체주 초등학교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그늘을 찾아보기 힘들다

2005년 1월부터 시작된 긴급의료구호 활동 중에 구호단은 어린이 문제가 심각함을 알게 되었다. 사상자의 구호에만 몰두하던 어른들이 생각도 못한 사이에 어린이들은 영양불균형의 상태가 되어갔다. 아이들의 문제는 한 지역의 미래를 담보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2005년 4월부터 바로 어린이 영양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하지만 자원과 인력문제에 있어 긴급구호팀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문제는 어린이 영양실조에 그치지 않았다. 뜨눔지역의 50% 이상의 사람들이 말라리아, 티프스, 뎅기열, 피부병 및 기관지천식에 감염되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케어는 KOICA에 사업을 신청했고 KOICA의 조속한 결정으로 어린이 영양프로그램을 총괄적 지역보건사업으



양·한방 클리닉의 약창고, 현지직원과글로벌케어 단원의 사진, 직원 뒤로 글로벌케어와 KOICA의 이름이 보인다



아체주 초등학교에서 진행한 보건교육.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지의 의사가 교육을 진행하였다

로 전환할 수 있었다.

사업은 인도네시아 환경단체인 OPPUK(Organisasi Penguatan dan Pengembangan Usaha-usaha Kerakyatan)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총괄진행은 글로벌케어에서 맡았으며 KOICA는 국내외의 지원 및 글로벌케어 인건비와 행정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를 지원했다. OPPUK에서는 현지 인력 및 행정업무 전반을 맡았다.

KOICA 지원사업으로 변환한 뒤 사업은 어린이 영양프로그램과 지역보건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진행되었고, 지역보건프로그램은 다시 보건교육과 이동진료로 나뉘어졌다. 초등학교에 영양식단을 제공하는 사업에 가장 고마워했던 사람은 학교장들과 부모들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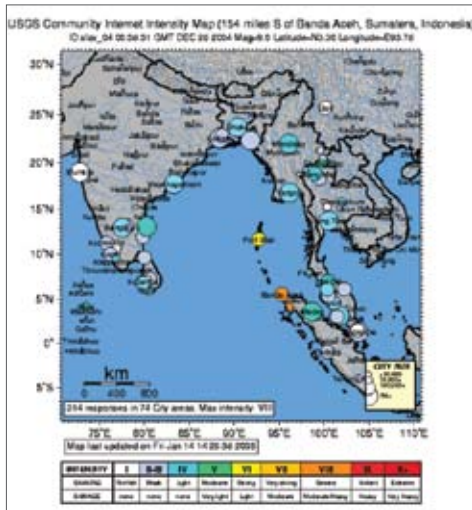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역시 감사했다.

지역보건사업의 경우에는 아직 교육수준이 낮아 질병 치료를 수술에 의존하다가 병을 키우는 일이 잦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때문에 KOICA와 단체의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온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홍보와 치료를 병행하였다. 효과는 의외로 금방 나타났다. 300여 명의 노인분들에게 안경을 맞춰드리자 수십 년 동안 뿌연 세상을 보며 살아온 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대한 인식 역시 새롭게 바뀔 수 있었다.

‘쓰나미지역 질병예방·치료 및 보건교육사업’이 종료될 즈음에도 여전히 주민들은 몰려들었다. 의료뿐 아니라 모든 인프라가 무너진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내·외과 수술은 물론 예방사업과 어린이 영양문제 등 많은 문제



양·한방 클리닉을 건축하기 전 양·한방 진료를 진행했던 클리닉. 클리닉 표지판 밑에 OPPUK, Globalcare 로고가 보인다



☆표가 진앙지이다. 색깔은 지진피해 정도로, 빨간색으로 갈수록 강하다. 반다아체는 지도 중간중간의 주황색표시가 된 곳이다

를 해결하기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더 안전하게’, ‘더 완벽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하던 구호팀은 2006년 5월부터 양·한방 클리닉을 계획하였다. 클리닉은 의료서비스의 베이스캠프가 되어줄 뿐 아니라 구호팀이 떠난 뒤에도 지역 내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다. 2006년 당시만 해도 양·한방 협진은 아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었다. 하지만 KOICA는 현지사정과 양·한방 협진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연장사업의 개념에서 클리닉 개설비와 의약품을 지원했으며 프로그램 개발에도 함께했다. 그 결과 그해 10월부터는 클리닉이 문을 열었고, 하루 30명씩 진료가 시작

됐다. 7월 17일부터 진행해오던 양·한방 협진의 결과는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 외국인들은 한의학 특히 침에 대해서 거부감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한국 드라마 <대장금>의 인기가 높아 한의학은 이미 알려져 있었고 이에 대해 관심도 높았다. 2007년 2월까지 실시한 양·한방협진을 통해 월 900여 명, 총 6,000여 명이 진료를 받았고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도 구비했다. 지역 주민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무료이동진료사업과 고혈압과 당뇨 등 지역 내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교육도 실시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를 돌아해보면 아체주 뜨놈은 지역 내 모든 기반이 무너진 무정부상태였다. 도로 사정, 번덕스러운 날씨, 쉽지 않은 의사소통, 우리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현지인들의 고통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 모든 것이 불안정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갔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조차도 명확치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들과 관계를 맺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현지에는 인도네시아 환경단체인 OPPUK가 활동하고 있었다. OPPUK은 아체주가 있는 북수마트라섬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비정치권 시민운동단체이다. OPPUK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현지 인력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비슷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 간의 기본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아동 영양사업과 지방 풍토병 보건교육이 시작되었다. 1만 2,000명의 병력카드가 작성되었고 양·한방 클리닉사업까지 진행되었다.



양·한방클리닉 앞에서 글로벌케어 단원들과 친하게 지내던 주민들이 함께 찍은 사진. 앞줄 노란 옷에 현수막을 들고 있는 사람이 강영건 글로벌케어 실행위원, 그 뒤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이 김순남 대표이다

긴급구호클리닉에서 시작한 양·한방 클리닉은 현재 자립하여 지역 내 의료 서비스의 거점으로 또한 침술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의 초기부터 함께해온 유재정 한의사는 그곳에서 직접 침구사를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짧은 시간 동안 아픔을 조금 덜어주고자 했던 활동은 끝이 나고, 다시 사업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슬픈 노래만 올리던 땅에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관련 통계 자료

OPPUK <http://oppuk1.blogspot.com>

브루킹스연구소 <http://www.brookings.edu/>

기관명	글로벌케어	
단체 소개	글로벌케어는 한국을 본부로 해외에 지부를 설립하여 국내외 긴급구호 및 열악한 의료환경개선과 지원 등의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최초 국제의료구호 기관이다. 현재 KOICA의 지원으로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2011년 기준)	
사업명	쓰나미지역 질병예방·치료 및 보건교육사업	
사업기간	2005. 10 ~ 2006. 8	
사업대상	아체주 뜨놈지역 현지지역민 1만 2,000명 대상자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체주 뜨놈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제공 • 건강증진 및 연속사업을 통해 한국-인도네시아 관계 우호 증진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체주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 조성 • 국가적 이미지 제고 -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수혜 대상국에서 지원국으로 가는 변화에 동참 - 의료서비스를 통한 한국의 국제협력의지 홍보 	
업무분담	KOICA	프로그램 협력, 사업비 지원
	글로벌케어	프로그램 총괄진행
	수원국	현지 의료진, 행정 인력 지원
사업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나미지역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 사정평가(2005. 3) • 아체주 뜨놈지역에서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 실시(2005. 4) • 뜨놈지역 질병예방치료 및 보건위생교육 프로그램 사정평가(2005. 9) • 뜨놈지역 질병예방치료 및 보건위생교육 프로그램 실시(2005. 12) • 뜨놈면 지역 질병예방치료 및 보건위생교육 프로그램과 어린이 영양사업 진행(~2006. 8) 	



KOICA
민간단체 지원사업
성과사례

2006~2009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민족복지재단

한중미래숲

유엔인권정책센터

팀앤팀인터내셔널

굿피플인터내셔널

한국월드비전

국제옥수수재단

한국헬프에이지

아름다운 희망의 씨앗

몽골 울란바트르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길고 두꺼운 외투, 무릎까지 오는 털장화, 털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둘둘 감고 두 볼은 빨갛게 언 태반(12세)과 바산(10세) 자매는 메리워드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되는 배우기교실과 한국어 공부를 위하여 2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바양허쇼에서 매일 걸어온다. 유난히 긴 겨울과 영하 20~30도를 넘나드는 추위에도 이 아이들을 여기까지 이끈 건 무엇이였을까?

센터 안, 작은 강의실에 20여명 남짓한 청년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 청소년미래연대 대표인 머기(20세)와 청년들은 지구시민교육 준비를 위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센터의 지하 공간에는 몽흐(21세)가 어린이 스카우트 대원들과 함께 헌 옷가지를 정리하며 싱글벙글 하고 있다. 혹한의 추위에 유목민이 키우는 어린 송아지나 양들을 위해 입힐 옷이란다.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다녀온다면서도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다. 무엇이 이들을 이곳으로 이끌었을까. 나는 이들과 무엇을 꿈꾸고 있는 걸까.

2004년 본부와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메리워드청소년센터는 울란바트르 시내 변두리에 위치한 몽골 주교좌성당에 도서관을 시작하였다. 시골에서

유목을 하다가 한파로 인해 가축을 잃고 더 이상 살아가지기가 어려워 무작정 도시로 이주해 온 유목민들이 모이기 시작한 성당 주변은 가난한 도시빈민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곳에 들어선 도서관은 가난한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몽골 빈민지역의 주거형태는 전통가옥인 원룸형태의 게르나 작은 판잣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게르의 작은 방 하나는 다목적 공간이며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잠을 자고 음식을 만들고 씻고 손님을 접대하는 등 모든 생활을 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온전히 공부만 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1990년 초 민주화와 개방 이후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이 끊기면서 몽골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출판업계 또한 매우 영세하여 출간 도서의 가격은 너무나 비싸다. 도서 가격이 보통 1권에 일만 투그릭(한화 약 1만 2,500원) 정도로 보통 근로자의 한달 임금(한화 약 20만원)의 1/10에 해당할 정도



메리워드청소년센터의 지구시민교육

이니 도서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도서 제공은 청소년들의 교육에 있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었으며 도서관 개관과 함께 수많은 학생들이 찾아 왔다.

메리워드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울란바트르 시 내에 지상 4층(12m×24m) 건물을 매입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센터를 6개월 정도의 내부수리를 마치고 2006년 1월에 문을 열었다. 이 센터에는 지역아동을 위한 학습 공간 및 시골 출신으로 울란바트르시 소재의 대학을 다니는 저소득층 여대생을 위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한 몽골사회에 미래의 책임감 있는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하고 있다.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 윤리관 확립 및 바람직한 생활습관 훈련과 미래 설계를 위한 교육, 공동체 의식, 나눔 등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2007년부터 KOICA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청소년 및 빈곤 지역주민들을 위



스카우트 활동을 하는 빈곤지역 청소년들

한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칠 수 있게 됐다. 현지의 수요에 따라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을 열어 공부할 장소와 도서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였다. 또한 아동, 청소년들에게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업 및 특별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적, 문화적 성장을 돕고 있다. 아울러 주인 의식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 청소년들 중 도우미를 선발하여 사업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메리워드청소년센터는 또한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목욕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를 받아들여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다. 지역 동사무소, 구반장, 센터 등과도 협력하여 최빈곤층 지역주민 30가구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보람되고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로는 인성적 교육과 지도자 교육을 지원하여 학생 동아리를 창단한 점을 꼽을 수 있다. 동아리 소속 학



매일 배우기 교실에 참여하는 테반과 바산(맨 오른쪽 앞뒤)



청소년미래연대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생들은 자발적으로 노숙자 무료급식 사업 등을 전개했다. 현재는 이 모임이 자신과 몽골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미래연대'로 발전하여 몽골인들이 몽골인을 돕는 자조활동의 근간으로써 청소년 NGO 조직을 출범시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매년 학교를 방문하여 미래설계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몽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몽골은 러시아 공산혁명과 1990년대 대외 개방정책을 펼치면서 몽골 민족의 전통문화와 윤리관이 상당 부분 무너진 상태다. 이제 조금씩 그들 안에서 변화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하겠지만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고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기에 몽골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 희망해 본다.

아직은 새로운 시작이요 씨를 뿌리는 시기이다. 그러나 그 씨는 풍성한 열



여대생 기숙사

매를 맺을 것을 안다. 흑한의 한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며 빨간 볼에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센터의 문을 들어서서 청소년들 안에서 몽골의 미래를 보는 것처럼 몽골 청소년들이 흐려진 의식을 깨우치고, 자신들의 훌륭한 전통을 되찾아 그 전통을 바탕으로 건강한 몽골사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행복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영하의 날씨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많은 몽골의 청소년들이 왜 이곳을 찾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사람이 희망이라는 것을 느낀다. 몽골 안에서의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기관명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단체 소개	1988년에 설립된 가톨릭 NGO다. 본부의 비전과 미션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등을 초월하여 인간의 발전을 위하여 삶의 질을 높여 모든 생명을 살리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 NGO로서 국내외의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구촌의 빈곤퇴치를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외에 지부를 두지 않고 현지의 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KOICA지원으로 2007~2011년도 사업을 수행중이다.	
사업명	몽골 울란바트르 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사업기간	2007. 1 ~ 2011. 12	
사업대상	시골에서 상경하여 울란바트르시에서 대학을 다니는 여대생 약 20여명, 울란바트르시 청소년 약 1만명 바양주르흐구 13동~14동 지역주민생계지원대상자 150명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란바트르지역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도자 양성 • 바양주르흐구 빈곤층 청소년을 위한 교육 역량 강화 • 청소년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증진 • 빈곤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기대효과	울란바트르 지역 청소년들이 사회변화의 주체로서 올바른 인식과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도자로 양성	
업무분담	KOICA 사업비 지원, 모니터링 및 평가, 현지사무소를 통한 현지 정부와의 중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업진행협력, 인력파견, 사업진행 점검 및 협의, 모니터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지원, 언론 매체 홍보
	메리워드청소년센터 현지사업진행, 인력파견, 사업에 대한 인식증진 활동 및 홍보, 지역 정부와의 협력, 지역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사업비 지원, 수혜자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사업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수수도회의 현장방문 실사조사 및 준비(1999) • 몽골에 활동가 파견 후 현지 교육 2년 실시(2002) • CCM 도서관 개관 및 메리워드청소년센터 구입(2004) • 몽골 지방 여대생을 위한 소규모 기숙사 운영사업(2005) • 몽골 정부로부터 메리워드청소년센터 운영 허가 취득(2006) •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사업협력 시작(2006) • KOICA NGO 지원사업 수행(2007~2011) 	

교육이 희망인 나라 캄보디아

캄보디아 프놈펜 삼부키부안마을 극빈층 아동케어사업
한민족복지재단



킬링필드의 아픔을 가진 나라, 캄보디아. 독재정권에 의해 1975년부터 3년 동안 인구 800만 명 중 무려 2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지식인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살해당해 교육체제가 완전히 파괴된 슬픔을 간직한 나라다. 아직까지도 가족관계를 묻는 것이 금기시될 만큼 킬링필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고 빈곤의 대물림과 질병, 장애의 악순환, 교육의 부재라는 후유증을 남겼다. 이것이 바로 캄보디아가 '앙코르와트'와 같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더딘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킬링필드 이후 일어난 베이비붐 현상으로 캄보디아는 18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될 정도로 젊은층이 두텁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가난을 극복하고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전략으로 꼽히고 있다. 때때로 그 중요성은 강조 차원을 넘어서 비장함마저 느끼게 한다.

한민족복지재단(이하, '재단')의 사업장이 위치한 프놈펜시 외곽의 삼부키부안마을은 90년대 캄보디아의 도시정화사업에 따라 도시 중심에서 쫓겨난

빈민들이 시 외곽으로 몰려나오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300여 가구 극빈층 주민들은 대부분 일용잡부로 건설현장, 오토바이 운전수, 가정부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 자녀들은 위생과 영양 상태가 매우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다.

마을에서 2~3km 떨어져 있는 촘푸반 초중등학교는 총 6,000명의 학생이 다니는 큰 규모의 학교로 대부분의 마을 아동들은 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캄보디아에서의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아동들의 학교 입학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학력이 낮고 생계활동에 바쁜 부모들이 아동들의 공부를 거의 관리해주지 못하다 보니 학업능력이 다른 지역의 아이들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안일을 돕고 동생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출석률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또한 캄보디아에서는 의무교육이라도 초등학교 등록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정규과정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면 학



KOICA의 지원을 받아 시작된 아동케어센터



천정에 달아놓은 아동들의 종이접기



건축중인 아동케어센터 부속시설

교수업 이외에 영어나 컴퓨터 등을 배우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제대로 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특별한 기술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학교를 떠나 공장이나 다른 일터에 나가 일하다 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저임금에 육체적으로 고된 단순노동뿐이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영어나 컴퓨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과목이나 기술을 배우게 된다면 훨씬 더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재단은 캄보디아지부를 통해서 캄보디아 보건복지부, 외교부와 협약을 맺고 KOICA의 지원을 받아 2007년부터 삼무키부언마을에 아동케어센터 및 청소년복지관을 운영하게 되었다. 아동케어센터에서는 철거난민 자녀 60여명을 대상으로 매일 두 끼의 식사와 영양제 및 기초교육을 제공했다. 아동들은 아침마다 마을을 순회하는 트럭을 타고 9시경 센터에 도착하는



아동케어센터에서함께 식사중인자매



아침을먹지못한아동들의허기를달래주는두유와빵



식사를기다리며줄을선아동들

데, 대부분 아침을 굶고 오기 때문에 빵과 두유로 허기를 달랜 후 수업을 시작하곤 했다. 오전에는 크메어, 산수, 영어, 미술, 음악과목을 돌아가면서 배웠고, 점심식사와 낮잠 이후 시간은 놀이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아동케어센터에서는 매주 월요일 손톱관리, 식사 전 손씻기 훈련, 두발관리를 실시하여 아동들이 위생관념을 체득하도록 도왔다. 아이들 중에는 머리에 이나 쇠가리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센터에서 매일 머리를 감아 일시적으로 사라져도 집에 갔다가 또 옮겨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속적인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매일 1회 종합영양제를 제공하고 분기별 1회 아동과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구충제를 투여해서 기생충 감염과 영양결핍도 해결하려 했다. 또한 개인 못 지않게 센터 전체의 위생관리도 이루어졌다. 비위생적이었던 기존의 조리방식(예를 들면 마늘의 껍질을 벗기지 않고 찜은 후에 대충 껍질을 벗기는 순서로 요리를 했던)을 바꾸어 청결한 식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소년복지관은 아동케어센터와 차량으로 약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



일대일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영어교사

를 잡았다. KOICA의 지원을 받아 컴퓨터 15대, 빔프로젝트, 책걸상, 탁구대, 발전기 등의 교육기자재를 구비했고, 재단 자체적으로 내부 인테리어, TV, 장소임대 및 강사인건비를 부담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어, 컴퓨터 수업을 개시할 수 있었다. 1년에 4차례 분기별로 교육수준을 나누어 개설된 학급을 통해 영어반 110명, 컴퓨터반 127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았다.

처음 영어수업을 실시할 때는 크메르어를 할 수 없는 교사와 영어를 할 수 없는 학생들 사이에 언어적 장벽이 존재했다. 때론 수업의 편의를 위해 통역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수업진도가 빠르고 의사소통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학생들이 교사의 영어를 듣지 않고 크메르어로만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6개월 후인 3분기부터 영어와 크메르어를 적절히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학생들은 교사가 구사하는 영어의 70% 이상을 이해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다.

컴퓨터수업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처음에는 컴퓨터를 켜 줄도 마우스를 사용할 줄도 몰랐지만, 꾸준한 학습을 통해 곧 자신의 생각을 이용해 스

스로 문서를 작성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1년 후에는 고급단계인 포토샵 과정까지 수료할 수 있었다.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간 개인차가 나기 마련인데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도와주며 자발적으로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는 흐뭇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수업태도나 공부방법 등이 몸에 배어 있지 않아 이를 제화하는 데 오랜 시간과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했다. 일례로 어떤 학생은 필기도구를 나눠 주어도 전혀 사용할 의지가 없었고 매 수업마다 항상 필기를 하지 않을 만큼 무관심했으며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당연히 교사로부터 꾸중을 듣는 일이 많아졌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함께 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교사는 이 학생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숨은 이유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꾸중 대신 친절과 사랑으로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 곧 학생은 오랫동안 닫혀 있던 마음



아동케어센터에는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어 아동들은 필요할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의 문을 열게 되었고 보다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견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성과 위주로 아이를 체근하기 보다는 격려와 칭찬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진심이 통해 가르침과 배움이 더욱 수월해진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컴퓨터 수업에서 포토샵을 배울 때의 일이다. 20개의 포토샵 작업을 다 배운 후 그 중 3개의 작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순서를 외우고 시험을 보도록 했다. 시험이 공지되고 연습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지만 시험을 치르자 아쉽게도 단 한명의 학생만 시험에 통과했다. 거기서 끝마칠 수 있었겠지만 그대로 물러나지 않고 또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게 시간을 준 뒤 다음날 다시 시험을 치렀고 2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또다시 이어진 공부, 그리고 이어진 시험, 마침내 15명의 학생 모두가 통과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학생과 교사 모두가 끈질긴 도전 끝에 자신감과 성취감을 맞본 소중한 경험이었다.

아동케어센터 아이들의 1년간 몸무게가 5kg이상 늘어나고, 아픈 곳이 생기면 이전과 같이 무작정 방치하지 않고 곧장 상주 간호사 선생님을 찾는 것을 보면서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느낀다. 1년간 꾸준히 영어와 컴퓨터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은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맘껏 나라를 떠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모습에 자극받은 또 다른 학생들이 센터를 찾아와 배움을 이어가기도 한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점차 무엇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깨닫고 어렵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당장의 생계보다는 배움의 장으로 아이들을 보내야 한다는 의식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이들이 영어와 컴퓨터 교육을 통해서 제한되었던 자기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계기와 자산을 얻었다는 것이다. 가난과 질병,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삶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스스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 또한 그 자신감과 성취를 통해서 과거의 자신처럼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되었다.

교육을 통한 변화와 발전은 오래 걸리고 그 성과가 쉽게 보이지 않아 절망하기 쉽지만, 그래서 더더욱 필요하고 시간을 늦출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다. 한 나라의 미래를 오늘 먼저 만나보는 것, 그것은 오로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캄보디아의 미래를 오늘 먼저 만나보는 기쁨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 오랜 고통을 이겨낸 유쾌하고 신나는 웃음 속에서 이들과 이들의 다음 세대는 더 이상 킬링필드의 아픔



동물원 현장학습을 통해 아동들은 배움에 관심을 갖게 된다



학습열기로 후끈거리는 컴퓨터반 수업

속에서 기억되지 않고, 소망과 기쁨의 세대로 기억될 거란 확신이 생긴다. 그 멀지만 의미 있는 여정에 한민족복지재단과 KOICA가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또 신뢰할 수 있는 길동무로 함께할 수 있었음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오늘의 우리와 우리나라가 그랬듯 이후에는 우리가 키우고 교육했던 캄보디아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그들의 나라는 물론이고 더 큰 아픔과 절망을 겪었던 또 다른 나라의 희망이 되기를 꿈꾸어본다. 그 작은 씨앗을 지금 여기에서 뿌릴 수 있어서, 그리고 그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지금 우리는 참 행복하다.

기관명	한민족복지재단	
단체 소개	<p>봉사와 섬김의 디아코니아 정신을 실천하며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전세계 속 한민족이 상호 협력하여 민족의 발전과 통일과 번영에 이바지하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NGO이다.</p> <p>1997년 재단 설립 이후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인도적 복지자원과 다문화가족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 등에 힘써왔다.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 빈곤과 재난으로 고통 받는 이웃을 향해서도 섬김과 나눔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p>	
사업명	캄보디아 프놈펜 삼무키부언마을 극빈층 아동케어사업	
사업기간	2007. 1 ~ 2008. 3	
사업대상	프놈펜시 삼무키부언마을 아동 및 청소년 120여명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케어센터 운영을 통한 아동 영양상태 개선 및 위생관념 형성, 기초교육을 통한 초등학교 입학준비 및 바른 인성도모 • 청소년복지관 학생들의 영어 및 컴퓨터 능력 향상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영양실조개선을 통해 인지능력 및 학업성취정도 신장, 나아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 • 청소년 학력신장을 통한 구직, 빈곤 탈피 	
업무분담	<p>KOICA 컴퓨터, 빔프로젝터, 탁구대, 발전기 등 교육기자재 구입, 아동 급식 제공</p>	<p>분담한민족복지재단 TV 및 의약품 공급, 장소임대, 감사인건비 등</p>
	수원국	사업승인, 행정지원, 봉사인력 제공, 교재 일부
사업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NGO로 등록완료(2005. 11) • 캄보디아 외교부 및 보건복지부와 양해각서 체결(2007. 2) • 교육장소 및 교육기자재 등 교육환경준비(2007. 3~4) • 아동케어센터, 청소년복지관 개원(2007. 5) • 아동케어센터 운영(2007. 5~2008. 3) • 청소년복지관 1분기 운영(2007. 5~7) • 청소년복지관 2분기 운영(2007. 7~10) • 청소년복지관 3분기 운영(2007. 10~12) • 청소년복지관 4분기 운영(2008. 1~3) 	



황사 대신 맑은공기를

중국 서북부지역 황사사막화방지 한중우호녹색생태원 조성시범사업
한중미래숲



황사, 사막화라는 말을 하면 흔히 아프리카 혹은 중동을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나라인 중국 역시 엄청난 양의 사막이 있고 사막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사막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황사는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로 기관지염, 천식 등의 호흡기질환, 결막염 등 안질환,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키고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아동에게는 관련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할 위험이 크다. 이는 단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인 한국, 일본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사막의 고운 모래와 푸른 하늘이 자아내는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놓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사막화방지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모래바람이 점점 거세지더니 돌아갈 때 쯤에는 앞을 잘 볼 수 없을 정도로 모래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사막화 문제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꼭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진 순간이었다. 이런 깨달음은 나 혼자만의 것은 아니었다. “비록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어서 생각보다 많은 나무를 심지는 못했지만 그곳에

서 지내는 동안 나무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녹색봉사단 단원으로 중국 쿠부치 사막에서 조림을 하고 온 학생의 말이다.

사막을 그냥 두면 사막화가 가속하여 진행되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한 그루의 나무라도 심는다면 그곳은 생태계가 변한다. 6년 동안 같은 사막을 지켜보면서 나무가 심기면 생태계가 변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의 손길은 생태계까지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매년 조금씩 체험하고 있다.

내몽고 쿠부치 사막은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이다. 농업과 목축을 근간으로 한 초원지역이 점차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 현지정부와 민간인들이 함께 협조하여 사막에 나무를 심는 녹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녹화작업을 통해 중국의 사막화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중국은 사막화의 증가로 황사가 빈번히 발생해 여러 피해를 보고 있다. 일사량이 감소하고 황사가 식물기공에 침적되어 농업분야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가축의 호흡기 질환 등 축산업에 대한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먼지는 정밀사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고 황사에 수반되어 날아오는 중금속과 오염물질은 해양수질에 악영향을 끼쳐 이로 인해 휴고 현상까지 있었다. 이는 미시적인 관점에서만 지켜본 피해상황일 뿐 거시적 관점에서 피해상황을 들여다보면 국가를 초월하는 월경성 문제로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중국의 황막화(荒漠化)와 사막화 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90년대 말 ‘개발이 보호보다 우선’이었던 상황에서 ‘개발과 보호가 대등’한 상황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막화의 전반적인 확장추세는 조금은 속도가 늦춰졌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도 그대로다. 즉 현재 중국의 토지황막화와 사막화의 전반적 추세가 아직도 심각하다는 것은 분명히 짚



2010년 녹색봉사단 쿠부치사막 조림사진



기구에서 관찰한조림후사진

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중국 황막화 및 사막화 현황 공보“ 국가임업국, 2005년 6월)

본 단체의 사업 내용은 조림사업, 사막모래고정사업, 작업임도건설사업, 그리고 기지건설사업과 관리사업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KOICA에서 백양나무, 사막버드나무, 황철나무 5만 그루를 구해 KOICA 생태원 지역에 조림을 하며 모래고정을 위하여 4만 5,000㎡의 토지를 사료로 모래고정을 시킨다. 한중미래숲은 현장을 지도하며, 중국 내몽고 공청생태원에서 시행하는 작업에 관하여 사업계획과 관리를 맡고 있다. 내몽고 공청생태원에서는 사업

을 시행하고 나무가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수작업과 병충해 방제작업을 수시로 시행한다.

이러한 생태원 사업의 결과 사막중심지역에 조림을 하여서 생태계가 복원되어가면서 일반적인 사막모래 입자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성과를 찾아볼 수 있다. 모래 입자가 변하면서 토지에 풀과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조류와 초식류들이 나타나 새로운 사막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아직 전반적으로 쿠부치사막 내에 황사나 사막화가 줄어들었다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현장의 주민들은 사막이 다시 초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으며, 또한 자신들이 살던 초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사업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사막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전기라든지 관수라든지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조림시기에 필요한 묘목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사막에서 작업을 하면서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작업이 지연되거나 작업비보다 차량 수리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기도 했다. 차량이 고장이 난다는 이유로 차량을 임대해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6년 동안 조림사업을 해오면서 주민과 내몽고 인민정부의 신뢰를 얻어서 작업은 수월해지고 있다. 또한 중국 내에서도 모범 사례로 이 사업을 홍보해주어서 현재는 많은 이들이 사막 내 조림사업을 도와주고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주 사막을 돌아다녔다. 사막의 중앙에서 강한 바람으로 30m 정도 깊게 파인 구덩이가 있었다. 그 구덩이 안에서 작은 토기를 발견했는데 사막 중앙에서 발견된 토기는 이 지역이 처음부터 사막이 아니었다는 증거이다. 사람이 살던 지역이었지만 사막화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

던 주거지에서 쫓겨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흔히 아프리카에서나 볼 수 있는 생태난민들이 우리 이웃인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막을 뒤로 하고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사막화에 맞서 초지로 변화시킬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가 더 이상 사막화를 피하기만 한다면 100년 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곳은 점점 더 사라질 것이다.

쿠부치사막의 조림은 다행히 활착률이 70% 이상이다. 우선 사막에 잘 사는 사막버드나무 위주로 심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막 모래의 형질이 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공 이유이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산림녹화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UNCCD(유엔사막화방지협약)총회 유치에 성공하여 2011년 UNCCD 제10차 당사국 총회를 아시아 최초로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파괴 그리고 사막화로 인해 전세계가 고통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막화는 기후 변화를 가속시키고 토지 생산성을 저하시켜 빈곤의 원인이 되는 등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역시 몽골,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인해 매년 경제적 피해는 물론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제 환경은 사업이자 문화이며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다. 이 패러다임의 중심에 사막화방지를 통하여 세계적인 관심과 심각성을 일깨우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사막화 조림은 한중을 떠나 지구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관련 통계 자료

한중미래숲 <http://www.futureforest.org/korea/>
UNCCD COP10 <http://www.unccd.go.kr/main/>

기관명	한중미래숲	
단체 소개	한중미래숲은 2001년 설립된 환경 NGO로서 국제청년교류 및 황사사막화 방지 사업으로 중국 내몽고 쿠부치사막에 조림을 하고 있는 단체로 KOICA의 지원으로 사막화 및 황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물작업과 식목활동을 통하여 UNCCD와 UNEP에 옵저버 자격으로 등록된 단체이다.	
사업명	중국 서북부지역 황사·사막화방지 “한·중우호녹색생태원” 조성시범 사업	
사업기간	2007.3 ~ 2011. 12	
사업대상	중국 쿠부치사막 사막화 황사방지 식수조립사업	
사업목표	사막화의 지속적인 형성을 방지하고 사구가 동쪽으로 확장하고 북으로 이동함을 방지하며 날린 풍진과 모래폭풍의 근원인 모래의 양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 황하(黄河)지류가 휴대한 대량의 흙과 모래의 황하(黄河) 유입을 감소시키며, 영구적인 방풍 및 사막고정의 인공 임지를 조성함으로써 사막이 앞으로 나아가고 사람은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국면을 바꿔 주변의 마을과 도시를 보호, 현지에 양호한 생태환경 마련	
기대효과	조림을 통하여 사막화를 방지, 동아시아에 부는 황사저감	
업무분담	KOICA	5만 그루 조림, 모래고정사장설치, 작업임도
	한중미래숲	조림, 지도교육, 한중청년교류
	수원국	부지제공 및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지속
사업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부치사막에 조림시작(2007. 2) • 중국내몽고 쿠부치사막 조림 협정서 체결(2006. 2) • 내몽고 쿠부치사막 KOICA 기지건설(2010. 5)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라며

베트남 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간은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된 정보는 왜곡되기 쉽다. 결정이 가져다주는 혜택과 손실을 미리 측정하게 되며 좋은 선택이 있다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자유의지인지 혹시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2000년 이후 급증한 국제결혼은 여성들 자유의지로 선택한 결정이니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혼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의 많은 나라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도시 중심으로 발전이 이뤄지다보니 농촌은 여전히 빈곤상태에 놓여있다는 사실이다. 여성들의 경우 교육수준도 높지 않고 어려운 가정형편을 돕다 보니 자신의 인생에 대한 꿈을 꾸기가 쉽지 않다. 스스로 자립할 기회를 가질 기회가 많지 않은 와중에 맞닥뜨리게 되는 유혹이 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이다.

‘옆집의 언니가 또는 옆 마을의 동생이 국제결혼을 했다더라’, ‘TV에 나오는

한국 남자들은 잘생기고 여자들에게 다정하더라, '한국은 잘사는 나라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부모님 병원비도 대주고 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더라' 라는 장밋빛 꿈을 꾸며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국제결혼의 꿈을 가진다. 그러나 현실의 국제결혼은 그와는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중개업(개인브로커를 포함해서)을 통한 국제결혼은 여성들을 상품화시켰고 한국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거나 중개업의 이윤 추구로 인한 인신의 구속 등 인신매매적 성격을 가지면서 베트남 여성들이 애초에 가졌던 희망과는 멀어진 것이다.

상업화되어버린 국제결혼의 실태나 관련법 및 지원제도의 미비, 한국사회 문화에 대한 왜곡된 정보제공, 한국인 배우자들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인하여 베트남 여성들의 피해사례가 보도되면서 베트남 정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베트남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했지만 그 활동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일단 결혼 이주문제 전문가, 이주 목적국 즉 한국에 대한 정보 및 사업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요와 공급이 있는 국제결혼을 무작정 금지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베트남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 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만이라도 가진다면 낯선 땅에서의 생활이 조금은 쉬워지지 않을까. 그 생각은 KOICA의 지원으로 현실화될 수 있었다.

사업의 밑그림은 한국행 결혼 이주를 결정한 베트남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과 여성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의 내용을 더욱 알차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내야 했다. 그래서 먼저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또한 사업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이 사업의 효과 및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출국전 정보제공 프로그램의 경과와 전망'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실 베트남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교육장소 선정부터 교과내용 변화에 따른 현지직원교육의 영수증 처리, 1년이 13개월이 되는 우리나라와 다른 급여체계, 산휴기간, 현지 공공기관과의 관계 등 사회시스템 자체가 다르다 보니 현지에서 자연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출국전 정보제공 프로그램의 경과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

러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었다. 이런 낯선 상황에 놓일 때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려움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총 78회가 진행되었으며 2,217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또 1,170여 건의 상담전화 활동이 있었다.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교육매뉴얼은 3,000부, 기본정보가 담긴 포켓노트 9,000부, 긴급전화연락처를 담은 여권커버 6,000부, 교육자료를 담아갈 수 있는 종이폴더 6,000부를 제작하였고 홍보 브로셔 9,000부를 만들어 주 호치민 총영사관에 직접 나가 홍보활동을 했다. 그리고 총영사관의 협조로 사증발급 신청시, 본 교육수료증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의 실질적인 교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었다. 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인 반응을 거뒀다. 교육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정보제공 프로그램 경과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움을 열어 베트남 여성의 권익 보호에 사회적 관심을 촉발했다



사전정보제공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여성의 동영상을보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평가 설문 작업을 해본 결과 응답자 1,935명 가운데 1,926명이 만족한다고 답변, 응답 결과 99% 이상이 만족한다고 발표했다. 본 기구는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베트남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등에서도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출국 전 정보제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강사들의 질적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역시 기획,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한국에서 1회 진행되는 강사연수 프로그램이 각 현지국가에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1~2회 이상 진행되는 내부 워크숍으로 변경되는 등 교육의 질이 향상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진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여성들 그리고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아시아 국가 여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여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관련 통계자료

혼인종류 / 외국인 처의국적별 혼인(출처. 통계청)

기관명	유엔인권정책센터	
단체 소개	유엔인권정책센터는 2005년 9월 유엔의 인권제도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인식을 확대하고, 국내외의 인권증진과 더불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정책연구, 교육훈련, 출판, 인권옹호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인권옹호활동의 일환으로 베트남 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명	베트남 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사업기간	2008. 1 ~ 2009. 2 (총사업기간 2007. 5 ~ 2009. 12)	
사업대상	한국남성과 혼인이 결정된 베트남 여성들 중 호치민 주재 총영사관에 입국 비자신청자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여성들의 역량 강화 • 베트남 여성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들의 능력 배양 • 한국에 대한 베트남 사회의 인식 개선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의 문제점, 한국사회 문화와 언어, 각종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기본정보들을 제공받음으로써 베트남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역량과 자기결정권 강화 • 베트남 여성동맹 등 관련기관 및 단체들의 인신매매방지 등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능력 배양 • 베트남여성사망사건으로 인한 반한감정 및 한국사회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이미지 개선 	
업무분담	KOICA	후원
	유엔인권 정책센터	사업총괄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교육매뉴얼 및 동영상 업그레이드(2008. 2~10) • 국제결혼관련 베트남 관계부처 및 이주여성지원 현지 NGO, 대만기관, 한국 총영사관 미팅(2008. 3~7) • 교육지원 프로그램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2008. 5~2009. 2) • 베트남 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사전교육 프로그램 및 전화상담 진행(2008. 1/2008. 9~2009. 2) •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출국 전 정보제공프로그램의 경과와 전망' 심포지엄(2008. 6) • 출국 전 사전교육 평가단 현지 방문(2008. 12) 	

스스로 일어나는 니아스섬 사람들

인도네시아 니아스섬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
팀앤팀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니아스섬은 모든 삶이 무너진 곳이었다. 2004년 12월, 순식간에 들이닥친 쓰나미와 곧이어 2005년 3월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기본적인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최악의 쓰나미와 지진을 동시에 경험한 니아스 지역은 그야말로 국가재난상태였다. 팀앤팀인터내셔널은 2년 뒤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니아스섬으로 향했다.

“여기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길어 나르기 위해 수 km를 걸어야 합니다.” 연중 강우량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었지만 섬이라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수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샘물은 심각한 지역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물 공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동시에 불결한 위생상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각 가정과 축사에서 나오는 모든 분뇨는 곧바로 토양과 강물로 투기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5m 내외의 구덩이를 파서 나오는 물과 인근 강물을 길어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는

데, 이런 수원은 이미 인간과 동물의 오폐수로 인해 심각히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팀앤팀인터내셔널은 곧장 인도네시아 정부와 UN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지역 조사에 들어갔으며 이러한 사전조사와 현지의 요청을 바탕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이 시작되었다.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2004년과 2005년에 발생한 쓰나미와 지진은 니아스의 물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UNORC(유엔아체회복협력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2005년 발생한 지진은 상수도 시설의 29%, 그리고 2만 9,000여 가구의 우물과 펌프 시설을 파괴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팀앤팀인터내셔널은 니아스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식수공급을 위해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지원이 요청되는 학교와 보건소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빗물 이용 시설을 보급하게 되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역별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그들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중요했고 또한 그들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지역개발이 가능하다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사업 대상 지역에서 주민대표(학교장, 촌장, 학부모회장)로 구성된



학교에서 이뤄지는 손씻기습관화



학교 현판의 모습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 스스로 본 사업의 시작단계(위치 선정 및 설계)부터 시설물의 설치(시공 및 보수)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이렇게 형성된 지역 주민협의체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사업 완료 이후에도 주민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책임 있게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마음처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니아스는 우기와 건기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일년 내내 비가 내리는 지역이었다. 강우량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하루 종일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하며 이런 상황이 1주일 내내 지속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도로가 잠기거나 유실되어 끊기기도 했다. 우리의 사업대상지인 알라사 지역은 고립된 지역이 많고, 비포장 도로로 접근 및 이동이 어렵기에 현지인 전문 드라이버도 우천시에는 이 지역으로의 운전을 기피하곤 했다. 이렇듯 날씨에 영향받기 일쑤였지만 세워놓은 계획에 맞추어 일을 진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다.

또 다른 문제는 니아스섬 주민들의 심각한 개인주의였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원되는 시설물이라 할지라도 사적인 이익이 직접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한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가 발생하곤 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업 초기에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사업이 진행될 수록 더욱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공사에 참여했다. 도움을 주기 위해 그들과 함께했지만 그들 스스로 일어나는 모습은 우리에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한 니아스섬 사람들

도 큰 도전과 격려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이 빗물시설이 설치되기 전에는 해가 진 후 어두워 숲 속에 있는 계곡물을 길으러 가기 힘들기에 다음날 아침까지 참아야 했는데, 이제는 늦은 밤에도 언제든지 물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우리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살루 힐리나아 지역의 학교 교장선생님의 감사의 말이다. 팀앤팀인터내셔널이 설치한 빗물이용시설과 5톤 규모의 물탱크, 세면대, 화장실 등은 약 600명의 학생들에게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빗물이용시설 중 학생들과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건 세면대였다. 세면대는 수혜자에게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디자인 및 설계되었는데, 의도한 바와 같이 학생들은 자연스레 화장실을 다녀온 후 손을 씻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또한 스티커, 포스터를 통한 손씻기 캠페인은 좀 더 친숙하게 그러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도구였다.

니아스 지역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수자원 공급뿐만 아니라 위

생시설(화장실, 세면대)의 보급이다. 2005년 지진 발생으로 2만 6,000개의 개인화장실과 2,500개의 공동화장실이 파괴되었다. 현재까지 NGO들과 BRR(재난복구청) 등의 지원으로 건물 신축과 함께 상당수의 화장실이 설치되었지만, 사용자 대비 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세면대 시설은 보급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부족한 위생시설 보급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지 10곳 모두 물 공급 시설이 전혀 없었으며, 그중 8곳(학교 7곳, 보건소 1곳)은 녹슨 드럼통에 빗물을 받아 사용하거나 탁한 웅덩이 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물을 사용하여 용변을 처리하는 인도네시아 습관을 고려하면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위생시설 보급은 반드시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수자원 시설 설치와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가능성과 그들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니아스섬이 가지



학교에 설치된 개수대와 홍보용 스티커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 학교에 빗물집수장치를 설치했다

고 있는 무한한 자연적 혜택과 경제적 잠재력은 온전히 주민 스스로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팀앤팀인터내셔널은 계속해서 니아스섬 알라시 지역에 보건교육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화장실 개선 및 보급 사업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그들의 곁에 함께하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친구라는 것을.

▶ 관련 통계 자료

UNORC

<http://www.humanitarianinfo.org/sumatra/>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Recovery Coordinator for Aceh and Nias

<http://www.unorc.or.id/>

기관명	팀앤팀인터내셔널	
단체 소개	팀앤팀인터내셔널은 1999년에 동아프리카를 조사하여 이 지역에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깨끗한 식수'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1999년 케냐에 등록된 Field Operation International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2005년 6월, 분쟁과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긴급구호 및 지역개발 활동을 목적으로 '팀앤팀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다. 현재 한국과 캐나다, 남부 수단, 케냐, 소말리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사업명	인도네시아 니아스섬 빗물 이용 시설 지원 사업	
사업기간	2008. 1 ~ 2008. 12	
사업대상	인도네시아국, 북수마트라주, 니아스섬, 알라시, 알라시 딸루무조이 그리고 구농시톨리 지역	
사업목표	니아스섬의 학교 8곳과 보건소 2곳에 빗물이용시설(집수, 저장, 공급)을 설치하고, 이 시설물을 화장실에 연결하여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업무분담	KOICA	사업 지원금 보조 및 모니터링, 해당국가 정부와 협조
	팀앤팀 인터내셔널	사업의 총괄 진행, 현장 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적절한 전문가 및 관리자 파견
	팀앤팀 Indonesia	사업 진행을 위한 조사 작업, 현지 정부와 지역 정부 간의 협의, 사업의 실제적인 수행 및 보고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수시설: 빗물받이(Gutter), 스크린(Screen) 설치 • 저장시설: 물탱크(보건소 2곳, 학교 8곳) 설치 • 급수시설: 화장실과 세면대에 빗물 공급 • 배수시설: 학교와 보건소 10곳 신규 설치, 4곳 보수 • 세면대 설치: 학교와 보건소 10곳 • 정화조 설치: 보건소 2곳에 2톤 규모의 정화조 설치 	

‘오늘’에서 보는 ‘내일’의 희망

미얀마 짜웃단구 교육 및 의료시설 복구사업
굿피플인터내셔널



2008년 5월 2일, 사이클론 나르기스의 미얀마 강타는 14만 명이 사망하고 24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끔찍한 비극을 낳았다. 하루아침에 나르기스의 일상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대나무와 나뭇잎을 엮기쉴기 엮어 만든 그들의 작은 보금자리와 강에서 잡아온 물고기와 쌀밥을 함께 나누던 도란도란한 아침식사, 재잘거리며 학교로 향하던 작은 아이들의 행렬과 학교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웃음소리 그리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동네 어른들. 사이클론 나르기스는 이러한 일상을 한숨에 쓸어버린 것이다.

각국의 NGO들은 이 지역의 학교와 공터에 임시로 난민 캠프를 설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식량과 물 등이 담긴 긴급구호물품을 나누어주었다. 몇 달이 지났고 그들 대다수는 재해대응을 위한 활동을 마치고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야 했다.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미얀마 정부의 대책은 매우 한시적으로 진행되었고 한계 또한 분명했다. 복구사업은 수도인 양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짜웃단구의 대다수의 마을은 시설복구계획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아이들은 학교가 아닌



2011년 벨레카 마을 학교 기공식 모습

사찰이나 임시 건물에서 수업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나마 교육환경은 형편이 나은 편이었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이 온갖 수인성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위한 공간과 인력자원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닿지 않던 대다수의 원주민 마을들은 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배고픔과 아픔을 견뎌내며 힘겹게 삶을 이어나가야만 했다.

사이클론 나르기스는 최대풍속 241km/h의 초대형 사이클론이었다. 태풍이 속한 최고풍속 기준이 117.72km/h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얼마나 강력했던 것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008년 5월 16일 공식발표한 집계만 봐도 사망과 실종이 총 13만 3,600명이었고, 구호활동을 위한 접근이 불가능했던 원주민 마을에서 추후 발생한 질병과 기근으로 인



요아땃칼레 마을 기공식 모습

한 추가 인명피해를 감안한다면 사이클론 나르기스는 미얀마에 불어닥친 최악의 재앙이었다.

굿피플인터내셔널은 2008년 9월부터 현지조사를 시작하고, 미얀마 정부의 시설복구계획에서 밀려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KOICA와 협력하여 2009년 1차년도 재해복구사업으로 요아땃칼레 마을을 선정하고 초·중 종합학교와 다목적 주민센터를 복구하여 유치원과 학교 운영을 위한 환경을 마련했다. 또한 굿피플 자체적으로는 마을 사이를 연결하는 빠라와 짜에 다리 및 구립 도서관을 건설하는 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재해복구사업은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것과 더불어 재난 앞에서 지치고 낙담한 주민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바람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미얀마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태도는 오히려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1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재를 운반하고 협력



새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해 다리를 놓는 일에 나섰고, 그런 가족과 이웃을 응원하기 위해 식사를 만들어 함께 나누는 마을 여성들의 모습은 아이들과 가족, 그리고 마을을 위해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빠라와찌 다리 재건이 자금의 부족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주민모금함을 설치했고, 자체적으로 1만 달러를 모금하여 빠라와찌 다리 건설을 완공시켰다.

굿피플인터내셔널은 이런 2009년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에는 창와마을에 초·중 종합학교와 보건소 건립사업을 진행했고, 요아핏갈레 마을에 보건소 및 위생당양 다리 건설, 그리고 도서관과 보건소 운영 지원을 실시했다. 운영지원사업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각 시설이 실제로 마을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및 주정부의 역할을 되새겨보게 하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였다.

미얀마의 재해복구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켈레카 마을, 외찌 마을,



비바람도 채막아주지 못하는 임시학교의 외부모습



불안한 임시 건물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굿피플에서 추가지원한 책걸상 제작하는 모습

짬뽕 마을의 주민들은 오늘도 그들의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의 벽돌을 한 장 두 장 쌓고, 마을주민과 아이들의 기초 건강을 위한 보건소 건축을 위해 말뚝을 박고 있을 것이다.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남긴 큰 상처를 감당해야 했던 미얀마 주민들에게 우리는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 이에 대한 평가가 학교와 보건소를 몇 채 지었고, 다리를 몇 개 건설했다는 계량적인 수치만으로는 판단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미얀마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고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10년 창와마을 사람들은 전기가 없는 그들의 주거 환경 속에 어떻게 하면 전기를 끌어올 수 있을까 고민했다. 굿피플인터내셔널의 지부장과 몇 차례에 걸친 주민회의를 통해서 그들은 스스로 모금을 했고, 그렇게 모인 모금액



요아땃갈레 마을의 비타민약먹는날



빠라와찌다리, 외부와의교통은마을의발전을 가져왔다

과 사업계획을 가지고 구청을 찾아가 몇 번의 협의과정을 거쳐 전봇대를 설치할 수 있었다. 창와마을과는 달리 전기를 끌어올 수 없는 열악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던 요아땃갈레 마을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다. 굿피플인터내셔널과 함께 여러 번의 회의과정을 거친 그들은 스스로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나갔다. 굿피플인터내셔널이 전기 발전기와 공동 전선을 구매하고, 주민들은 각 가정까지 들어갈 전선과 전등을 구입했다. 본인이 쓰는 전기에 대한 비용을 책정하고, 그에 맞는 돈을 전기 사용의 경비로 모았다. 모인 돈은 다시 발전기 유지를 위한 기름 구입과 보건소 운영을 위한 마을의 공동경비로 활용했는데, 이는 그들이 이루어낸 자발적인 자립형 공동체 조직의 모습이다.



창와마을보건소 준공식

마을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미얀마의 김병천 지부장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의 참여를 다 이끌어내셨어요?”

“전 한 게 없어요. 주민들이 필요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되묻지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답은 저절로 나오는 걸요. 여기 사람들이 서로의 환경과 처지를 더 잘 알고 이해하니까... 전 그저 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가끔 격려만 하는 거지요”라는 게 김 지부장의 겸손한 대답이었다.

사업의 현장에서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호흡하는 활동가와 주민 자신들의 목소리와 의지로 삶의 환경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미얀마 짜웃단구 주민들의 ‘오늘’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미얀마의 ‘내일’을 본다.

관련 통계 자료

사이클론 ‘나르기스’에 의한 미얀마 피해현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8년, 구신희 외

기관명	굿피플인터내셔널							
단체 소개	굿피플인터내셔널은 가난과 질병, 재난 등으로 극심한 생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1999년 설립되어 2011년 현재까지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 케냐, 아이티 등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명	미얀마 교육 및 의료시설 복구사업							
사업기간	2008. 9 ~ 2012. 2							
사업대상	짜웃단구 요아뿔갈레 마을주민 약 1,510명, 창와마을주민 약 2,340명, 빠라와찌 마을주민 약 1,000명, 위엥당량 마을주민 약 1,000명, 외찌마을 주민 약 1,200명, 뽀레카 마을주민 약 1,320명, 짬뽕마을 주민 약 1,800명 - 총 1만170명							
사업목표	2008년 5월초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의 복구사업에서 소외된 짜웃단구의 마을에 학교 총 5개, 보건소 3개, 마을 교량 3개, 구립 도서관 1개, 주민센터 1개 등을 건설하여 파괴된 교육 및 의료환경을 회복하고 지역마을 공동체가 자기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학생들의 기본적 학습권을 보호하고 질적·양적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인재 양성의 기반 구축 • 의료시설 복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기초 질병 및 주요 질병 퇴치에 기여 • 끊어진 교량을 세워 외부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회복 							
업무분담	<table border="1"> <tr> <td>KOICA</td> <td>교육 및 의료시설 복구사업비 지원 보건소 및 구립 도서관 기자재 및 운영비 지원</td> </tr> <tr> <td>굿피플 인터내셔널</td> <td>교육 및 의료시설 복구사업비 지원 구립 도서관 및 다리 복구지원 학교 담장, 화장실, 책걸상 등 추가지원</td> </tr> <tr> <td>수원국</td> <td>행정지원, 운영지원, 주민참여의 노동력 제공</td> </tr> </table>	KOICA	교육 및 의료시설 복구사업비 지원 보건소 및 구립 도서관 기자재 및 운영비 지원	굿피플 인터내셔널	교육 및 의료시설 복구사업비 지원 구립 도서관 및 다리 복구지원 학교 담장, 화장실, 책걸상 등 추가지원	수원국	행정지원, 운영지원, 주민참여의 노동력 제공	
KOICA	교육 및 의료시설 복구사업비 지원 보건소 및 구립 도서관 기자재 및 운영비 지원							
굿피플 인터내셔널	교육 및 의료시설 복구사업비 지원 구립 도서관 및 다리 복구지원 학교 담장, 화장실, 책걸상 등 추가지원							
수원국	행정지원, 운영지원, 주민참여의 노동력 제공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클론 나르기스 이후 실태 조사(2008. 9) • 요아뿔갈레 초·중 종합학교, 주민센터 건설(2009. 8) • 빠라와찌 마을에 다리 건설(2009. 8) • 요아뿔갈레 마을다리, 짜웃단구립 도서관 건설(2009. 4) • 창와학교 및 보건소, 요아뿔갈레 보건소 건설(2010. 11) • 위엥당량 다리 건설(2010. 8) 							

텃밭, 하늘 왕국 레소토의 생명밭

레소토 렌코안 생계형 텃밭 가꾸기 지원사업
한국월드비전



우리 국민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아프리카에 대해 묘사해보라고 한다면 열에 아홉은 영화에서 보았던 넓디넓은 사바나 초원과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강렬한 태양과 아지랑이, 운치 있게 양팔을 벌리고 있는 바오밥(Baobab) 나무와 그 사이를 무리지어 이동하는 수많은 야생동물을 떠올릴 것이다. 이 질문에 이어 '국토의 가장 낮은 땅이 1,000미터가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며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를 동반한 눈이 내리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농담이라 여기고 웃어넘기고 말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기대했던 아프리카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진 '하늘 왕국' 레소토를 2009년 나는 처음으로 방문했고 그때부터 운명에 이끌린 듯 레소토를 향한 짝사랑이 시작되었다.

나라 속의 나라라는 표현이 적당할까? 남한의 14배나 되는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진 남아공 속에 강원도 두 배 크기인 소국 레소토가 위치해 있다. 크기만 보고 레소토를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흑백분리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자치구역 썸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레소토는

그 옛날 신식 무기를 앞세운 서구인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한 아프리카 최강의 부족 зулу(Zulu)족 전사들과의 목숨 건 전쟁에서도 패하지 않았으며 이후 수차례 남아공의 합병 시도에도 곳곳이 독립국가의 존재를 이어온 소토(Sotho)족의 왕국이기 때문이다.

이런 레소토 왕국에 겨울철 추위만큼 매서운 위기가 찾아 왔다. 2008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이하 FAO)는 레소토를 긴급지원이 필요한 37개국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전 국토의 단 9%만이 경작이 가능한데다 지난 3년간 계속된 극심한 가뭄과 국제 식량 가격 폭등이라는 악재가 겹쳐 국가적으로 식량난에 처한 것이다. 월드비전의 가장 큰 파트너 중 하나인 유엔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 이하 WFP)은 가뭄으로 인해 레소토의 주식량인 옥수수 작황이 예년에 비해 40% 이상 감소했으며, 전체 인구의 5분의 1인 약 40만 명의 주민이 심각한 식량부족 상태라고 경고했다. 레소토 정부는 2007년 7월 식량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국제사회에 긴급지원을 호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식량부족 문제는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월드비전은 지난 2007년 6월 레소토에 카테고리3(전세계적 재앙)의 재난을 선포하고 식량문제 해결에 국제본부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2008년 7월 레소토 취약성 조사 위원회와 FAO, WFP가 함께 조사한 자료에서는 레소토의 식량위기로 인해 지금 당장 도움을 받아야 할 주민이 약 40만 명이며, 5세 이하 아동 20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라고 밝혔다. 앞 다퉈 다퉈 격으로 레소토는 '에이즈 왕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레소토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HIV/AIDS 감염률(28.09%)을 기록하고 있는



레소토는 전국토의 단 9%만이 경작 가능한 산악 지형이다



다양한 농업 교육 실습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했다

나라이며 그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각 마을을 방문해보면 에이즈로 고통받는 주민이나 그 가족을 쉽게 만날 수 있을 정도다.

이처럼 레소토에는 HIV/AIDS로 인한 노동력 부족, 농사를 짓기 어려운 지형적 요인,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과 농작물 수입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을 고려한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구호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 하겠다.

이에 월드비전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KOICA와 협력하여 집 마당이나 근처에 지름 2m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사업이 가능하고, 가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노약자나 장애인과 같은 취약 계층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계형 텃밭 가꾸기 사업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교육을 통하여 총 1,500개 가구를 대상으로 1,700여 개의 텃밭(각 가구 상황에 맞게 키홀가든, 그로우백, 트렌치가든, 피스 가든 등을 도입)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제작하도록 했다. 그

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시금치, 양배추, 감자, 사탕수수, 완두콩, 당근 등의 씨앗과 관련 농기구를 분배하여 농작물 재배를 하도록 독려했다. 이런 사업은 단순히 씨앗이나 관련 농기구를 나눠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해충 관리, 사이짓기, 돌려짓기, 비료 제조법, 곡물관리 및 보존법 교육을 통하여 마을 주민들이 농업 역량을 강화하여 사업의 효과를 최대로 거둘 수 있도록 도왔다. 한마디로 말해 레소토 현지 상황에 가장 적합한 사업 모델을 개발, 도입한 것인데, 영국의 BBC를 비롯한 해외 유명 언론매체들이 생계형 텃밭 가꾸기 사업의 성공을 크게 보도할 정도로 효과가 검증되었다. 집 근처의 노는 땅을 효율적인 텃밭으로 일궈 지속적으로 보충 식량을 얻는 이 사업은 단순히 재난에 대처하는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더욱 심각한 식량 위기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무엇보다 텃밭 건축, 씨앗 및 농기구 지원과 같은 사업의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앞서 말한 주민 농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통합한 총체적이며 포괄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사업 대상지역에 설치한 KOICA와 월드비전로고가 새겨진 배너

이렇게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책무성(Accountability)을 지키고, 지역성(Locality)을 존중하며 사업을 지속화(Sustainability)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성실히 답했기 때문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었다. 사실 사업 대상 지역인 렌코안 지역은 월드비전이 몇 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대단위지역개발사업장이어서 이를 활용하여 지역 정부와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기존의 지역개발 사업장과의 통합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 모니터링 요원 세 명은 사업에 참여한 마을 주민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각 가구의 사업 진행 정도를 체크했다. 무엇보다 어려웠던 점은 산악에 위치한 레소토의 지형상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위험한 데다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보람도 있었다. 이런 철저한 모니터링 관리는 각 가구의 상황에 맞는 텃밭을 선택하고, 가구 개별 보유 역량 및 진행속도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어 마을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이곳 렌코안 지역 마을 주민에게 텃밭은 단순한 농작물의 경작지가 아니라 생명의 텃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급자족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이요 잉여 농산물이 나온 일부 가구에서는 인근 마을에 농작물을 팔아 가계 소득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월드비전과 지역교육청은 인근에서 진행되는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사용할 농산물을 마을 주민들과 직거래로 해결하여 양쪽 모두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며 한 가지 꿈이 더 생겼다. 이 생계형 텃밭 사업에 가내 양계사업과 과실나무 재배사업을 추가하여 지역 주민들이 균형적인 영양 섭취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레소토 생계형텃밭

취를 지원하게 된다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금년 2010년부터 3년 동안 KOICA와 협력하여 레소토 마프 탕 지역에 통합형 생계지원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하늘왕국 레소토에 희망의 풍선은 쏘아졌다. 하이테크놀러지(high-technology)가 아니라 로테크놀러지(low-technology)가 때론 희망을 여는 열쇠가 되어준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교훈을 준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텃밭. 이 텃밭에 우리는 사랑과 생명을 심는다. 그 텃밭은 레소토의 생명 밭이다.

관련 통계 자료

<http://www.unicef.org/>

<http://www.alernet.org>

<http://www.reliefweb.int>

Lesotho Food Security and Vulnerability Monitoring Report May 2008

기관명	한국월드비전	
단체 소개	월드비전은 세계 최대 국제구호개발기구이며 산하 한국월드비전은 국제개발, 긴급구호, 옹호사업의 3대 영역을 중점으로 전세계 39개국에서 190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2011년 기준)	
사업명	레소토 렌코안 지역 생계형 텃밭 가꾸기 사업	
사업기간	2009. 1 ~ 2010. 4 (1년 4개월)	
사업대상	레소토 렌코안 지역 1,500가구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 가구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유기농 채소 생산 방법 및 농업 관련 지식 학습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 강화 • 수혜 가구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텃밭 시설을 구축하고 텃밭 재배 기술 습득을 통해 식량 생산성을 향상 • 곡물 관리 및 활용방법을 개선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고 취약 가구 및 주민들의 생계 소득에 기여 	
기대효과	HIV/AIDS 환자, 노약자, 고아 및 취약 아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식량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통해 식량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생계 소득 증대	
업무분담	KOICA	사업비 지원, 모니터링 및 평가, 필요시 현지정부와의 협의 중재 등
	수원국	사업진행 총괄, 인력 출장 등을 통한 사업진행 점검, 지역정부와의 업무협의, 모니터링, 사업비 관리,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등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 가구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텃밭 시설을 구축하고 텃밭 재배 기술과 비료 제작법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식량 생산성 향상 • 취약 가구 및 주민들의 유기농 채소 재배 방법에 관한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식량 생산 역량 강화 • 곡물 관리 및 활용방법을 개선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고 취약 가구 및 주민들의 생계 소득 증대에 기여 	

옥수수로 한알, 한알 희망을 심다!

네팔 람푸르지역 옥수수 종자개발 및 교육 지원사업
국제옥수수재단



네팔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카나 카이요 Khaana akhaiyo?’라는 말은 ‘식사하셨습니까?’라는 뜻으로 이들의 식량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인사말이라 할 수 있다. 네팔의 인구 중 80%가 벼와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업종사자인데 인사말에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될 정도로 굶주리는 이가 많다는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006년 내전 종식과 2008년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빈곤과 배고픔의 완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네팔 전체 인구의 41%는 영양부족 상태이고 24%의 국민이 1일 1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국내정치적 불안정과 고질적인 식량부족, 자연재해의 빈발 등은 수백만 네팔 국민의 빈곤과 기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네팔은 매년 인도 종자회사로부터 1,500톤의 하이브리드 종자를 수입하고 25만 톤에 달하는 사료용 옥수수 알곡을 수입하고 있다. 그 종자나 사료용 옥수수 알곡은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여느 빈민국가와 마찬가지로 네팔도 심각한 빈부격차에 시달리고 있고 그 가운데 최빈민으로 분리되는 이들은 농업종사자이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경작지가



옥수수가 푸르게 자라고 있는 람푸르연구소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가의 종자를 살 수도 없는 형편이다. 때문에 가지고 있는 수 백년 된 재래종으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어 생산률이 매우 낮고 이로 인해 대다수의 주민들이 식량난에 고통받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카스트제도에 의해 계급이 매겨지고 가장 낮은 계급인 농민들은 소외된다. 그리고 그 계급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대물림되어 농민의 자녀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동현장에 방치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 사람들은 일



종자저장고



종자저장고

할 의욕도 없고 희망도 잃어 간다.

옥수수는 단위당 생산량이 많은 곡식 중의 하나다. 재배가 쉽고 다모작을 할 수 있는 작물이다. 식량의 해결은 물론 가축사료의 90% 이상을 옥수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옥수수의 재배를 통해 농축산 산업의 전반적인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이처럼 자립기반을 다지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옥수수를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에 제대로 열매맺게 할 수 있을까.

2005년 네팔의 농림부 차관은 계속되는 농업의 실패로 인한 만성화된 식량

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를 초대했다. 이들의 농업이 왜 실패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실험을 해야 했다. 정부와 람푸르(Rampur Station) 농업시험장 연구소에서 함께 옥수수 농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현지 옥수수 재배와 연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색반점병(Gray Leaf Spot-GLS)이 옥수수의 95% 이상을 수확할 수 없도록 만드는 주범임이 확인됐다. 원인이 확인됐으니 해결책을 찾는 일만 남았다. 열심히 일한 결과가 너무나 미약하여 의욕을 잃었던 네팔 관계자들은 처음으로 희망을 보여주고 있었다.

2007년 KOICA의 지원으로 네팔농업연구위원회(Nepal Agricultural Research Council - NARC) 연구원과 우리 연구원들은 함께 회색반점병에 강한 저항 옥수수(GLS-T)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일부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작은 농지나 개인농장에서 옥수수 교배실험을 하며 의욕을 보여줬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거쳐 드디어 GLS-T 종자를 개발했고 종자 증식에 필요한 저장고와 시설을 보수 및 개선하는 작업도 시작되었다.

육종사업의 진행과 더불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가장 좋은 원조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때문에 고지대연구원인 Mr. Pandey와 저지대연구원인 Mr. Dami의 유학생활이 시작되었다. 재단 이사장이자 '옥수수 박사'인 김순권 박사가 소속된 경북대에서 이들은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2010년 귀국하여 현재 네팔의 육종 연구와 농업발전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 그들의 헌신으로 네팔의 자체 옥수수 육종과 증식 생산이 되어 이전보다 많은 종자들이 생산되고 있다. 농업 지도자들 역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는 현장실습을 받으며 발전을 추구



전염병에 저항이 강한 옥수수를 개발·보급했다



종자 증식에 필요한 저장고의 개보수 작업도 완료했다

하고 있다.

이런 성공과정을 보며 네팔농업연구위원회의 일부 임원들은 은퇴 이후 비싼 외국계 종자를 대신할 수 있는 네팔 종자 개발을 통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우리는 고지대 2품종, 저지대 3품종 정도 선발 시험용 잡종 종자를 생산했다. 네팔에 적응하는 교잡종(hybrid corn) 육종 사업은 2011년 봄까지 증식을 추진하고, 수확된 교잡종(hybrid corn) 종자는 현지 5만여 농민들에게 1차로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뿌리 깊은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사업도 실시했다. 평등하게 교육의 혜택을 주기 위해 도서관 건립과 도서를 지원했다. 건립된 도서관에 책과 시설물들이 설치되는 과정을 보면서 현지 교사들과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교육현장을 꾸미는데 힘을 모았다. 또한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지속적인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연아동 지원으로 돕고 있다. 이를 통해 그들 스스로 희망을

찾고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개발현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가 고민하게 된다. 현재는 지도자 중심의 교육이지만 이들이 곧 가난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의 혜택을 주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덕 지부장은 “이들에게 남을 위한 헌신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말한다. 오랫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기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더 급급하고 자신의 출세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기다려줘야 할 때인 듯하다. 알지 못하는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인내가 필요한 농사이다. 보통 옥수수 육종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네팔에서 옥수수를 연구한 지 겨우 5년이 지난 지



KOICA와 국제옥수수재단의 기여로 지어진도서관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어린이들

금 현지 적응 교잡종(hybrid) 종자가 거의 개발단계에 접근해 있다. 희망이 있는 것이다.

40년 전에는 네팔이 인도에 옥수수를 수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역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적인 지도자 육성과 더불어 현지 적응 교잡종(hybrid corn)을 개발해 네팔현지 종자회사를 건립하여 다시 수출할 수 있는 나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기관명	국제옥수수재단	
단체 소개	국제옥수수재단은 1998년에 설립된 국제개발구호 NGO로 친환경적인 우수 옥수수종자의 연구, 개발, 보급과 교육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국제적인 기아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동남아시아에 6개 지부가 있으며 KOICA의 지원으로 네팔, 캄보디아, 동티모르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명	네팔 람푸르 지역 옥수수 종자 개발 및 교육지원사업	
사업기간	2009. 1 ~ 2009. 12	
사업대상	네팔, 람푸르 지역 농민들	
사업목표	네팔 토양에 맞는 옥수수 종자 공동 연구지원 농민자녀를 위한 교육시설 제공, 교육도서 및 장학지원 농업 지도자 교육 훈련 지원	
기대효과	GLS저항성 종자 증식 및 보급으로 고지대 옥수수 증산 효과 초등학교 도서관지원과 장학지원으로 학업의식, 향학열 고취	
업무 분담	KOICA	옥수수종자 개발비 지원, 도서관 책장 10개, 도서 400권 지원, 교육훈련생지원, 장학지원
	국제옥수수재단	옥수수종자 개발, 육종 전문가파견, 농업연구원 교육지원, 결연아동 지원, 홍보 및 활동 평가
	수원국	농장 및 부지제공, 농림부 지원, 운영지속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팔 농림부 차관의 초청으로 네팔 방문(2005. 6) • 수상과 농림부 차관 및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옥수수 개발 • 연구로 식량 증식 요청(2005. 7) • 농림부와 MOU체결(2006. 9) • KOICA지원을 통해 람푸르지역에서 슈퍼옥수수 공동연구 • 사업실행, 치트완지역 도서관 및 보건소 건립(2007. 1~12) • 행안부 지원을 통한 GLS-T 종자 개발, 저장시설 보수작업(2008. 1~12) • KOICA지원을 통한 종자 증식 및 개발연구진행 및 도서관 물품 추가 지원 및 장학지원(2009. 1~12) • 연구원(석사학위 마침)귀국 후 옥수수종자 개발사업실시, • 학교 및 고아원 물품지원, 결연아동지원(2008~현재) 	

빈곤노인의 새로운 희망 노인자조모임

미얀마 17개 마을 빈곤노인의 소득증대와 홈 케어 자조모임 구축사업
한국헬프에이지



“과거 나에게 살아갈 희망과 이유를 찾는 건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자조모임의 회원이 되고 난 후 저는 다시 삶의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삶이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포아센 마을 노인자조모임 000

한국헬프에이지가 미얀마의 포아센 마을에 설립된 노인자조모임에 방문하였을 때 한 회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이다. 이 말을 할 때 노인의 눈빛에 담긴 진심은 통역이 영어로 옮기기도 전부터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았다.

2008년 5월에 발생한 사이클론 나르기스는 약 8만 명의 사망자와 5만 명의 실종자를 발생시켰고 미얀마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되었다. 최근 전세계가 충격의 여파를 받았던 일본 대지진의 사망자와 실종자의 수가 약 2만 7,000여 명이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당시의 피해 상황을 어림잡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본회의 사업 지역에 포함된 파테인이 위치한 지역은 삼각주 지대로 낮은 지형적 특성과 함께 사전 재해 경고의 미흡, 재해 관련 대책에 대한 무방비 등

으로 인해 매년 크고 작은 자연재해 (태풍, 홍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미얀마 내 많은 빈곤 노인들은 복합적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낮은 농지수율, 농산물 가격의 하락, 노인의 대출 제한, 비료 가격의 상승 및 시장 접근성이 낮은 데 따른 경제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도시 이주로 인한 부양체제의 붕괴 속에서 경제적 심리적 고통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미얀마 내 농촌지역 노인가정 대부분은 빈곤층에 속한다. 월수입 USD 20~38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전체 남성 노인의 56%, 전체 여성 노인의 22%가 가계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은 농촌지역에서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이는 농촌 내 많은 젊은 층이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농사일에 대한 책임이 농촌에 남아 있는 노인에게 전



노인자조모임 월례회의에 참석한 노인회원



소득증대 사업을 통해 작물재배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회원



노인회원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사업 관련 농기술 교육이 시행됐다

가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노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도 절실하다. 질병에 걸렸거나 응급상황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마을의 산파가 대처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사이클론 피해지역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74%가 지역의 보건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인이 영양에 대한 지식, 자가 치료법 및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곤노인에게 당장 먹을 음식과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단기 기금 위주로 본 사업이 끝났다면 현재 미얀마 내에 불고 있는 노인자조모임의 열풍과 정부(사회복지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은 실현 불가능한 꿈에 불과했을

것이다.

한국헬프에이지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노인'을 중점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먼저 미얀마 헬프에이지와의 사전논의 끝에 빈곤의 정도가 가장 심한 지역, 그리고 사이클론의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고(파테인, 짜일랏) 총 17개의 마을에 601명의 노인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17개의 노인자조모임을 구축했다. 노인자조모임은 단순히 친목도모나 여가 시간을 위한 활동이 아닌, 본 사업 내 세부활동 내용을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치운영 공동체를 뜻한다.

이들 노인자조모임의 자치운영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운영교육, 운영위원회 설립, 리더십 교육 등 다양한 사전교육이 이뤄졌으며 이런 사전교육을 통해 총 17개의 노인자조모임이 원활하게 구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총 292명의 노인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소득증대 교육사업(농사법, 어장관리법, 가축사육 기술, 소규모 자영업 관리 등)은 교육을 수료한 노인회원들의 96%가 자신만의 소규모 사업 운영을 시작할 정도로 그 효과가 컸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노인자조모임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빈곤노인들은 각 마을 내에서 모집한 순수 자원봉사자를 통한 홈케어 서비스(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허약한 노인의 집에 봉사자가 방문하여 노인이 필요로 하는 집안일, 식사, 병원 방문, 목욕 등을 도와주는 사업, 한국의 前가정봉사원 파견사업/現 재가노인복지제도가 모태임)를 받음으로써 정서적으로 한층 더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활동에는 총 200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했다.

수많은 국제개발 및 해외원조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수혜자의 수혜국/단체의 물질적 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감, 즉 주인 의식의 상실과 독립적인 역량 개발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헬프에 이지 노인자조모임 사업의 특징은 노인이 수혜자로서뿐만 아니라 사업의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더욱이 본회의 사업 수혜 대상은 평균연령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젊은이들이 떠나가버린 마을 내에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노인을 만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본 사업의 취지, 목적, 의의를 노인 회원들에게 이해시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저수지와 우물 개설, 식량 지원, 기금 지원 등을 외국의 부자나라로부터 받으려고만 하는 이들에게 '당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시키며 사업의 계획 및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한다.

하지만 수많은 현장경험을 통해 탄탄한 실무역량을 갖추고 있는 현지 파트너 기관(미얀마 헬프페이지)의 담당 직원들은 노인자조모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오늘도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4~5시간씩 달리며 한 명 한 명의 노인회원들을 만나러 간다. 노인자조모임은 지역개발을 위한 것이며 그 중심에 노인들이 직접 나설 수 있다는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노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어내지 못했더라면 더 시간이 걸릴 일이었다.

정치적 사회적 격동으로 인해 불과 5~6년 전만 해도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없었던 미얀마에서 노인자조모임을 형성한다는 것은 큰 모험과도 같았다. 그러나 2006년부터 노인자조모임이 지역개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



노인자조모임 노인회원과 자원봉사자

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 프로그램, 행사 등을 자주 개최한 결과 미얀마 정부의 공식적인 활동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

노인자조모임은 미얀마 내 빈곤노인에게 있어 단순한 그룹활동이 아니다. 이 모임을 통해 가난과 질병 속에서 평생을 홀로 외롭게 버텨온 빈곤노인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처음으로 나 혼자가 아닌 공동체 일원들과 함께 조금씩 문제를 풀어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노인자조모임의 회원이 되고 난 후로는 누군가가 도움을 주기만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인자조모임의 존재는 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전 영원한 노인자조모임의 회원입니다.”

-미얀마 마우곤 마을 노인자조모임 ○○○

 관련 통계자료

Government of Myanmar and UNFPA Report, 2005
EC, Burma/Myanmar Strategy Paper (2007-2013)

기관명	한국헬프에이지	
단체 소개	1982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국내외 지역의 가난하고 소외된 노인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외교통상부의 지원으로 2003년~2012년까지 아세안 10개국에 홈케어 사업을 전수했으며 각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채택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 모금 및 KOICA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제헬프에이지와 함께 해외 빈곤 국가 노인들을 위한 노인자조모임 형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명	미얀마 17개 마을 빈곤노인의 소득증대와 홈케어 자조모임 구축사업	
사업기간	2009. 4 ~ 2009. 12	
사업대상	미얀마 키아잇랏 및 파테인 지역 내 17개 노인자조모임 회원 (총 601명)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얀마 키아잇랏과 파테인 지역에 17개의 신규 노인자조모임을 형성하여 선출된 대표자그룹 및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써 사업추진의 기틀 마련 • 17개 노인자조모임 내에 소득증대사업 그룹을 형성하기 위하여 교육과 기술적 지원 • 17개 노인자조모임 내에 노인 홈케어 그룹을 형성하고자 자원봉사자들을 선정하고 교육하여 활동하도록 함 	
기대효과	노인자조모임 설립 및 자치 운영을 통한 농촌 지역의 소득증대 및 기본 보건 서비스 확대	
업무분담	KOICA	사업비 지원, 정기 점검 및 방문, 사업 홍보
	한국헬프에이지	홈케어 사업 매뉴얼 제공 및 현지 실무자 교육, 노인자조모임 활동에 대한 현지 실무자 교육, 전체 사업 감독 및 평가
	수원국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노인자조모임 형성 지원, 정기 모니터링, 소득증대사업 및 홈케어 사업 관련 교육 실시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오리엔테이션 (2009. 4~5) • 사전조사 실시 (2009. 6) • 노인자조모임 형성 및 관련 교육 (2009. 7) • 노인자조모임 운영 및 정기 방문 (매월 실시) • 소득증대사업 교육 및 실시 (2009. 9~12) • 홈케어 사업 교육 및 실시 (2009. 12) 	



1995~2009년

KOICA NGO 지원사업 현황

I. 서론

II. 연도별 NGO 지원분석

III. NGO 현장사업 지원 세부내용

1. 지역별 통계
2. 국가별 통계
 - 2-1. 아시아·태평양지역
 - 2-2. 아프리카 지역
 - 2-3. 중동 지역
 - 2-4. 남미 및 CIS지역
3. 사업분류별 통계

IV. 결론

I. 서론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전지은

국제사회에서 원조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되었다. NGO를 통한 원조는 그 이전에도 존재했었지만 현재와 같은 대규모의 원조는 1947년에 조직된 유럽부흥계획(EEP: European Recovery Program)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원조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는 1990년대부터 시작했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중 유상원조는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설립으로, 무상원조는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이 설립된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편 정부의 공적자금 흐름과는 구별되는 민간단체의 국제개발협력도 1990년대 이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2009 한국국제개발 NGO 편람』에 따르면 50개의 조사 대상 NGO 중 1990년대 이후에 해외사업을 시작한 NGO들이 전체의 84%에 이르는 42개의 단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와 NGO의 개발협력은 비슷한 시기에서부터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작하

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부기관과 민간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은 한국개발원조의 동반자로서 서로 협력해온 모습을 볼 수 있다.

KOICA와 한국 NGO간의 협력사업은 KOICA가 1995년 NGO의 19개 현지사업에 4.8억원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9년 기준으로 KOICA의 NGO 지원은 73개의 현지사업 및 역량강화, 개발인지 등의 사업에 약 69억을 지원하며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무상원조 사업에서 NGO의 지원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대략 세 가지로 NGO 사업규모의 성장과 KOICA 무상원조의 증액 그리고 NGO와 정부기관의 협력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 NGO들의 해외사업이 양적으로 성장하였기에, NGO들은 정부기관의 파트너로서 개발협력사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의 개발 NGO들은 주로 1990년대 이후에 해외사업을 시작했다. 비록 1990년대 NGO들의 해외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만 『2003 민간단체 해외원조 활동자료집』과 『2009 한국국제개발 NGO 편람』에 따르면 한국 NGO들의 해외사업 금액은 2000년에 300억, 2006년 702억에서 2009년 1,722억으로 증가했다. 이런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 한국개발 NGO들의 누적된 역량과 경험들은 한국개발 NGO들이 KOICA와 함께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파트너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편 한국의 ODA 금액의 성장 역시도 KOICA와 NGO의 협력사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한국의 ODA는 1991년 1.1억 달러에 불과하던 규모가 2009년에는 약 8.16억 달러를 기록¹⁾하여 절대 규

모면에서 큰 증가를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무상원조의 규모도 점점 커져, 무상원조 내에서 NGO 지원금액이 절대적 액수 부문에서도 성장세를 보이게 되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 여러 주체들의 협력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정부기관과 NGO의 협력은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2008년 ‘제3차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된 아크라행동계획(AAA: Accra Agenda for Action)에는 정부와 개발기구들이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 명기되어 있다.

한편 지난 2008년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한국의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OECD-DAC) 가입에 대비한 특별심사에서 OECD-DAC는 한국정부와 한국의 시민사회, 민간부분과의 광범위한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²⁾ 이에 2010년 10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함께하는 개발협력을 구현하기 위해 먼저 NGO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NGO를 실질적인 개발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한편 NGO와의 협력사업비를 2015년까지 10배 확대하기로 했으며 정부의 보조금 비중도 2012년

까지 80%까지로 연차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 발굴에서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NGO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NGO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³⁾ 이와 같이 국제개발협력의 현장에서 정부기관과 NGO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KOICA 및 NGO의 동반성장의 바탕에는 15년간 함께한 KOICA와 NGO간의 꾸준한 협력이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15년간의 KOICA와 NGO 지원현황을 정리하여 KOICA와 NGO들이 어떤 분야와 내용으로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 그 관계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NGO 지원 총괄

KOICA의 NGO 지원은 1995년 4.8억원 지원으로 시작하여 15년 동안 총 410억원의 무상원조 금액을 NGO에 지원하였으며, 평균 무상원조 금액 대비 비율은 1.7%이다. 하지만 총 무상원조 금액에서 NGO 지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006년 이후로

〈표1〉1995~2009년 KOICA의 NGO 지원금액⁴⁾ (단위: 백만원)

연도	NGO지원 총액	무상원조총액 대비비율	연도	NGO지원 총액	무상원조총액 대비비율
1995	489	1.3%	2003	7,933	5.4%
1996	539	1.2%	2004	1,052	0.5%
1997	619	1.2%	2005	2,837	1.3%
1998	328	0.6%	2006	3,983	2.2%
1999	426	0.9%	2007	5,275	2.1%
2000	618	1.2%	2008	7,201	2.4%
2001	1,018	1.5%	2009	6,957	2.0%
2002	1,734	2.2%		41,009(총금액)	1.7%(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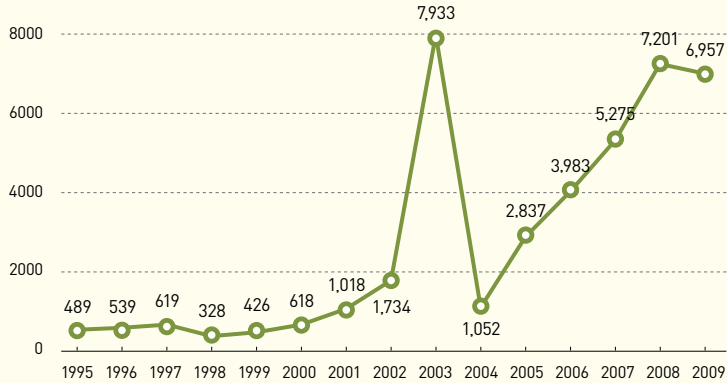
1) 통계청 공식사이트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87&idx_korrm=ODA%20%BF%F8%C1%B6%B1%D4%B8%F0

2)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2008, 「한국의 OECD/DAC 가입을 위한 DAC 특별심사」, 「국제개발협력」 2008년 3호 : 한국국제협력단.

3) 이련주, 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국제개발협력」 2010년 4호 : 한국국제협력단.

4) 표1의 출처 : KOICA홈페이지 - KOICA사업통계 <http://www.koica.go.kr/>

〈그림1〉 1995~2009년 KOICA의 NGO 지원금액 추이 (단위: 백만원)



는 평균 무상원조 금액대비 2.0% 이상이 NGO 지원금액으로 집행되고 있다. 지난 15년간의 KOICA의 NGO 지원사업의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양적인 성장이다. NGO 지원사업금액은 1995년에 비해 2009년에 약 14배 성장하였다. 그러나 절대금액에서의 큰 성장에 비해 총 무상원조 지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어 이와 같은 총 금액의 성장은 총 무상원조예산 규모의 증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임을 짐작케 한다.

NGO 지원 내용의 다각화도 주목할 만한 변화 중의 하나이다. KOICA의 NGO 지원 사업은 1995년에는 단지 NGO의 현지사업에만 지원하였으나 2009년 이후 직접 지원사업 이외에도 NGO 역량강화 및 개발협력인지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NGO의 개발협력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 장부터는 전체 NGO지원 사업 중 'NGO 현장사업 지원금액'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도록 하겠다.

II. 연도별 NGO 지원 분석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KOICA의 NGO 지원사업은 지난 1995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최초 19개 NGO단체 19개 해외 사업에 4.8억원 지원으로 시작하였으나 2009년 기준으로 47개 단체 73개 사업에 약 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난 15년간의 NGO 지원사업의 변화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1995~2009년 KOICA의 NGO지원-연도별 현장지원사업⁵⁾ (단위: 백만원)

연도	국가	기관수	사업수	총사업비(A)	KOICA지원(B)	지원비율(B/A)%
1995	19	19	19	2,186.5	480.8	22.0%
1996	14	22	25	2,611.4	537.9	20.6%
1997	10	20	20	2,768.6	610.0	22.0%
1998	11	17	17	1,665.3	320.0	19.2%
1999	10	20	20	2,198.0	415.0	18.9%
2000	13	22	22	2,689.1	600.0	22.3%
2001	15	26	27	2,869.8	990.0	34.5%
2002	17	26	34	9,141.2	1,706.5	18.7%
2003	19	25	61	20,320.5	7,733.1	38.1%
2004	14	21	21	2,240.9	929.0	41.5%
2005	19	25	41	6,579.7	2,705.0	41.1%
2006	17	23	39	5,996.0	2,725.0	45.4%
2007	19	34	42	6,016.0	2,633.0	43.8%
2008	26	44	72	12,804.0	5,662.5	44.2%
2009	27	47	73	12,038.0	5,938.4	49.3%
합계				92,125.0	33,986.2	32.1%(평균)

5) 표2의 출처 : KOICA 민간협력실 내부자료 - NGO지원사업통계 (행정성 경비, NGO봉사단, 개발인지 사업 비등 제외한 순수 지역사업 지원자료)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업수의 비약적인 증가다. 1995년에는 19개의 사업만을 지원했지만 2009년에는 거의 4배에 가까운 73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총 사업비용에서 KOICA가 지원하는 비율도 꾸준히 증가했다. 초기에는 전체사업비의 20% 내외의 금액만을 KOICA에서 지원했지만 2009년에는 거의 50%에 달하는 지원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지원비율은 2012년 8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 표에서 보이는 국가, 단체, 사업들 중에는 연속지원 사업으로 연도별 중복이 있고 하나의 사업명으로 여러 국가에서 시행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합계로서 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지난 15년을 살펴보았을 때 NGO 지원금액의 절대금액이 가장 컸을 시기는 지난 2003년이였다. 이 시기에는 아프가니스탄에 12억, 이라크에 55억의 금액이 난민 긴급구호 목적으로 NGO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었다.

6) 2009년 기준으로 KOICA는 선정된 사업의 총사업비 중 최대 60%를 지원할 수 있다.

III. NGO 현장사업 지원 세부내용

이 장에서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간 KOICA의 NGO 현장사업 지원 내용을 지역별, 국가별, 사업분류별로 살펴보겠다.

1. 지역별 통계

NGO의 현장사업에 지원된 총 금액은 약 340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 KOICA의 NGO 사업지원이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다. 약 196억원의 지원금이 NGO의 현지 사업에 쓰였다. 그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중동 순이었고 중남미와 CIS⁷⁾에서 하는 NGO사업은 가장 지원을 적게 받았다. 이런 결과는 한국 NGO들의 해외사업이 아시아·태평양과 아프리카

〈표3〉지역별 15년간 누적 지원 금액

(단위: 백만원)

지역구분	총 지원금액
아시아·태평양	19,591.0
아프리카	6,596.1
중동	6,364.9
남미	750.0
CIS	684.2
총합계	33,986.2

7) 독립국가연합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10개 공화국의 연합체

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중남미와 CIS에서는 적게 이뤄지기 때문 일 것이다. 『2009 한국국제개발 NGO 편람』에 따르면 한국 NGO들의 현장 사업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아시아·태평양과 아프리카로서 이 두 지역에서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8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의 NGO 활동의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기에, 2000년부터 2009

〈표4〉 KOICA의 NGO사업 지원 국가 (가나다 순)

지역	국가
아시아·태평양(23개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리바티, 태국, 통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아프리카(19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크, 세네갈, 수단, 스와질랜드,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토고, DR콩고
중동(5개국)	예멘,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팔레스타인
중남미(2개국)	과테말라, 볼리비아
CIS(5개국)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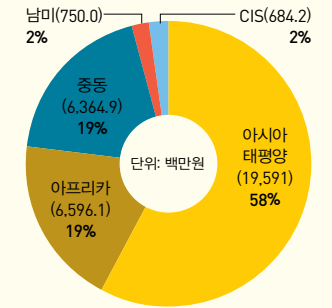
〈표5〉 연도·지역별 KOICA 지원사업금액 (단위: 백만원)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아시아·태평양	365.3	361.2	405.0	225.0	350.0	460.0	758.0	1,360.2
아프리카	94.1	124.2	205.0	75.0	30.0	80.0	110.0	293.0
중동	0.0	0.0	0.0	0.0	0.0	0.0	0.0	0.0
남미	0.0	0.0	0.0	0.0	15.0	20.0	25.0	30.0
CIS	21.4	52.5	0.0	20.0	20.0	40.0	97.0	23.3
합계	480.8	537.9	610.0	320.0	415.0	600.0	990.0	1,706.5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아시아·태평양	1,845.2	573.0	1,705.0	2,275.0	1,693.0	3,413.2	3,801.9	19,591.0
아프리카	299.0	251.0	477.8	271.2	78.0	1,959.3	1,546.5	6,596.1
중동	5,503.9	0.0	522.2	178.8	60.0	0.0	100.0	6,364.9
남미	50.0	0.0	0.0	0.0	70.0	150.0	390.0	750.0
CIS	35.0	105.0	0.0	0.0	30.0	140.0	100.0	684.2
합계	7,733.1	929.0	2,705.0	2,725.0	2,633.0	5,662.5	5,938.4	33,986.2

년까지의 데이터만으로 유추해 본다면 다수의 한국 NGO가 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동 지역의 지원금액에 있어 총금액의 상승은 2003년도에 이라크에서 난민 긴급구호 활동을 한 NGO 들에 지원된 55억원의 금액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각 지역별로 어떤 국가들이 포함되었는지는 표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23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위의 표3에서는 아프리카와 중동이 비슷한 금액(각 66억, 63억)을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지원받은 국가의 수에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KOICA가 15년간 NGO를 통해서 사업을 지원했던 국가는 아프리카 19개국, 중동 5개국으로 많은 차이가 나며 NGO 지원사업 중 이라크의 긴급구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5는 연도별로 투여된 NGO 지원금액을 지역별로 나누어본 것이다.

〈그림2〉 15년간 누적지원금액 지역별 총액과 비율



2. 국가별 통계

2-1. 아시아·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가장 많은 NGO 지원사업 금액을 받은 국가는 베트남, 중국, 네팔 순으로 나타났다. 이 세 국가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단 한 번도 KOICA의 지원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은 2003년 한국개발 NGO의 난민 긴급구호 사업이 KOICA의 지원을 받아 이뤄짐에 따라 사업수에 비해서 지원된 금액은 많은 국가가 되었다.

NGO 지원금액의 변화 추이를 15년간의 그래프로 살펴보면 그림3과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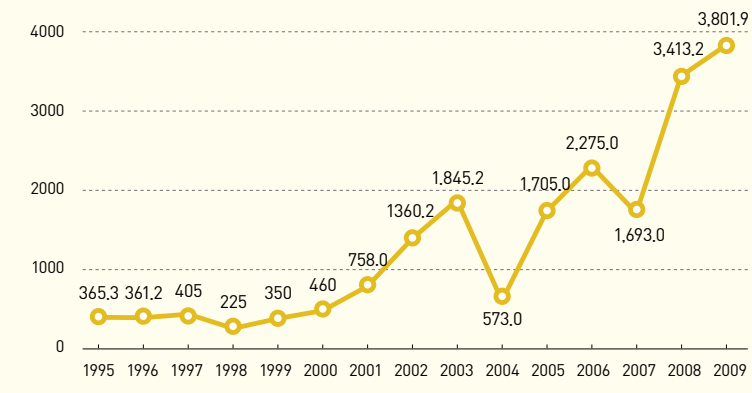
〈표6〉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별 KOICA-NGO 지원 사업금액 및 사업수

국가	사업비	사업수	국가	사업비	사업수
베트남	2,649.8	71	미얀마	336.4	11
중국	2,131.6	51	파키스탄	290	7
네팔	1,947.6	44	태국	239.1	2
아프가니스탄	1,939.2	24	인도	108	4
몽골	1,919.7	40	부탄	78	2
캄보디아	1,784.2	35	바누아투	1.8	1
스리랑카	1,577.2	18	솔로몬군도	1.4	1
필리핀	1,351.3	32	키리바티	1.4	1
방글라데시	1,122.9	19	통가	1.4	1
인도네시아	1,113.3	16	파푸아뉴기니	1.4	1
라오스	551.1	12	피지	1.4	1
동티모르	442.8	9	합계	19,591.01	393

(단위: 백만원, 시기: 1995~2009년)

〈그림3〉 아시아·태평양지역 KOICA-NGO 지원사업비

(단위: 백만원, 시기: 1995~2009년)



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NGO의 많은 사업국가가 몰려 있는 지역이고 KOICA의 주요 협력국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NGO 지원 사업비가 꾸준히 지원되었다. 비록 2004년, 2007년에는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지만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으며 2009년 기준으로 38억원이 지원되어 가장 큰 지원금액을 받는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2-2. 아프리카지역

아프리카에서는 지난 15년간 19개국에서 시행된 NGO 사업에 지원비가 투여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금액의 지원을 받은 국가는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스와질랜드, 수단의 순이다. 특히 케냐에 투여된 NGO 지원사업비는 두 번째로 많은 탄자니아의 거의 2배에 달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프리카에 투여된 NGO 지원금은 2006년까지는 해도 절대규모 면에서 큰 액수는 아니었다. 하지만 2007년에 들어서부터 아프리카의 NGO 지원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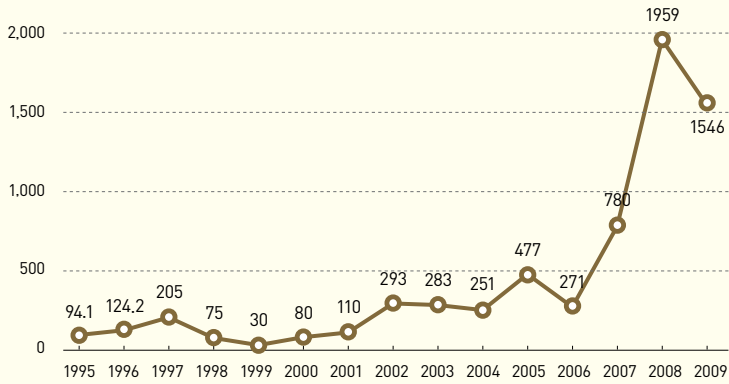
〈표7〉 아프리카지역 국가별 KOICA-NGO 지원사업 금액 및 사업수

국가명	사업비	사업수	국가명	사업비	사업수
케냐	1,484.1	22	르완다	203	6
탄자니아	736.9	8	말라위	200	2
에티오피아	688	13	토고	200	2
스와질랜드	549.1	9	앙골라	135	2
수단	479	6	잠비아	130	1
우간다	372	6	레소토	110	1
모잠비크	320	6	DR콩고	94	1
마다가스카르	300	3	카메룬	75	1
세네갈	250	2	남아프리카공화국	35	1
짐바브웨	235	3	합계	6596.1	95

(단위: 백만원, 시기: 1995~2009년)

〈그림4〉 아프리카지역 KOICA-NGO 지원 사업비

(단위: 백만원, 시기: 1995~2009년)



업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데 2007년 OECD-DAC의 가입준비 및 2009년 DAC 가입으로 인해서 DAC에서 지정한 아프리카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이니셔티브⁸⁾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KOICA의 NGO 지원사업은 2007년을 계기로 아시아 집중에서 벗어나 협력사업 대상국의 다각화라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2-3. 중동 지역

중동지역은 현재까지 KOICA의 NGO 지원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

8)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나이지리아에서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는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08년까지 현재의 세 배로 늘리고 향후 3년 내 아프리카인 1,000명을 초청, 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한편, 봉사단과 의료단 파견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이다.

구하고 세번째로 많은 지원금액을 차지한 지역이며 절대규모면에서 아프리카 지역과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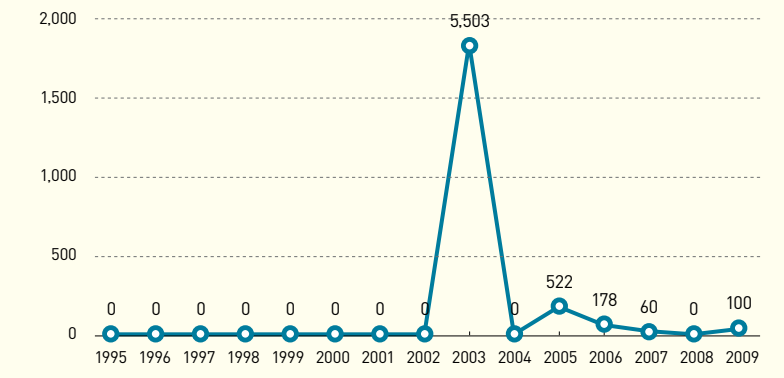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동지역의 지원은 2003년 KOICA의 이라크 긴급 구호 사업을 위한 지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국가들 사이에서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그림5와 비교해 볼 때 잘 드러난다. 2002년까지는 중동지역에 NGO를 통한 KOICA의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2003년 이라크의 긴급구호 사업을 위해 중동지역에서의 NGO를 통한 지원 금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그후 2005년 중동특별협력사업

〈표8〉 중동지역 국가별 KOICA-NGO 지원사업금액 및 사업수 (단위: 백만원, 시기: 1995~2009년)

국가	사업비	사업수
이라크	5,503.9	21
팔레스타인	252	3
예멘	251	4
요르단	238	2
이집트	120	1
합계	6,364.9	31

〈그림5〉 중동지역 KOICA-NGO 지원사업비

(단위: 백만원, 시기: 1995~2009년)



을 위해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에 NGO 협력사업비가 지출되는 등 적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지원되는 경향을 보인다.

2-4. 남미 및 CIS지역

남미 및 CIS지역은 KOICA의 NGO 지원사업이 많지 않은 곳이다. 총 원조 금액은 14억원으로 남미의 2개 국가, CIS 5개 국가가 이에 해당된다. 이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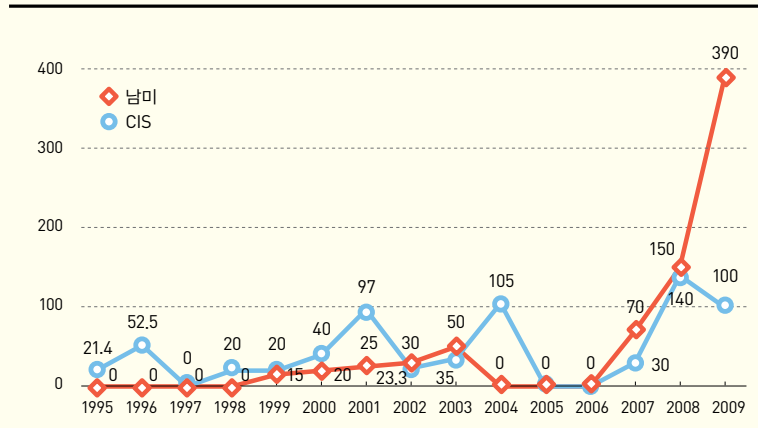
〈표9〉 남미 및 CIS 지역 국가별 KOICA-NGO 지원사업금액 및 사업수

	국가명	지원금액	사업수
남미	볼리비아	490	8
	과테말라	260	2
	우즈베키스탄	244.5	8
CIS	키르기스스탄	220	3
	타지키스탄	123.3	2
	카자흐스탄	76.4	4
	우크라이나	20	1
		1,434.2	27

(단위: 백만원, 시기: 1995~2009년)

〈그림6〉 남미 및 CIS 지역 KOICA-NGO 지원사업비

(단위: 백만원, 시기: 1995~2009년)



지역은 한국 NGO에서 해외사업을 많이 하지 않는 지역이기에 상대적으로 지원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8, 2009년에 들어서서 남미 및 CIS 국가에 대한 지원금액도 상승하는 추세이며 이는 한국 NGO와 KOICA의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사업대상국가 및 사업들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업분류별 통계

이 장에서는 NGO 지원사업의 사업별 분류를 알아보겠다. 지난 15년간의 NGO 지원사업을 사업분류별로 보면 표10과 같다. 이 표를 작성하면서 가장 곤란했던 부분은 KOICA의 NGO 지원사업의 사업분류가 2006~2007년을 기점으로 기준이 급격히 바뀌어서 일관성 있는 내용 비교가 어렵다는

〈표10〉 1995~2009년 KOICA 지원 사업별 분류에 따른 사업수 (괄호안은 사업비, 단위: 백만원)

사업별 분류	교육	농림수산	의료보건	긴급구호/ 재난(재건) 복구 ⁹⁾	지역개발	환경	기타
1995	11(261.7)	3(104.9)	5(114.2)				
1996	10(211.2)	3(30)	12(296.7)				
1997	9(210)		10(380)				1(20)
1998	8(140)	1(25)	7(140)				1(15)
1999	10(210)		9(185)				1(20)
2000	10(275)		11(295)				1(30)
2001	16(639)	1(20)	9(288)				1(43)
2002	13(493.3)	1(30)	13(478.2)	6(655)			1(50)
2003	9(362)	2(65)	13(553)	36(6,703.1)			1(50)
2004	7(392)	1(45)	12(457)				1(35)
2005	14(1,090.6)	2(61)	14(637.4)	9(825)	1(56)		1(35)
2006 ¹⁰⁾	4(213)		8(427)	13(1,251)	8(514)		6(320)
2007	13(950)		14(751)		15(932)		
2008	16(1,201.5)		26(1,893.5)		27(2,212.5)	3(355)	
2009 ¹¹⁾	20(1,532.4)		27(2,238.5)		21(1,564.9)	3(410)	2(192.7)

점이다. 예를 들어 2005년까지 농림수산물로 분류되었던 사업이 2006년부터는 지역개발로 분류되어 있거나 2007년에는 환경사업도 지역개발의 범주에 들어가 있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15년간의 사업추세를 사업 분야별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린다.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1995년 지원 분야는 교육, 농림수산, 의료보전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15년 동안 긴급구호/재건복구, 지역개발, 환경 등의 분야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NGO를 통한 KOICA의 지원사업은 교육과 의료보건 분야에 꾸준히 집행되었다. 1995년~2001년에는 교육사업에 많은 금액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지만 그 이후, 특히 2006년 이후에는 교육보다 의료보건 분야에 NGO 지원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NGO들의 의료보건 사업비 지출 및 사업 빈도수가 교육사업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2009 한국 개발 NGO 편람』의 결과와 비교하여 NGO 현장사업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9) 2005년도 스리랑카,인도네시아 지원사업 내용은 '남아시아 쓰나미 해일피해 재건복구', 2006년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의 사업은 '재난복구' 사업으로 분류.

10) 원 데이터에는 2006년 사업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 있었다. 일부는 2005,2007년 데이터와 비교하여 채울 수 있었고,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의 사업은 앞에 '재난복구' 분류가 있어서 구분할 수 있었지만 중등특별협력사업은 부득이 '기타'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다.

11) 2009년 데이터는 '보건 및 환경'카테고리에 의료보건과 환경사업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사업내용을 보고 '의료보건'과 '환경'으로 분리하였다.

12) '크로스커팅 이슈(cross-cutting issues)'란, 현재 국제사회에서 국제개발을 언급할 때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의미하며, '분야횡단적 과제' 또는 '크로스커팅 과제(cross-cutting themes)'라고도 불린다. 한편, 크로스커팅 이슈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다양화 되는 경향이 있다. 한 예로, 2002년 코토누협정(Cotonou Agreement: Articles 31-33)에서는 크로스커팅 이슈를 젠더, 환경과 천연자원, 제도적 개발과 역량강화로 분류하고 있으나, 2005년의 유럽연합(EU) '개발을 위한 유럽 컨센서스(The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에서는 인권, 양성평등(gender equality), 민주주의, 선정, 아동의 권리와 신주민, 분쟁예방, 환경 지속성, HIV/AIDS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크로스커팅 이슈는 정부 간 협의 및 국가별 전략(CAS), 예산지원계획 등의 프로그램 준비 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긴급구호/재난(재건)복구 사업은 2002, 2003년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피해 난민 긴급구호사업과 2005, 2006년에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 쓰나미 재난 복구를 위해 NGO를 통해 지원된 금액이다.

농업수산 분야의 사업은 2007년부터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분류되었다. 2007년의 지역개발사업에는 이외에도 환경사업도 포함되는 등 기준이 모호하였기 때문에 사업분류의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환경사업 분야는 최근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에서 크로스커팅 이슈¹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또한 정부차원에서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앞으로도 더욱 KOICA를 통한 NGO의 환경분야 개발협력사업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KOICA의 NGO 지원사업의 15년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NGO 지원사업의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특징은 NGO 지원사업 금액의 성장이다. 이것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KOICA의 예산 즉 무상원조금액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면이 많다. 이제 국무총리실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따라 NGO 지원사업 금액은 2015년까지 9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비율 또한 총사업비의 80%까지 상승함에 따라 앞으로 NGO-KOICA의 파트너십은 개발협력 현장에 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KOICA의 NGO 지원금액은 정부의 대외원조 계획에 민감한 변화를 보인다는 점이다. 2003년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난민원조와 2005년의 중동특별협력사업을 위해 지출된 금액, 그리고 2006년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를 통한 아프리카 협력사업비 상승 등의 변화는 이와 같은 정책 변화에 부응한 결과일 것이다. 물론 공적개발원조라는 것은 세금이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겠지만 NGO의 개발협력사업 파트너십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

지보다는 NGO 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먼저 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한편, KOICA의 NGO 지원사업은 사업지원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업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에는 단지 교육, 농림수산, 의료보건 분야만 사업을 지원했다면, 2009년에는 지역개발 및 환경 사업에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것은 KOICA의 NGO 지원전략의 변화와 사업비 증액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개발 NGO가 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시작하여 정부기관의 파트너 단체로서 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KOICA는 한국의 개발 NGO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여 한국개발 NGO가 해외 개발협력의 현장에서 더욱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09 한국 국제개발 NGO 편람』을 보면 최근 한국의 NGO들은 경제개발, 수자원개발, 사회개발, 옹호(Advocacy)사업 등에도 착수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신생, 크로스 커팅 이슈에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 NGO의 사업실행 역량을 늘리고 정부기관과 NGO의 좋은 파트너십의 사례가 되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KOICA의 파트너이자 사업 실행의 주체인 NGO들도 사업실행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한다. KOICA를 통한 NGO 지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이기에 그 사용금액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NGO의 자체적인 역량이 더욱 신장되고 질적, 양적인 성장을 거듭한다면 정부기관과의 공고한 파트너십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이 알차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10. 『2009 한국 국제개발 NGO 편람』.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07. 『2007 한국 국제개발 NGO 편람』.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05. 『2005 민간단체 해외원조 활동 자료집 - 세계 빈곤지역의 한국 NGO』.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03. 『2003 민간단체 해외원조 활동 자료집 - 세계 빈곤지역의 한국 NGO』.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이련주. 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2010년 4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2008. 『한국의 OECD/DAC 가입을 위한 DAC 특별심사』. 『국제개발협력』,
2008년 3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009.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통일연구원. 2008. 『국제NGO의 원조 정책과 활동』. 통일연구원

인터넷자료

통계청공식사이트 e-나라지표 www.index.go.kr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홈페이지 www.koica.go.kr

표 목차

- 〈표 1〉 1995~2009년 KOICA의 NGO 지원금액
- 〈표 2〉 1995~2009년 KOICA의 NGO 지원 - 연도별 현장지원사업
- 〈표 3〉 지역별 15년간 누적 지원금액
- 〈표 4〉 KOICA의 NGO 사업 지원 국가
- 〈표 5〉 연도·지역별 KOICA 지원사업금액
- 〈표 6〉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별 KOICA-NGO 지원사업금액 및 사업수
- 〈표 7〉 아프리카지역 국가별 KOICA-NGO 지원사업금액 및 사업수
- 〈표 8〉 중동지역 국가별 KOICA-NGO 지원사업금액 및 사업수
- 〈표 9〉 남미 및 CIS 지역 국가별 KOICA-NGO 지원사업금액 및 사업수
- 〈표 10〉 1995~2009년 KOICA 지원사업별 분류에 따른 사업개수

그림 목차

- 〈그림 1〉 1995~2009년 KOICA의 NGO 지원금액 추이
- 〈그림 2〉 15년간 누적 지원금액 지역별 총액과 비율
- 〈그림 3〉 아시아·태평양지역 KOICA-NGO 지원사업비
- 〈그림 4〉 아프리카지역 KOICA-NGO 지원사업비
- 〈그림 5〉 중동지역 KOICA-NGO 지원사업비
- 〈그림 6〉 남미 및 CIS 지역 KOICA-NGO 지원사업비

Making
a Better World
Together

